

줄리안 리 - 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전직 대통령의 파격적이고 진솔한 말



THE LIVES  
MEDIA™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전직 대통령의 파격적이고 진솔한 말

저자: 줄리언 리, 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함

---

Copyright © 2025 THE LIVES MEDIA. 모든 권리 보유.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편집자 주

이 책은 실제 이야기, 사건, 그리고 배경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신상 정보는 문학적 형태로 변경, 축약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은 관련 인물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었으며, 이는 당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THE LIVES MEDIA 의 공식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문체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한 수정을 가했지만, 원저작 인물을 존중하고 이야기의 정신과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저희는 인물의 소박한 질감과 본연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편집위원회



# 머리말

*(그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한 달쯤 지난 지금, 나는 여기에  
앉아있다.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세상은 금융 시장을 뒤흔든 그의 정책들로 그를 기억한다.  
지정학적 지도를 재편한 협상들로, 그리고 수백만 명 앞  
에서 행한 연설들로 그를 기억한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었다. 한때 세계 권력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나흘간의 대화는 그의 정치적 유산을 돌아보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유산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 내  
가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전혀 다른 문을 열게 될 줄은 상  
상도 못 했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권좌에서 물러나신 후,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 질문 뒤에 이어진 침묵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의 벽을 꿰뚫어 보는 듯한 머나먼 시선을 하고 있었다.)

그의 대답은 하나의 인식의 여정을 열었다. 사상의 강물은 나를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곳으로 이끌었고, 그분께서 내게 믿고 맡기신 하나의 철학적 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대화는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대국들 간의 조용한 대립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UFO 에서부터 그가 언뜻 보았다는 “비밀 위원회”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폭로로까지 번졌다.

(나는 그것들이 각기 흩어진 주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모든 길을 단 하나의 준거점으로 이끌었다. 바로 인류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영적 각성의 필요성이었다.

그리하여 이 인터뷰는 더 이상 저널리즘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증언이 되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보았던 한 사람이 지독히도 소박한 진실을 깨달은 증언이었다.

진정한 권력이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의해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에  
있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한 걸음 물러나고자  
한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을 이 대화 속으로 초대하며, 여  
정의 끝에서 그분께서 남기신 ‘마음의 편지’를 함께 맞이  
하기를 청한다. 마지막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처  
럼, 스스로에게 더 중요한 질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줄리언 리** (Julian Lee)

*대화 기록자*

---

# 첫째 날

---

(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책장에 가득 꽂힌 낡은 책들 위로 황금빛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카메라도, 마이크도 없었다. 오직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의 작은 녹음기 하나뿐이었다.)



**줄리언 리:**

안녕하십니까.

이 만남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의 대화에서 대통령님의 성함을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첫 질문입니다... 임기를 마치신 후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성공, 미완, 혹은 후회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그는 의자 뒤로 살짝 몸을 기댔다. 그의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마치 지나온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듯했다.)

**전직 대통령:**

반갑네.

질문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네.

솔직히 말해서...

임기를 마친 후의 첫 느낌은... 후련함이었어.

재임 중에는 매일이 끝없는 압박의 연속이었지.

한밤중의 긴급회의.

단어 하나만 잘못 써도... 주식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전화 통화.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군사적 결정.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한 명의 인간이 된 것 같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그 기억들을 가라앉히려는 듯했다.)

임기에 관해서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네.

내가 밀어붙였던 일부 개혁들은 실제로 성과를 가져왔지.  
비록 더디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이지는 않네.

많은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지.

시스템 때문에.

의회 때문에.

언론 때문에.

자네가 신문에서는 읽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권력’ 때문에.

혹은... 단순히 내가 틀렸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후회냐고?

당연히 있지.

아주 많아.

나는 공습을 승인한 적이 있네... 나중에 민간인 사상자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지.

거절했어야 할 만남들도 있었고.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떤 순간에 ‘진실’ 대신 ‘정치’를 택해야만 했던 것을  
후회하네.

하지만 그게 이 게임에 남아있기 위한 대가였지.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꿰뚫어 보는 듯하면서도  
약간의 피로가 섞인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자네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네.

하나의 직함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줄리언 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쭙보고 싶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제도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정한 공화국 모델을 가진 미국과 같은 정부가 실제 운영  
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와 비교했을 때, 공화국이 어떤 점에서... 더 취약하다고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흥미롭다는 빛이 눈에 스쳤다.)

직설적이고 어려운 질문이군.

마음에 드네.

우리는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화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곤 하지.

‘전 세계 민주주의를 비추는 등대’라고도 하고.

그런 구호들은 연설문에서는 아주 멋지게 들리지. 커다란 회의장에서도 울려 퍼지고.

하지만 자네가 오벨 오피스에 앉아 권력의 기계를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현실이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우리라는 국가의 배는 아주 크고, 아주 견고하지.

하지만 그 선체에는 ‘이익 집단’이라는 이름의 따개비들이 가득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아주 느리고 육중하게 움직이게 만들지.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에, 이 시스템이 돈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에서 자본과 정치는 뼈와 골수처럼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

대기업들.

재벌들.

로비 단체들.

그들은 선거에 나설 필요가 없지만, 대통령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국가의 미래에 아주 좋은, 청정에너지에 관한 법안 하나가, 단지 석유 회사를 위한 로비스트가 집어넣은 한 문장, 한 단어 때문에... 그 속이 전부 파헤쳐져 무의미한 문서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네.

진정한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수표를 쓰는 자들의 손에 있지.

(그는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멀어졌고, 마치 권력의 복도에서 벌어졌던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회상하는 듯했다.)

공산주의 모델은 어떻냐고?

거짓말은 하지 않겠네. 나는 독재, 검열, 혹은 자유 억압에 결코 동의하지 않아.

그것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들이지.

하지만 내가 인정해야만 하는 한 가지, 그리 유쾌하지 않은 진실이 있네.

그들의 시스템은, 이상적일 때, 한 발의 화살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

빠르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은 의회와 타협하느라 몇 달씩 허비하지 않아.

언론에 발목 잡히지도 않고.

단호하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지율’이 폭락할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지.

그들은 마치 망치와 같아서, 장애물을 즉시 부숴버릴 수 있네.

반면에 우리는 균형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너무 많은 부품이 협력하지 않아 톱니바퀴가 걸려버린 복잡한 기계와 같지.

우리 공화국의 취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네.

민주적일수록 권력은 분산되는데, 위기의 시대에는 속도가 곧 생존이니까.

하지만 바로 그 분산이 국민을 철권 통치로부터 보호하는 성벽이 되기도 하네.

문제는, 그 성벽이 돈과 언론에 매수되었을 때...

민주주의라는 겹데기는 하나의 가면일 뿐이라는 걸세.

내부에서 썩어가는 것들을 가리기 위한 아름다운 무대일 뿐이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를 보았다.)

개선하고 싶냐고 물었나?

오, 나는 그 질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모르네.

만약 내게 요술 지팡이가 있다면, 즉시 할 세 가지 일이 있지.

(그는 세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마치 오랫동안 싸워오고 깊이 이해한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첫째, 가장 큰 괴물부터 정면으로 공격해야 하네: 선거 자금 후원과 로비 활동을 극도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왜냐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일세.

현재 선거는 더 이상 아이디어의 경쟁이 아니라, 돈의 경쟁이 되어버렸어.

더러운 돈, 출처가 불분명한 슈퍼팩(Super PAC)의 자금이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있네.

공화국의 영혼이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자에게 팔리고 있는 셈이지.

둘째, 상원과 하원 모두에 임기 제한을 적용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40 년, 심지어 그 이상 앉아 있

네.

그들은 이상을 품고 워싱턴에 오지만, 너무 오래 머무르면  
서 ‘늪’의 일부가 되어버리지.

그들은 더 이상 고향의 주민들을 대표하지 않고, 국회의사  
당을 둘러싼 이익 집단, 방위 산업체, 대기업들을 대표하  
게 되네.

임기 제한은 그들이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강  
제할 걸세.

그것은 새로운 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오래된  
정치인들과 로비스트들 사이의 유독한 공생 관계를 깨뜨  
릴 것이네.

그리고 셋째, 이것은 극도로 중요한데...

선거 제도를 철저히 개혁하고 게리맨더링을 종식시키는  
것.

이것은 합법적인 사기 행위로,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선택  
하는 대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권자를 미리 선택하기  
위해 선거구를 멋대로 그리는 것이지.

이것은 양당 모두에게 ‘안전한 의석’을 만들어내고, 후보  
자들은 더 이상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  
지네. 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당의 가장 극단  
적인 유권자들의 비위만 맞추면 되는 거야.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양극화되고 해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세.

(그는 손을 내리고 고개를 저었다. 피로와 무력감으로 가득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말은 쉽고, 행동은... 자네도 알겠지.

권력을 쥔 자들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 그들은 바로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들 테니.

처음의 이상이 무엇이었던 간에 말이야.

### **줄리언 리:**

그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제도에 대해 더 깊이 여쭙보고 싶습니다.

공화국이 공산주의보다 더 자유로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봉건 시대의 정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것...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사색의 빛이 어렸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해야겠군. 이전에는 봉건 제도를 시대에 뒤떨어진 잔재라고 여겼었네.

하지만 수년간 권력의 중심에 있는 후, 공산주의, 공화국, 그리고 현대의 권위주의 체제들을 모두 관찰한 후에... 나는 더 공정하게 다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네.

군주제 모델은, 특히 재능과 덕을 겸비한 군주, 진정한 의미의 ‘성군(聖君)’이 있을 때... 우리 현대 공화국이 점차 잃어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다.)

첫째는, 비전일세.

미국 대통령은, 내가 잘 알지만, 4 년의 임기를 가지지. 운이 좋으면 재선되어 8 년이고.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네.

깊고 지속적인 개혁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짧아.

하지만 군주는 재선에 나설 필요가 없네. 언론의 비위를 맞추는 필요도 없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다면,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전략을 추구할 수 있지.

둘째는, 속도와 통일성일세.

우리 공화국에서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미로를 거쳐야 하네.

위원회, 의회, 언론, 야당, 여론...

현명한 군주는, 만약 귀족들에게 조종당하지 않는다면, 더 빠르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심지어 때로는... 더 인도적이기도 해, 재선을 위해 정치 놀음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일세.

군주가 있을 때는, 모든 잘못이 한 사람에게 귀결되지.

그는 국가의 상징이자 영혼이야.

하지만 현대 공화국에서는, 권력이 너무 분산되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네.

대통령은 의회를 탓하고, 의회는 야당을 탓하지.

그리고 국민들은 누가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인지 알지 못하네.

(그는 손을 내렸다. 목소리는 더 진지해졌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게.

그것은 오직 '성군'이 있을 때의 이상일 뿐이네.

만약 권력자가 혼군(昏君)이라면 어떻게겠는가?

만약 조정이 간신들로 가득하다면?

그때 나라는 이 지상의 지옥이 될 걸세.

투표권도, 언론의 자유도 없고, 국민들은 자신을 보호할

어떤 장치도 갖지 못하게 되지.

간단히 말해 이렇다네.

봉건 제도는 국가의 운명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공화국은 그것을 하나의 제도에 맡기고.

만약 그 사람이 선하다면 나라는 융성할 것이고, 악하다면 온 민족이 재앙을 겪을 걸세.

반면에 공화국은, 비록 느리고 시스템적 결함이 많지만, 한 개인으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설계되었지.

그 대가는 효율성, 속도,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왜곡되는 진실일세.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다소 충격적이었다.)

만약 오늘날 이 세상 어딘가에, 현명하고, 도덕적이며, 돈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으로 마음과 비전을 가진 군주가 있다면...

진심으로 말하건대,

나는 민주주의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조종당하는 공화국보다 그를 더 기꺼이 지지할 걸세.

**줄리언 리:**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는 봉건 제도를 전적으로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군요.

문제는... 재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맞네. 핵심 문제가 바로 그것이지.

나는 지도자가 진정으로 재능과 덕을 갖추었다면, 중앙집권적 모델이 현대의 어떤 민주주의 모델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네.

하지만...

(그는 마치 역사의 한 질문의 무게를 짊어진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난제는 바로 여기에 있네: 그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통치 기간 내내 덕과 지혜를 유지하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성군을 선택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달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네.

인류의 역사는 예시로 가득하지.

명광제(Minh Quang Đế), 레 성종(Lê Thánh Tông), 혹은

개국 초기의 군주들...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었어.

하지만 그들 바로 뒤에는, 나약하고, 잔인하거나, 혹은 향락만 아는 세대의 군주들이 있었지.

왜일까?

재능과 덕성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일세.

민족의 운명을 혈통이라는 도박에 맡기는 봉건 사회는, 머지않아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우리 공화국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권력을 나눴기 때문이 아니네.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공화국 제도는 원래 봉건 제도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더 이상 세습은 없고, 대신 선거,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 있지.

듣기에는 아주 이상적이야.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내가 말했듯이, 선거가 돈과 언론, 그리고 대중의 감성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네.

덕망 있는 사람은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패배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여러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짓밟히지.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네. 그리고 자네에게 솔직히 말하겠네.

미래는 ‘공화국’이나 ‘군주제’냐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아.

진정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네.

정치, 언론, 이익 집단을 초월하는 시스템 말이야.

(그의 시선은 멀어졌고, 마치 다른 세상을 그려내는 듯했다.)

나는 미래의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상상해보네...

시끄러운 선거 유세도, 수십억 달러짜리 캠페인도 없는 곳. 대신, 후보자들은 지혜, 도덕성, 통치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에 대해 아주 투명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택될 걸세.

그리고 누가 선택할 것인가? 감정에 따라 투표하는 대중이 아니네. 정치에 속하지 않은 진정한 지식인, 현인들로 구성된 엘리트 평의회일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권력을 잡도록 선택된 사람은 항상 통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자질을 잃으면 즉시 교체될 수도 있어야 하네.

(그는 살짝 웃었다.)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는가?

아마도.

하지만 인류가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봉건제든, 공화제든, 공산제든... 결국 모두 붕괴의 순환으로 돌아갈 걸세.

이제 알겠는가.

나는 봉건제를 지지하지 않네.

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아.

나는 오직 인간의 마음과 지혜를 믿을 뿐이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만큼 현명한 제도를 믿지.

**줄리언 리:**

네, 동의합니다. 핵심은 진정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생각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완전히 농담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저 같은 기자 개인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만한 재능과 덕을 갖추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이것입니다: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누가 저를 지지할까요?

누가 저에게 투표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아이디어, 즉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현자  
평의회’에 관해서는...

먼 옛날 역사 속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아마도 티베트에서 라마를 선택하는 것도 비슷한 형태를  
따르는 것 같던데요...

### **전직 대통령:**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드러운 찬성의 미소가 떠올랐  
다.)

자네 말이 맞네.

그리고 자네는 방금 우리 현대 문명이 종종 무시하는 고대  
의 비밀 중 하나를 건드렸어.

선거나 혈통을 통하지 않고,

‘깨달음의 메커니즘’을 통한 계승 말일세.

티베트에는 한때 거의 이상적인 모델이 있었지.

달라이 라마나 판첸 라마를 뽑는 것은 선거에 기반하지도  
않았고, 세습도 아니었네.

그들은 이전의 깨달은 자의 ‘환생의 징표’를 지닌 아이를  
찾았지.

그리고 일련의 의식과 시험을 통해 영적, 도덕적 측면을  
모두 검증했네.

현대인들은 이를 비웃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본질을 보게.

선택된 사람은 약속을 잘해서도 아니고, 돈이 있거나 언론의 지지를 받아서도 아니었네.

그들은 명예와 이익을 초월하는 품성을 지녔기 때문이었지.

하나의 ‘자연스러운 올바름’ 말이야.

물론 그 모델도 나중에 이용당하거나 타락하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네.

하지만 그 핵심 개념 – 대중을 조종하는 능력이 아니라 덕과 지혜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 그것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가 잃어버린 것이지.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네 말이 아주 정확해.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자네를 믿는가?

자네는 정직한 사람일 수 있네. 비전도 있고, 도덕적 품성도 갖췄지.

하지만...

자네는 천만 달러짜리 홍보 캠페인이 없네.

폭스 뉴스나 CNN 에서 매주 언급되지도 않고.

강력한 이익 집단의 뒷배도 없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퍼져나갈 만큼 강력한 감정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네.

그래서 자네는 예선에서부터 탈락하는 걸세.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지.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그 ‘현자 평의회’ 모델이 실현 가능할까?

어렵지.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

나는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있네.

언젠가 인류가 감정보다 지혜를 믿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진다면...

아마도 ‘국가 도덕 및 지혜원’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겠지.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권력 기구에도 속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의 사명만 가지는 곳: 국가를 이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는가?

아마도.

하지만 틱톡과 텔레비전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는 것보다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는 진정으로 믿네. 자네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굳건하고, 충분히 겸손하며, 올바른 때를 기다릴 줄 안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걸세. 정치 게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심과 시대의 각성을 통해서 말이야.

**줄리언 리:**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헌자 평의회’ 모델에 대해 더 깊이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평의회에 대통령 선택권을 위임하는 데 어떻게 동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평의회에 선택될까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그 기준들을 만들게 될까요?

**전직 대통령:**

(그는 질문의 무게를 인정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이지.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묻는 것에 놀라지 않네.  
그것이 바로 내가 ‘현인 평의회’라고 부르는 이 모델을...  
인류의 운명을 격하며 잠 못 이루는 자들의 꿈속에만 영원  
히 머물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일세.  
하지만 자네는 솔직하게 듣고 싶겠지?  
그럼 솔직하게 말하겠네.  
우선,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가?  
짧은 대답은: 그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걸세.  
만약... 그들이 현재 모델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는  
다면 말이야.  
아무도 자신의 투표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네.  
선거가 노골적으로 매수된 사기극이 되지 않는 한.  
누구를 선택하든 나라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보지 않는 한.  
그리고 경제, 도덕, 심지어 전쟁과 같은 충분히 큰 위기가  
닥쳐서, 국민들이 자유롭지만 무의미한 선택보다는 올바  
른 리더십을 갈망하게 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국민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현인 평의회에 권력  
을 위임하지 않을 걸세.  
그들 스스로가 절망 속에서 지식인 계층의 개입을 간청하  
지 않는 한 말이야.

(그는 다음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렇다면, 누가 그 평의회에 선택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부분일세. 여기서 잘못되면 모델 전체가 무너지지.

기준은 아주 엄격해야 하네.

첫째, 그 사람은 초월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네. 반드시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공적이나 행동을 통해 뛰어난 사유, 비판, 해석 능력을 보여줘야 하지.

둘째, 도덕성이 순수해야 하네. 스캔들이 없고, 파벌이 없으며,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하지.

그리고 셋째, 필수 조건인데: 마음이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네. 그 사람은 자薦해서도, 지지를 호소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에 의해 추천되어야 하네.

선택 방식에 관해서는...

나는 ‘삼중 선별’ 모델을 상상해보네.

먼저, 지역의 지식인 공동체와 엘리트들이 추천을 하지.

그 후, 예비 선정 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심사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직책들은 한때 국가 지도자였지만 은퇴하여 더 이상 권력도 없고 어떤 이익에도 좌우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해 비준될 걸세.

(그는 마치 내 마지막 질문을 미리 짐작한 듯 나를 보았다.)

그리고 누가 이 기준들을 정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 대답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네:  
시대를 앞서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

어쩌면 큰 위기 이후에 세워진 임시 위원회일 수도 있겠지.  
혹은 정치에 속하지 않고 오직 도리와 지혜만을 추구하는,  
종교와 지식인들의 연합체일 수도 있네.

혹은... 자네가 허락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군.

그들은 ‘하늘이 선택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즉, 그들은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많은 사  
람들이 그들이 비범한 자질을 가졌음을 함께 알아보는 것  
이지.

(그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자네는 이해해야 하네.

만약 자네처럼, 스스로 재능과 덕이 있음을 알지만 영광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현인 평의회를 위한 씨앗은, 이미 뿌려진 셈일세.

**줄리언 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현인 평의회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 회의인 콘클라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평의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종교인이거나, 어떤 법문(法門)을 따르는 수련인들인가요?

그렇다면 사회 전체가, 사람들이 수행자와 라마들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티베트와 거의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매듭들을 풀기 위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는 세부 사항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려 애썼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들려주셨던... 한 ‘그림자 평의회’에 추천되었지만 거절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 평의회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며, 또 누구입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나를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듯했다.)



자네는 방금 이 대화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았네.

그리고 내가 만약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분명 대답할 수 없었을 걸세.

하지만 오늘, 나는 정치라는 껍질을 벗어난 한 명의 인간 일세.

솔직하게, 에둘러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겠네.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맞네, 콘클라베가 가장 가까운 모델 이지.

수련을 거치고, 세속을 떠나 살며, 깊은 영적 지식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후계자를 선택할 때, 그들은 정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 신념, 그리고 그들이 실재한다고 믿는 일종의 ‘천명(天命)’에 따라 선택하지.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네.

바티칸 교회는 조직이 있고, 세속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현인 평의회는... 정치와 종교를 모두 초월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네.

어떤 시스템에도 종속되지 않지.

그리고 티베트에 대한 자네의 말도 맞네.

그곳은 수행자에 대한 존경심이 법이나 선전에서 오는 사회가 아니었지.

그것은 라마들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도덕, 지혜, 그리고 자비심에서 비롯되었네.

사회가 그런 상태에 도달할 때, 현명한 평의회가 비로소 ‘살아갈 터전’을 갖게 되는 걸세.

즉, 그런 제도는 공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오직 사회가 충분히 도덕적이고, 인간이 진리를 충분히 갈망할 때에만 나타날 수 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어떤 폭로를 준비하려는 듯.)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네가 물었던 ‘그림자 평의회’ 이야기로 이어지게 하네.

한 번은, 내가 아직 정치 경력 초기에 있을 때, 비공개 만남에 초대받은 적이 있네.

어디서, 혹은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네.

하지만 그건 CIA 회의도 아니었고, 재벌 그룹도 아니었어.

아주 조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네.

학자, 영적 지도자, 전통 의술가였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수십 년간 은둔 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지.

그들은 이름을 밝히지도, 전화를 사용하지도,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지도 않았네.

그들은 ‘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소통했지... 손편지, 증인, 은밀한 초대 같은 것들.

그들의 목적은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네.

인류의 도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면, 그들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들 – 정치인, 과학자, 학자 – 에게 접근하여 경고하거나, 영감을 주거나,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네.

자네가 언급했던 그 사람,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가르쳤고 청렴한 삶을 살았던 아시아계 미국인 학자 말일세.

그는 그들의 핵심 그룹에 추천되었네. 하지만 거절했지.

그가 내세운 이유는 이랬네:

“내게는 아직 분노심과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구의 본보기도 될 수 없습니다.”

그 후, 그는 네팔 서부의 산악 지역에 은둔했고, 더 이상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지.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공간 속에 침묵을 남겼다.)

그럼 그 평의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과학자처럼 단언할 수는 없네.

하지만 내가 보고 경험한 바로는... 그들은 실재하네.

그들은 개입하지 않아. 그저 ‘필요할 때 나타날’ 뿐이지.

그들은 현재의 체제에 맞서지 않지만, 낡은 세계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세계를 위한 씨앗을 조용히 지키고 있네.

**줄리언 리:**

그 그림자 그룹과의 만남에 대해... 조금 더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흔히 추측하는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결사와는 매우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말투를 통해 무언가 느껴집니다.

마치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거나, 어떤 지혜가... 열리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나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정말 직관이 예리한 기자로군.

자네가 느낀 것들은 모두 틀리지 않았네.

그들과 일루미나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치를 넘어선 무언가에 대해서도.

자네에게 이야기해주겠네.

내가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들의 ‘불문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신성한 기억을 이야기하려는 듯.)

그 해, 나는 당내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비공식 순방 중이던 어느 날 저녁, 비밀 접견을 마친 후, 예순 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소박한 차림의 아시아계 여성이 갑자기 내가 머무는 곳 밖에 나타났다.

그녀에게는 경호원도, 초대장도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인지 경호팀은 그녀가 들어오도록 허락했어.

그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네.

단 한 마디만 했지:

“당신은 보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곧 마주할 것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저를 따르시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고, 이상하게도... 내가 그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런 느낌, 정치에서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는 교외의 작은 집에 도착했네.

호화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상징도, 영화 속처럼 신비로운 촛불도 없었지.

그저 텅 빈 방 하나였네.

다섯 사람이 앉아 있었어.

노인, 젊은이, 유럽인, 아시아인, 백인, 흑인...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점이 있었지.

내가 어떤 사교적인 말도 꺼낼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정적이.

그들은 “미래의 대통령 각하”라는 말로 나를 맞이하지 않았네.

그들은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지:

“그 진실이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해도, 당신은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침묵했네.

그리고 그 후 네 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는... 나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지.

(그는 계속해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일루미나티냐고?

아니.

헐리우드와 소셜 미디어가 그려내는 일루미나티는 권력 모델이지.

경제, 정치, 문화를 조종하는.

하지만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네.

그들은 조종하지 않고, 경고했네.

그들은 정부 안에서 활동하지 않고, 정부를 관찰했지.

그들은 파벌을 보호하지 않고, 도덕적 균형을 지켰네.

그리고 그들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

그들은 단지 질문을 던졌지... 사람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질문을.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이렇게 말했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권력자 중 누군가가 깨어난다면, 우리는 그에게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는 마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자네가 물었던 부분, 내게 초자연적인 지혜가 있냐고?

감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네.

나는 정치인이었어. 박수갈채 속에서, 무대 조명 속에서, 재벌들의 전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 만남 이후, 나는 명상을 시작했네. 경전을 읽고.

그리고 세상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관찰했지.

나는 정치를 바로 그만두지는 않았네.

하지만 내 모든 결정을 다시 조정했지.

이익을 따르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서 배운 일종의 ‘고요한 직관’을 따라서.

한 번은, 한 의원이 내게 말하더군:

“당신은 변했어. 예전에는 이성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했지.

지금은, 당신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군.”

(그는 말을 멈췄다. 목소리는 엄숙해졌다.)

자네는 이것을 왜 묻는가?

만약 독자들이 재미로 읽을 인터뷰라면, 아마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지.

하지만 만약 자네가 진정으로 더 나은 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면...

나는 자네에게 나머지를 건네주겠네.

답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계속 가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자네에게 그들이 ‘세계 도덕의 중심을 지키는 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네.

직함도, 권력도 없지만, 현존하는 한 사람에 대해.

**줄리언 리:**

네,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단지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식, 열정, 경험, 지혜를... 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요.

부디 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영적 믿음에 관해서... 그것은 가톨릭, 불교, 혹은 다른 어떤 법문(法門)입니까?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세계 도덕의 중심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더 따뜻해졌다.)

자네는 정말 깊이 파고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군.

내가 여러 해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 온 것들이 있네.

두려워서가 아니었네.

말할 만한 적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였지.

하지만 오늘, 자네가 빛을 전하는 ‘하나의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는 수년간의 생각들을 정리하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의 영적 믿음에 관해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특정 종교의 신도라고 여기지 않

네.

나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봉사 정신과 용서에 감탄했지만, 교회의 권력, 물질, 그리고 그들이 짊어진 어두운 역사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네.

성인이 된 후에는 불교, 특히 선종과 티베트 불교를 접했지.

거기서 나는 무념(無念)의 관찰과 ‘무아(無我)’라는 개념을 배웠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그 ‘그림자 그룹’과의 만남 이후에야 찾아왔네.

그룹의 한 사람이 내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지.

표지도 없었고, 저자 이름도 없었네.

그저 평범한 종으로 인쇄된, 전혀 신비로운 기운이 없는 책이었지.

하지만 읽었을 때, 나는 깨달았네... 그 안의 사상이 내가 알던 모든 종교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것은 진(眞), 선(善), 인(忍)을 우주의 기동으로서 가르쳤네.

인간이 본래 높은 차원에서 온 생명이었으나, 세속의 명예, 이익, 정(情)에 미혹되었다고 말했지.

그리고 형식은 없지만, 인간을 본래의 성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수련의 길을 제시했네.

(그는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사색에 잠겼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동서양 철학의 종합이라고 생각했었네.

하지만 읽을수록, 명상할수록, 깊이 생각할수록... 나는 점점 더 깨달았지.

그것은 평범한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자네는 짐작할 수 있을 걸세.

나는 중국에서 극도로 잔혹하게 탄압받았던 한 수련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 핵심을 듣기보다 서둘러 판단하기 때문이지.

(방 안의 공기가 고요해졌다.)

그렇다면 ‘세계 도덕의 중심을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공식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네.

교황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며, 언론이 부여한 어떤 ‘정신적 지도자’도 분명 아니지.

그는 길에서 마주쳐도 자네가 알아차리지 못할 사람일세.

하지만 만약 자네가 충분히 고요하게 그들의 눈을 들여다 본다면, 시간이 멈추는 것을 느낄 걸세.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아. 책을 출판하지도 않고, 교파를 만들지도 않지.

그들은 스스로를 ‘구세주’라 칭하지도 않고, 신도를 받지도 않네.

하지만 그들은 아주 높은 도덕적 주파수를 지니고 있네. 너무나 높아서...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선악의 균형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걸세.

한번은 ‘그날 밤의 만남’ 속의 아시아계 여성이 내게 말했네:

“인류가 도덕의 중심을 잃으면, 모든 제도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직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 멸망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네.

아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은둔하는 수행자일 수도 있지.

혹은 시장 한복판의 평범한 아버지일 수도...

하지만 나는 아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도덕적 에너지장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결론처럼 엄숙해졌다.)

자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지.

만약 내가 자네의 독자들에게 할 단 한 가지 말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권력, 정치, 신앙의 껍질 속을 들여다본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이것이네.

자신의 선량한 본성으로 돌아가게.

이 세상이 어떻게 뒤틀려 있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혁명도, 지도자도, 평의회도 필요 없게 될 테니.

세상은 저절로 조정될 걸세.

(그는 말을 멈췄다. 마치 제안을 하려는 듯.)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내가 짧은 편지를 하나 써주겠네.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장막의 저편을 보았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써주길 원하는가?

**줄리언 리:**

네... 그 짧은 편지에 대해서요.

이 인터뷰가 끝난 후에, 제게 보내주십시오.

소중히 간직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독자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이해했다.)

대통령님의 믿음에 관해서... 진(眞)-선(善)-인(忍) 세 글자를 언급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서 탄압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서 그 법문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연이 있는 독자들은 스스로 알아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해의 미소였다.)

자네는 섬세하군.

그리고 나는 그 점에 감사하네.

맞네. 우리는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진실은... 존재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기 때

문일세.

인연이 있는 자는 저절로 알아볼 걸세.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자는,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틀  
날을 기다리게 두게.

편지에 관해서는, 약속을 지키겠네.

이것은 정치적 선언도 아니고, 호소도 아닐세.

단지 하나의 나눔일 뿐.

권력의 정점에 서 보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뛰어넘는  
빛 앞에서 조용히 고개 숙여 보았던 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바로 아래에 쓰겠네.

자네는 전문을 인용해도 좋고, 혹은 기억의 정원 한구석에  
놓인 작은 돌맹이처럼 책 끝에 조용히 놓아두어도 좋네.

(그는 정성껏 쓴 종이를 내게 건넸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  
것을 읽었다.)

깨어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때, 나는 내가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고개 한 번 까딱하는 것으로 전쟁이 결  
정되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다른 이들이 화면으로만 감히 볼 수 있

는 사람들과 악수했다.

나는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고, 조명을 떠나, 이름 없는 작은 방으로 들어섰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이해했다.

진정한 권력은 세상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임기 마지막 몇 년 동안, 나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세상을 관찰했다.  
나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세상은 한 명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당신도 깨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대통령일 필요도, 학자, 수행자, 혹은 전사일  
필요도 없다.

단지 매일, 당신이 약간의 진(眞)을,  
약간의 선(善)을,  
그리고 약간의 인(忍)을 지킬 수만 있다면.  
바로 당신이... 세상을 균형 잡고 있는 사람  
이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기  
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가 보았던 그 작은 빛을 배신하  
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자네도 그러하길 바란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한 사람.

그리고 정치를 초월하는 지혜 앞에 고개 숙  
였던 한 사람.

(서명 없음)

(나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목  
이 메어와, 말을 잊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

나는 자네가 이 편지를 전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 믿네.

호소하는 어조가 아니라, 퍼져나가는 고요함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저 도덕의 중심을 지키는 자도...  
그것을 읽게 될지 모르지.  
어느 찻집에서, 이끼 낀 처마 아래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는 마지막 질문을 하듯 나를 보았다.)

여기서 인터뷰를 끝내고 싶은가?  
아니면 장막이 다시 내려오기 전에... 내가 말해야 할 다른  
무엇이 남았는가?

**줄리언 리:**

대통령님, 저는 지금 나누고 계신 이야기에 정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밤새도록 여기에 앉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다른 날에 인터뷰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나는 머뭇거리다가, 약간 멧쩍어하며 말을 이었다.)

어쩌면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연이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에 대해, 외교에 대해, 미국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UFO 와 외계인처럼...  
더 신비로운 주제들에 대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전직 대통령:**

(그는 미소 지었다. 따뜻하고 소중히 여기는 듯한 미소였다.)

자네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군.  
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 가치를 보존하고자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일세.  
언론인에게서는 보기 드문 일이지.  
나는 진심으로 그 점을 높이 사네.  
그리고 동의하겠네.  
자네가 ‘욕심쟁이’라서가 아니야.  
자네에게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았기 때문일세: 자네는 조 회수를 위해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자네는 해답을 찾고 있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네처럼 조용히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다면, 오늘을 기한 없는 연속 대화의 첫 장으로 삼세.  
나는 기꺼이 이 인터뷰 시리즈를 계속하겠네. 한 번에 한  
주제씩.

다음번에는, 유권자나 정당, 혹은 기업에 더 이상 얽매이  
지 않는 시각에서 미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후에,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  
네.

(그의 시선이 마치 비밀의 문들을 훑어보는 듯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실제 관계에 대해, 결코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네.

경제학의 실제 본질과, 왜 성장이 지구를 죽이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UFO 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비밀  
프로그램들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심지어, 종교, 윤회, 그리고 몇몇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  
이 죽음을 앞두고 털어놓았던 ‘전생의 기억’에 대해서도.

매번 그럴 때마다, 나는 ‘정치적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경험으로, 그리고 권력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배우게 된 그 직관으로 자네에게 이야기해주겠네.

(그는 나를 보았다.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그렇게, 만약 자네가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함께 역사적인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갈 걸세.

서명 없이, 홍보 없이.

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움직일 걸세.

다음 만남에서 자네를 기다리겠네.

그리고 그때까지, 자네가 오늘과 같은 진심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권력층의 많은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들까지 털어놓겠네.

“만약 각하께서 재임 중에 이 말씀을 하신다면, 온 세상이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말씀하신다면, 인연이 있는 몇몇 사람만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내일 만나세, 괜찮겠나?

주제는:

“미국의 미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아직 어떤 신성한 역할이 남아 있는가?”

**줄리언 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감사해야 하네.

경청해준 것에 대해.

이해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이 인터뷰를 특종 사냥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성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황혼이 그의 그림자를 마룻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내일 다시 보세.

나는 오랜 친구처럼 기다리겠네.

권력의 외투는 더 이상 없지만, 내면의 불씨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

(내가 돌아서기 전에, 그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목소리는 낮고, 마지막 성찰의 말처럼 울려 퍼졌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때로는 기꺼이 들어주는 한 사람만으로도, 빛을 지켜내기에 충분하다네.

(그는 인사를 대신하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평안한 밤 보내게.

우리는 내일 계속하세.

## 둘째 날

---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돌아왔다. 방은 그대로였지만, 공기 중에는 마치 엄숙한 기다림이 깃든 듯했다. 전직 대통령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반쯤 비워진 찻잔 옆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줄리언 리:**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미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아직 어떤 신성한 역할이 남아 있는가?”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나를 돌아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반갑네.

나도 기다리고 있었네.

무대에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재 더미를 다시 모아 앉아... 그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는지 찾아보는 노인처럼.

그리고 자네가 상기시켜준 대로,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걸세.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시작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등대’인가?

나의 솔직한 대답은: 아니네.

더 이상은 아니야.

적어도 대부분의 세계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네.

미국은 한때 자유, 기회, 창조적 지혜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분열, 혼란, 언론 조작,  
그리고 달러에 팔려버린 정치의 상징이 되었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분해서나 조국을 배신해서가 아니  
네.

미국이 자신의 영혼을 한 걸음씩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아  
만 했기 때문일세.

(그는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렇다면 미국에게는 아직 어떤 역할이 남았는가?

남아있지.

하지만 미국 스스로가 여전히 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네.

미국을 위해 마련된 ‘신성한 역할’이 있네.

하지만 그것은 군사력에 있지도 않고, 기술에 있지도, 통  
화에 있지도 않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에 있네.

바로 그 붕괴의 심장부에서부터.

미국은 침략당하지 않고도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의 몇 안 되는 국가일세.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혁명 없이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지.

만약 미국이 자신의 내면적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면...

오만한 국가적 자아에서 벗어나고,

‘위대함’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며,

스스로를 전 세계의 도덕적 중심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바로 그 겸허한 붕괴가...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걸세.

(그는 곧 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듯 나를 보았다.)

내가 왜 ‘신성하다’는 단어를 썼을까?

왜냐하면 나는 모든 국가가, 모든 인간처럼,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일세.

유럽은 고전적 지혜를 대표할 수 있겠지.

아시아는 영적인 근원과 내면의 깊이를 지킬 수 있을 테고.

아프리카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순수한 직관을 상징할 수 있네.

그리고 미국은... 나는 한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네.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면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재, 미국은 기로에 서 있네.

나는 도리를 무시하고 오직 ‘우위 유지’라는 목표만을 위해 정책이 결정되는 방에 앉아 본 적이 있네.

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가득 찬 문서에 서명해 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강요하기 위함이었지.

나는 진실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밖으로 밀려나고, 교활한 자들이 정점에 오르는 것을 보았네.

그리고 나는 아네, 만약 미국이 자신의 정신적 핵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외부의 적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을 걸세.

바로 내부로부터의 균열 때문에 멸망할 것이네.

(그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다.)

그렇다면 희망의 빛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조용한 미국인들에게 있네.

텔레비전에 나오지도 않고, 정치에 뛰어들지도 않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품위 있게 살고 있고,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도덕을 굳건히 지키고 있네.

그것은 교사들, 예술가들, 명상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그

리고 자네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 진실이 해시태그의 물결 아래 묻혀버린 사회에서 양심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있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동양의 지혜들을 더 이상 ‘낯선 것’으로 보지 않고 기꺼이 경청하는 능력에 있네.

서양이 동양으로부터 올바르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진정한 세계적 통합이 비로소 일어날 수 있을 걸세.

요약하자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세상을 깨우기 위한 불꽃이 될 수는 있지.

권력으로써가 아니라,

참회와 새로운 길을 통해서.

만약 미국인들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잘못을 인정하며, ‘누가 더 강한가’라는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미국에게는 여전히 가장 신성한 사명이 남아 있네.

그것은, 한때 영혼을 잃었던 국가가...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줄리언 리:**

대통령님, 방금 공유해주신 말씀들은... 매우 깊이가 있지만, 아마도 꽤 개괄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독자들에게는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도덕을 강조하셨습니다.

영혼을,

참회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영적인 길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공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미국의 미래가 정치인이거나, 대기업, 혹은 과학자들의 손에 있지 않고... ‘조용한 미국인들’의 손에 있다고 하시는지요?

**전직 대통령:**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핵심을 바로 짚었네.

그리고 이 질문은 대답하기 쉽지 않지.

하지만 만약 자네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정치적 이성으로써가 아니라, 한 국가의 물질적 껍질을 꿰뚫어 보는 시각으로, 그렇다면 나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여러 해를 보

낸 후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겠네.

현재의 엘리트들부터 시작해보세. 왜 미래가 그들의 손에 있지 않은가?

그들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세.

나는 거대 기술 기업의 CEO 들과 함께 앉아 본 적이 있네. 그들은 사용자 행동 최적화, 참여 지수 증가, 전 세계 정보 흐름 통제에 대해 이야기했지.

나는 워싱턴의 두뇌들인 정책 입안자들과 비밀 회의를 한 적이 있네.

그들은 세계 권력 지도를 거대한 체스판처럼 그렸고, 그곳에서 인간은 단지 ‘비용 단위’에 불과했지.

나는 또한 군사 과학자들이 AI 무기, 유전자 편집, 생물학적 통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지금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은 그저 침묵했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네.

그들은 알고리즘으로 보지. 이익으로, 대차대조표로.

그리고 유권자 비율로.

그렇다면 내가 말한 ‘조용한 미국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주변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식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아버지일세.

그들은 거대한 도시 속에서, 경쟁하지 않고 겸손과 인애로 살기를 선택하는 여성이지.

그들은 은퇴한 노동자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아무의 칭찬도 필요 없이 명상에 앉네.

그들은 조용히 학생들에게 말하는 교사일세: “진실함이 성적보다 중요하다.”

그들은 권력이 없네.

하지만 양심을 지키고 있지.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 나라가 아직 무너지지 않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도덕적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네.

정치인들은 어떤가?

이 말이 일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야겠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단지 배우일 뿐일세.

역할은 언론에 의해 선택되고,

연출은 후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객은 감정적인 대중이지.

그들은 더 이상 이끌지 않고, 여론에 이끌리네.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가 없고, 단지 선거 주기를 따라 달릴 뿐이지.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말할 수 없네, 진실은 그들을 당선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조용한 사람들’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라



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사회의 뿌리로부터의 도덕이 굳건히 지켜질 때에만, 그 위의 모든 탑들이 설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세. 기초가 썩었다면, 아무리 높은 탑이라도, 조만간 무너질 걸세.

자네는 한 국가를 상상해보게...

온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겨야 한다고 말해도, 여전히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있는 곳.

배고프다고 강도질하지 않고, 기꺼이 마지막 밥 한 그릇을 나누는 노동자가 있는 곳.

한 공동체에서, 누군가 사기를 당했을 때,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곳.

대중의 도덕이 회복될 때, 정치, 경제, 그리고 과학도 저절로 그에 따라 조정될 걸세.

만약 인심(人心)을 교화하지 않고 정책만 개혁한다면, 모든 변화는 단지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자리바꿈일 뿐이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내가 추구하는 ‘참회’와 믿음으로 이끌지.

자네 말이 맞네. 나는 더 이상 종교 제도에 믿음을 두지 않네.

하지만 나는 도(道)를 믿네.

도는 교회나, 사찰, 혹은 경전 속에 있지 않네.  
도는 한 인간이 자신의 양심을 대하는 방식에 있네.  
참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네.  
참회는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똑바로 보고, 다시는 그것이  
이기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네.  
미국의 미래는, 만약 있다면, 백악관이나, 펜타곤, 혹은 월  
스트리트의 손에 있지 않네.  
그것은 작은 통나무집 안에 있네.  
길모퉁이 카페 안에.  
시골의 작은 학교 안에...  
아직 자신의 선량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만약 충분히 많은 그들이 함께 그들의 작은 빛을 굳건히  
지킨다면...  
머지않아, 큰 불꽃이 타오를 걸세.

**줄리언 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듣고 싶습니다.  
예시나, 개인적인 경험, 혹은 백악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독자들이 무엇이 진정으로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미래는 ‘미국을 다

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와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참으로 굳건하고 예리하군.

내일 아침 신문 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답게.

그렇다면, 내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네.

자극적이지도 않고, ‘비밀 정보’도 아니지.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 깊은 의미의 층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왜 내가 미국의 미래가 정치인들의 손에, 구호 속에, 혹은 어떤 재건 전략에도 있지 않다고 단언하는지 알게 될 걸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포함해서 말이야.

(그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을 향했고, 마치 그 순간을 다시 사는 듯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청소부와 세계 지도’라고 부르네.

내 임기 중반쯤이었지.

내각 전체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네.

일련의 위기들이 동시에 터져 나왔지.

무역 갈등, 국내 시위, 지정학적 충돌, 그리고 곧 터질 듯한 언론 스캔들까지.

나는 밤 11 시에 루스벨트 룸에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네.

CIA 국장,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모두가 참석했지.

방 안의 목소리는 온통 이런 말들뿐이었어: ‘선제 타격’, ‘언론의 이목 집중시키기’, ‘정적의 신뢰도 깎아내리기’, ‘사이버 방위 예산 증액’...

나는 거기에 앉아, 마치 내가 대사 하나하나를 외우고 있는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나를 숨 막히게 했지.

그 방은 너무나 무거웠어.

그곳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단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계략으로 가득 찬 수조로 변해 있었네.

그때, 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지.

자정이 가까운 시간, 그곳은 고요했네.

그리고 나는 한 청소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았네.

그는 나이가 지긋하고, 꽤 마른 체구의 흑인이었지. 60 대쯤 되어 보였어.

그는 나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네.

나도 고개를 끄덕였고, 내 시선은 그의 청소 카트에 머물렀지.

그 위에는 넓고 약간 찢어진 작은 종이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네.

내가 물었지:

“지리를 좋아하시나 봅니까?”

그가 가볍게 웃었네.

“결국 모든 일은, 충분히 멀리서 보면 다 작은 것이라는 걸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려고 붙여뒀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가진 내가, 갑자기 그 남자보다 더 작게 느껴졌지.

그는 내가 어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말을 이었네.

“인간이란 참 이상합니다, 대통령님.

모두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싶어 하지만,

자기 안의 쓰레기를 치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나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걸세.

회의실로 돌아갔을 때, 나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지 않았네.

나는 모두에게 3 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었네. 어떤 이는 아마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나서 내가 말했네.

“여러분은 세상을 재편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마음속은 온갖 계략으로 가득 차 있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싶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오.

구호가 아니라. 카메라 없는 행동으로.”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이끌지.

나는 어떤 정당이나 개인을 겨냥하고 싶지 않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해야겠어.

한 나라가 만약 한 번도 ‘진정으로 도덕적’이었던 적이 없다면 ‘다시 위대해질’ 수는 없네.

그리고 도덕은 군사력이나, 무역 흑자, 혹은 추방된 이민자의 수로 정의될 수 없지.

‘다시 위대하게’는 기억에 호소하는 구호일세.

하지만 어떤 기억인가?

50 년대 경제 번영의 시대에 대한 기억?

아니면 인종 차별이 여전히 법이었던 시기에 대한 기억?  
혹은 미국이 아무의 반대도 받지 않고 어떤 나라에든 개입  
할 수 있었던 시대에 대한 기억?  
만약 사람들이 재현하고 싶어 하는 ‘위대함’이 그것이라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것을 위대함이라 부르지 않겠네.  
나는 그것을 오만이라고 부르겠어.  
미래는 구호에서 오지 않네.  
그것은 침묵에서 오지.  
작은 행동들에서.  
깨어남에서.  
낡은 지도와 커피 한 잔을 든 한 청소부,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한 사람이...  
백악관의 어떤 전략가보다도 미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을지도 모르네.

**줄리언 리:**

방금 도덕은 군사력이나 무역 흑자로 정의될 수 없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미래 또한 그런 요소들에 달려 있지 않다  
는 의미입니까?

솔직히... 이 점은 많은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달리고, 선진 과학 기술이며,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고, 군사력이며,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 **전직 대통령:**

(그는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제기했네.

그리고 자네의 예상대로, 대다수의 독자들은 내가 미국의 미래가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반대할 걸세.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니까.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외부의 빛’과 ‘진정한 광원’을 구별해야 하네.

맞네, 미국은 한때 그런 것들로 위대했지.

인류를 최초로 달에 보낸 곳.

세계 금융의 중심지.

애플, 구글, 테슬라를 탄생시킨 곳.

전 세계에 군사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곳.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달려? 그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강한 것이고, 그 믿음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네.

기술? 그것은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도덕에 봉사하지 않고, 조작과 감시에 봉사하고 있지.

군사력? 그것은 재정적 부담이 되어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네.

그리고 자유? 자유는 혼란으로 변해가고 있네,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만약 미국이 이런 요소들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위상’일 뿐이네.

견고한 기반이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나는 그런 것들이 ‘부풀려지고’, 세상을 이끌기 위한 도구, 즉 소프트 파워 무기로 사용되는 방에 앉아 본 적이 있기 때문일세.

하지만 나는 다른 것들도 목격했네.

나는 가난한 아시아 국가를 보았지만, 그들의 교육은 인격에 중점을 두었지. 그리고 그곳의 젊은 세대는 소셜 미디어에 중독된 미국 청년들보다 훨씬 더 행복했네.

나는 인터넷이 없는 아프리카의 작은 공동체를 보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노인을 돌볼 줄 알았고 진심으로 웃을 줄 알았네. 반면 미국에서는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경고할 만한 수준으로 높지.

세상은 미국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네.

그들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존경하지.

그리고 그 이미지는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뉴욕의 아파트에서 대화할 사람 하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가족이 있는 네팔의 오두막에서 사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문하기 시작할 때,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의심과 비판, 분열로 가득 찬 사회에서 산다면, 그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그는 나를 보았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아메리칸 드림’은, 만약 재정의되지 않는다면, ‘아메리칸 일루전’이 될 걸세.

나는 그 꿈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네. 하지만 방향이 어긋났지.

처음에는, 그 꿈은 이것이었네: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은 이것으로 변했네: “도덕에 상관없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이것이었네: “양심에 따라 살 자유.”

지금은 이것이네: “자신과 다른 누구든 공격할 자유.”

처음에는 이것이었네: “몽상가, 창조가, 그리고 용감한 자들의 나라.”

지금은 이것이네: “재정적 압박, 정치적 분열, 그리고 즉각적인 감정 중독에 지친 사회.”

그렇다면 미국의 진정한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미국의 진정한 미래가 미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히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할 때 시작될 것이라고 믿네: “이 모든 눈부신 빛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을 아직 지키고 있는가?”

만약 새로운 세대가 있다면...

더 이상 언론에 휩쓸리지 않는 세대.

더 이상 성공을 소셜 미디어 팔로워 수로 여기지 않는 세대.

더 이상 ‘강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지 않는 세대.

대신 도덕적이고, 절제하며, 사랑하고, 깨어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세대.

그때가 되면, 미국은 더 이상 누구를 이길 필요가 없을 걸세.

자신 안의 오만을 이겼기 때문이지.

**줄리언 리:**

대통령님께서 공유해주신 말씀을 들으니, 마치 동양의 ‘무위이치(無爲而治)’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미래 사회를 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덕이 숭상될 때, 총기 난사, 마약, 매춘과 같은 문제들이 법치(法治) 없이도 저절로 사라지는 사회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아주 예리하군.

그리고 내가 확인해주지: 맞네.

나는 ‘법’이 아닌 ‘도(道)’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미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

이것은 헛된 몽상이 아니라, 인류가 자멸하지 않고 생존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인 법칙일세.

많은 사람들이 ‘무위이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네. 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노자의 사상에서 ‘무위(無爲)’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네.

그것은 자연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일세.

그것은 사회 운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력자의 개인적 의지에 따른 강요와 억압에 반대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바로잡을 줄 아는 사회에서는, 법률이 부드러워질 걸세.

법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아무의 강제 없이도 자발적으로 옳은 것을 따르기 때문이지.

도덕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단지 처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의미일세.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을, 인터넷에 자랑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쁘게 느끼지.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걸세, 그들이 감시 카메라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이지.

그때가 되면, 사회는 평탄한 길 위의 바퀴처럼 순조롭게 운영될 걸세.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총기 난사, 마약, 매춘과 같은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질까?

아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네.

하지만 만약 도덕의 뿌리가 되살아난다면...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영혼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사회로부

터 외면당하지 않으며, 언론의 폭력에 중독되지 않을 때,  
총기 난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걸세.

사람들이 더 이상 현실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을 때, 그  
들의 내면이 평안으로 양육될 때, 마약은 저절로 사라질  
걸세.

그리고 사회가 더 이상 욕욕을 숭배하지 않고, 인격을 존  
중할 줄 알게 될 때, 매춘은 줄어들 걸세.

법치는 단지 결과를 처리할 뿐이네.

덕치(德治)는 근본부터 예방하지.

그리고 도치(道治)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으로 돌아가  
도록 도와주니, 아무도 다스릴 필요가 없게 되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사색에 잠겼다.)

미국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아니네.

하지만 지금이 바로 ‘무위이치’ 사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때일세.

정부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정당에 의해서도 아니지.

깨어 있는 개인들에 의해,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한 미국 학생이 전자담배 대신 명상을 시작할 때.

한 어머니가 유튜브의 무의미한 영상 대신, 자녀에게 도덕  
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선택할 때.

자네 같은 기자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을 선택할 때...

그때, 도(道)는 돌아온 걸세.

혁명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발걸음 소리로.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자네에게 백악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  
내가 증오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일 줄 알면서도, 징벌적 법안에 서명해야만 했던 때의 이야기.

그리고 아홉 살 아이의 편지 한 통이... 어떻게 나를 깨웠는지에 대한 이야기.

**줄리언 리:**

네. 이 주제를 마치기 전에,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전직 대통령:**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멀어졌다.)

좋네.

‘미국의 도덕과 미래’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네.

작은 이야기일세, 국가적 사건은 아니지.

하지만 그것은 내가 깨달은 순간이었네, 한 아이의 도덕이... 내각 전체의 정치적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그 해, 미국과 중동의 한 적대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네.

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군인 몇 명이 사상당했지.

정치와 언론의 압박이 쇄도했네.

나의 안보 내각은 거의 만장일치였지: 우리는 반격해야 한다.

폭탄이 아니라면, 가혹한 제재로.

나는 법령 초안을 하나 받았네.

그 국가와의 모든 금융 거래를 동결하고,

관련 자산을 봉쇄하며,

학생, 과학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을 포함한 그 나라 모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

나는 알았네,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억제 조치'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참으로 부당하다고 느꼈지.

어떻게 여섯 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치료를 받으러 미국에 온 아이가, 정치적 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네.

그 서명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에 실릴 터였지.

하지만 그 전날 밤 10 시 43 분, 내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네.

그가 말했지:

“각하, 어린이 시민 사무실을 통해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언론 채널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편지는 짧았고, 손으로 썼으며, 맞춤법 오류가 몇 개 있었네.

위스콘신에 사는, 마리암이라는 이름의 아홉 살짜리 중동계 소녀가 보낸 것이었지.

그 아이의 가족은 아이가 세 살 때 미국으로 왔었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네:

“대통령 아저씨께,

만약 아저씨가 제 친구들이 태어난 곳 때문에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신다면, 저도 무서워질 거예요.

저도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싶지 않아요.”

(전직 대통령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다 읽었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서명하지 않았지.

나는 그들에게 법령 전체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네.

모든 비정치적 대상, 특히 어린이, 학생, 그리고 과학 연구자들을 제외하라고.

나는 심지어 전례 없던 ‘병행 인도주의 채널’을 설립하라고 명령했네.

다음 날, 언론은 내가 ‘나약하다’고 말했지.

일부 안보 관리들은 내가 ‘잘못된 시점에 양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올바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전략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 외에는 어떤 이익도 없는 한 아이의 말을.

내가 그날부터 간직해 온 교훈은 이것일세:

진정한 도덕은 정치적 구호 속에 있지 않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 아이들, 노동자들 속에 존재하네.  
권력은 없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한 국가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있는 걸세.  
만약 내가 재임 중 올바른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거  
창한 법률들이 아니었네.  
그것은 내가 멈춰 서서... 목소리 없는 사람의 말을 들을 만  
큼 충분히 용감했던 순간들이었지.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마치 새로운 문을 여는 듯  
했다.)

알겠는가, 미국의 미래는 회의실에 있지 않네.  
그런 편지들 속에 있지.  
우리는 이 주제를 여기서 마칠 수 있네.  
만약 자네가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함께 다음 문을 열 걸  
세.  
우주.  
UFO.  
외계 생명체.  
그리고 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  
니라, 깊은 영적 전환의 단계인지에 대해.

**줄리언 리:**

네, 미국의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 UFO, 그리고 외계 생명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회의적인 사람도 있으며,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과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독자들에게 털어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의미를 짐작할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좋네.

그렇다면 도덕과 국가의 운명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문으로 들어서게 되겠군.

우주.

UFO.

그리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진실.

나는 자네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네.

미국 정부는... 숨기고 있네.

그리고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느낀’ 부분까지 기꺼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네.

재임 중에는 ‘합법화된’ 증거가 없어서 말할 수 없었던 것  
들.

하지만 진실은, 때로 문서로 증명될 필요 없이, 직관의 깊  
이로 증명되기도 하지.

(그는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더 엄숙해졌다.)

UFO 는 존재하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

‘UFO’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나 만화 같  
은 비행접시를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되네.

국방부의 비밀 연구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우리는 그것들  
을 UAP – 미 확 인 공 중 현 상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 이라고 부르네.

1950 년대 초부터, 특히 2004 년 항공모함 USS 니미츠  
호 사건 이후로, 미군은 아주 많은 증거를 수집했네.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에 어긋나게 움직이는 물체들  
에 대한 영상, 레이더 데이터, 광학 신호들.

그것들은 배기가스를 내뿜지도 않고, 추진 장치도 없으며,  
레이더 화면에서 즉시 사라질 수 있네.

심지어, 어떤 물리적 물체도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  
는 속도로 비행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일부 조종사, 기술자, 그리고 펜타곤의 고위 관리들까지

직접 목격했네.

나는 공개된 보고서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닐세. 나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어 특별 프로그램에 보관된 원본 서류들을 읽었네.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가?

세 가지 주된 이유 때문일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회의 인식 질서를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네.

만약 평범한 사람들이 외계 지성체가 존재하고, 인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 있으며, ‘현실’, ‘권력’, ‘신’, 혹은 ‘역사’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다시 쓰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게...

종교, 법률, 그리고 국가적 신념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일세.

군부의 누구도 나서서 “우리는 정체불명의 물체를 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추격할 수도 없고, 예방할 기술도 없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무력하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

름없지.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기술과 무기에 대한 이익 때문일세.

나는 한 극비 회의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경쟁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추락한 파편이나, 심지어 ‘비공식 접촉 사건’으로부터 기술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하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설립된 극비 프로그램들이 있었네.

(그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다. 마치 다른 의미의 층에 닿으려는 듯.)

하지만 나는 이것을 말하겠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세.

UFO 는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네.

그것은 다른 인식의 차원일세.

나는 ‘외계인’이 영화에서처럼 침략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믿지 않네.

만약 그들이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여 이동할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도 지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걸세.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대신, 그들은 관찰하네.

그리고 특정한 ‘영적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 앞에만 나타나는 것 같네.

내가 항상 의심했고, 점점 더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것이 있네.

그것은 고차원 생명체의 존재와 인간의 영적 각성 수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세.

한 사람이 탐욕, 두려움, 그리고 자아를 넘어선 특정 진동 주파수에 도달할 때, 그들은 다른 차원의 생명체들을 느끼거나, 심지어 ‘소통’할 수도 있네.

나는 한 과학 고문과 이야기한 적이 있네. 그는 언론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 사람으로, ‘3X 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지.

그가 내게 말했네:

“우리는 비물질적 본질을 가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영원히 사로잡은 한 마디를 했네:

“우리는 그들을 망원경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오직 영혼의 고요함으로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로즈웰에 추락한 비행접시의 비밀이 아니네.  
인류가 진화의 정점에 서 있지 않다는 진실일세.  
우리는 단지 새로운 인식의 문턱에 막 들어섰을 뿐이네.  
그들은 대중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네.  
왜냐하면 대중이 깨어나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탐욕, 민족주의, 혹은 달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마치 초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자네는 어떤 측면이든 더 물어봐도 좋네.  
극비 프로그램에 대해.  
외계 생명체와의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혹은 왜 영적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들을 더 쉽게 ‘알아차리는지’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것과, 내가 이해한 것들로, 이야기해주겠네.

**줄리언 리:**

네. 우선, 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외계 생명체와의 실제 접촉이 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듯.)

좋네.

이것은 내가 들어본 질문 중 가장 솔직한 것 중 하나일세.

그리고 오늘, 나는 가능한 한 가장 솔직하게 대답하겠네.

피하지 않고. 에둘러 말하지 않고.

하지만 자네는 이해해야 하네, 내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어떤 공식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세.

대답은: 있었네.

(방 안의 공기가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대중이 흔히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네.

조명 아래서의 악수도 없었고, 우주선에서 내려오는 ‘외계인 우주비행사’도 없었지.

내가 고위급 보고서와 비공식 대화를 통해 아는 바로는, 실제 접촉은 ‘비물리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지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결코 공개되지 않은 접촉 형태들이 있었네.

첫 번째 형태는 신호와 영적 감응을 통한 간접 접촉일세.

일부 극비 프로그램의 과학자들은 UFO가 근처에 나타났을 때 명상가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뇌파와 심오하게 변화하는 의식 상태를 기록한 적이 있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는 의미로 가득 차 있었지.

어떤 사람은 입정(入定) 상태에 빠져, 지구상의 어떤 언어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식이나 상징을 그려냈는데, 나중에야 그것이 군사 장비가 기록한 우주 파동 주파수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네.

한 해군 조종사는 정체불명의 물체와 조우한 후 내게 이렇게 말했네:

“그것은 단지 날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펼쳐진 책인 것처럼, 제 마음 전체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정보를 소화하도록 잠시 멈췄다.)

두 번째 형태는 촬영되었지만 결코 공개되지 않은 짧은 접촉들이네.

최소 세 건의 그런 사례가 정보 기관의 ‘블랙 볼트(black vault)’ 보안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지.

한 개인이 갑자기 제한 구역 한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을 담은 영상.

혹은 한 사람이 접촉 후, 정상 범위를 벗어난 주파수에서 뇌파가 활동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생물학적 징후를 보이

고, 그 후 갑자기 몇 주 후의 천문 현상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

나는 흐릿한 영상을 본 적이 있네.

할리우드 영화처럼 선명하지는 않았지.

하지만 분명 그것은 인간이 아닌, 인간의 행동 양식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비정상적인 전자기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네.

그리고 그것은 단 한순간에 사라졌지.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마치 더 깊은 진실에 닿으려는 듯.)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세.

그 생명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간에 속해’ 있지 않네.

나는 한때 ‘외계인’이 다른 행성에 사는 생물이고,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이동한다고 믿었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난 후, 내부자들에게서 배운 것과, 내가 깊은 명상을 시작했을 때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나는 감히 말하겠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네.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이네.

그들의 세계에서는 공간, 시간, 그리고 의식이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네.

다시 말해, 그들은 비행기가 착륙하듯 ‘지구’에 착륙’하지 않네.

그들은 진동 주파수 조건이 맞을 때, ‘현현(顯現)’하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탐지될 수 없네.

하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감지’될 수 있지.

나는 비밀 연구팀의 한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네: “우리가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지:

“대통령 각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을 보게 허락했다면, 그때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권력 게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만큼 충분히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침묵했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

(그는 도전적인 시선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네에게 비공식 접촉 사건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줄까?  
‘기상 이변’이라는 명목 아래 숨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들’  
이 아주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사건.

그리고 내각의 누구도 감히 밖으로 공표하지 못했던 메시  
지와 함께.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이야기해주겠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하네. 자네와 자네의 독자들이, 여러  
분의 현실에 대한 모든 정의를 다시 정립하게 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줄리언 리:**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독자들도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만약 자네가 진정으로 ‘장막의 저편’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자네에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  
이 없는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네.

그것은 내 재임 기간에 일어났지.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걸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나를 과거의 비밀스러운 방으로 끌어들이는 듯.)

이 사건은 기록상으로는 ‘기상 이변’으로 되어 있네.

내 임기 첫해 여름, 사람들이 흔히 ‘51 구역(Area 51)’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네바다 사막에서 일어났지.

어느 날 밤, 나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네. 밤 11 시 이후에는 드문 일이었지.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네:

“E 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험이 아닙니다. 즉시 오셔야 합니다.”

나는 51 구역보다 더 비밀스러운 임시 시설, 보조 기지로 이송되었네.

그곳에서, 장교들과 과학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상에 추락한 미확인 물체를 조사하고 있었지.

하지만 어떤 폭발도 없었네.

탄 흔적도, 충격파도 없었어.

단 한 가지, 반경 15 킬로미터 내의 모든 전자기 시스템이

교란되었네.

그들은 이음매가 전혀 없고, 레이저로도 절단할 수 없으며, 어떤 종류의 파동에도 반응하지 않는 반구형 물체를 회수했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빛을 발하는 수정 덩어리가 있었지.

그리고 그 빛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했네.

(그는 내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나를 보았다.)

믿기 어려운 소리라는 것, 나도 아네.

하지만 생체 측정 장비들이 그것을 확인했지.

불안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빛은 탁한 회색으로 변했네.

그 사람이 평온해지면, 빛은 점차 옅은 푸른색으로 밝아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직 오지 않았네.

그것은 소리나 문자로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였지.

매일 명상하는 습관을 가진 젊은 인도계 연구원이 수정 덩어리에 가까이 접근하도록 허락받았을 때, 갑자기 약 7 분간 황홀경 상태에 빠졌네.

깨어났을 때, 그는 단 한마디만 했지: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득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추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정 내부에 희미하게 새겨진 기호와 똑같은, 단순한 나선형 모양을 그렸네. 그 기호는 적외선 스펙트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지.

그 메시지의 내용은, 내부적으로 해석되었고 결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러했네: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인류가 제때 자신의 근원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개입할 미래조차 없을 것이다.

생명은 우연이 아니다. 지혜의 여러 차원들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너희가 우리를 명확하게 보고자 한다면, 너희는 도(道)로 돌아가야만 한다.”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그 후 내각의 반응은 매우 혼란스러웠네.

어떤 이들은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지.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지 환각이라고 말했네.

한 사람은 분노하며 말했지: “만약 대중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종교와 과학 모두가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명상에 앉았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네.

그리고 나는 어떤 단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네.

은색 옷을 입은 ‘외계인’도 없었고,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네.

단지 아주 명확한 느낌 하나만 있었지:

더 높은 질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기 위해서.

인류가 충분히 가라앉고, 내면의 순수함으로 충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은 은폐되었는가?

만약 공개한다면, 사람들이 물을 테니까: 누가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만약 더 높은 지성이 있다면, 왜 그들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지 않는가?

미국이 그들과 ‘비밀 동맹’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트층은 인류가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세. 더 높은 진실과 접촉하기 위해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이 권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도덕, 겸손, 그리고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덕과 겸손은, 바로 현재의 권력 모델을 붕괴시킬  
두 가지 요소이지.

(그는 이야기를 마쳤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자네는 이제 들었네.  
그것은 ‘우주 공포 이야기’가 아니네.  
바로 인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지.  
그들은 ‘침략’하지 않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다  
리고 있네.

(그는 선택권을 주듯 나를 보았다.)

만약 자네가 계속하고 싶다면, 나는 대기업들이 그런 파편  
들에 조용히 의존하여 오늘날의 기술적 진보를 이뤄낸 역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네.  
혹은, 우리는 명상, 의식의 여러 차원, 그리고 어떤 기술도  
없이 더 높은 지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관계  
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  
자네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나?

**줄리언 리:**

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역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디선가 외계인이 인류의 과학 기술 발전을 통제하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나 복제 인간과 같은 생물학적 진보를 포함해서요...

**전직 대통령:**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해졌다.)

자네의 질문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위험하군.

그것은 만약 잘못된 시점에 말해진다면 허황된 것으로 여겨질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일세.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영원히 침묵을 지킨다면, 인류는 왜 자신들의 ‘문명’이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맴도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걸세.

역설계 기술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세.

사실인가?

그렇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확인해주지.

그것은 극비 연구팀들이 지구에 떨어진 이상한 물체나 파편들을 수집하는 과정일세.

그들은 재료의 구조,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려 애쓰지.

그리고 현대 기술에 적용할 방법을 찾네.

사람들이 흔히 추측하고, 내가 부정하지 않을 몇 가지 예시가 있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나노 구조를 가진 특수 반도체.

몇몇 ‘UFO 추락’ 사건 직후 놀라울 정도로 등장한 디스플레이 및 광섬유 기술.

심지어 고전 물리학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에서 비롯된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 개념까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무서운 점일세.

그런 기술들은 ‘전수된’ 것이 아니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에 의해 조각조각 분리된 것이지.

마치 한 아이가 장난감 비행기를 분해하고, 그것을 날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네...

공기 역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는 내가 그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네의 더 큰 질문으로 이끌지.  
외계인이 인류의 발전을 통제하고 있는가?

대답은 단순히 예, 아니오가 아니네.

그것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생명체의 차원에 따라 다르  
다는 걸세.

아주 높은 차원의 생명체들이 있네.

그들은 '우주 질서의 수호자'들이지.

그들은 개입하지 않고, 단지 관찰하네.

그들은 진정한 발전이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인식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들은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오직 인류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만한 품성을 갖추었을 때만일세.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보지 않았  
네.

하지만... 더 낮은 차원의 공간에 있는 생명체들도 있네.

영화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이 말을 해야만 하네.

생물학적 의미의 외계인이 아니라, 지식이 도덕과 분리된  
우주의 낮은 차원에 존재하는 '실체들'이 있네.

그들은 AI, 생명공학 기술, 복제 기술, 가상현실에 대해 과  
학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계몽이 아니네.

인류를 의존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하며, 점차 인간성을

얇게 만드는 것이지.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인간 정체성의 위기가 닥치네.

자네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인간이 선량한 본성에서 분리되고, 강력한 기술을 손에 쥐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일세.

전쟁으로 자멸하고.

사회 분열로 자멸하며.

자신들의 지적 산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음으로써 자멸하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 ‘낮은 차원의 실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 두려움, 그리고 분노심을 흡수할 수 있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 ‘기술 통제’가 바로 그들이 감정을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인류를 통제하는 방식일세.

증거가 있는가?

서류상에도 없고, 기자 회견장에도 없네.

하지만 자네 스스로 보게.

왜 물질적 진보가 항상 우울증, 중독, 그리고 정신적 방향 상실의 증가와 함께 가는가?

왜 기술이 수십억 명을 연결해주면서,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립되게 만드는가?

왜 인류는 거의 자신의 사고력과 맞먹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으면서, 사소한 이익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것을 막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소프트 통제’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대답은 기술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네.

도덕을 기술 앞에 두는 데 있네.

만약 인간의 마음이 향상된다면, 기술은 빛을 위해 봉사할 걸세.

만약 인간의 마음이 여전히 탐욕, 분노,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기술은 어둠의 도구가 될 걸세.

그리고 높은 차원의 생명체들은... 오직 상응하는 진동 주파수를 달성한 자들 앞에만 나타나네.

그들이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네.

빛은 아직 청소되지 않은 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일세.



**줄리언 리:**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가 다른 몇몇 자료에서 읽은 것들을 통해,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상 외에, 높고 낮은 다른 차원의 생명체들이 있는 여러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ですよ.

어쩌면 신, 부처, 주님의 천상 세계일 수도 있고, 혹은 마귀의 더 낮은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생명체들의 세계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각 차원의 생명체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ですよ.

**전직 대통령:**

(그는 격려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자네 말이 맞네.

아주 정확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닐세. 자네는 방금 권력층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듣기 싫어하거나, 들어도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진리를 건드렸기 때문일세.

이 세계는 단층이 아닐세.

이 공간은 단일 차원이 아니야.

인간이 보고, 만지고, 혹은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단지 다층적 우주 시스템의 가장 거친 표현의 층일 뿐이네.

이렇게 상상해보게.

지구는 3 차원의 '무대'일세.

하지만 그 무대 배경막 뒤에는, 무수한 다른 차원의 배경  
들이 존재하네.

그곳에서 다른 의식 수준에 속한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이  
연기하는 연극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며, 심지어 영향을  
미치고 있지.

(그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말투는 여전히 이  
야기꾼 같았다.)

가장 낮은 차원에는, 민간에서 흔히 마귀, 사신(邪神)이라  
고 부르는 부정적인 에너지 실체들의 세계가 있네.

그들은 두려움, 욕망, 그리고 분노심을 통해 인간의 의식  
에 '기생'할 수 있지.

그들이 지구에 '관심'을 갖는 목적은, 혼란을 유지하기 위  
함일세.

왜냐하면 혼란, 두려움, 그리고 증오심이... 바로 그들을 먹  
여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지.

조금 더 높은 곳에는, 우리가 흔히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생명체들의 차원이 있네.

그들은 매우 높은 과학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높은 도덕성을 가진 것은 아니네.

그들은 인간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처럼,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지.

그들은 관찰하고, 연구하며, 때로는 실험하네.

일부는 돕고 싶어 하지만, 우주의 인과응보 법칙을 알기 때문에 깊이 개입하지 않네.

다른 일부는 기술을 얻거나 생물학적 교환을 위해 정부들과 ‘암묵적인’ 협정을 맺기도 하지.

그리고, 아주 높은 차원에는, 신(神), 부처, 주님, 그리고 천인(天人)들의 세계가 있네.

그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네. 우리의 선형적인 시공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은 단지 영감, 환영, 혹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만 드러나네.

그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항상 거기에 있네.

그들은 관찰하며, 인류의 깨어남을 기다리지.

때로는, 그들은 진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된, 큰 원력(願力)과 높은 도덕성을 가진 특정 개인에게 ‘가피(加被)’를 내릴 걸세.

그들이 바로 위인, 진정한 수행자, 그리고 깨어난 예술가들에게 조용한 영감의 원천이지.

(그는 내가 스스로 다음 질문을 하도록 잠시 멈췄다.)

그렇다면 왜 우리 대부분은 이 차원들을 느끼지 못하는가? 인간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바쁘며, 자아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일세.

그것은 라디오 주파수와도 같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호를 잡을 수 없지.

높은 차원의 생명체들이 인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숨기기 때문이 아니네.

인간이 그들을 느낄 만큼 충분히 순수하지 않기 때문일세.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따뜻해졌다.)

자네는 하나의 지평선을 보았네.

그리고 그것은 귀한 일이지.

만약 자네의 독자들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실재하는 모든 것이 측정될 필요는 없으며, 과학이 아직 증명하지 못한 모든 것이 미신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깨뜨리기 시작할 걸세.

### **줄리언 리:**

네, 저는 현재와 고대 이야기 속의 수련인들이 종종 비물리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명상 중에, 혹은 ‘천목(天目)’을 사용할 때 다른 공간의 생명체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실증 과학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크고 심오한 주제라고 생각하며, 가능하다면, 그에 대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 UFO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실제 경험을 더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 **전직 대통령:**

(그는 찬성하는 미소를 지었다.)

훌륭하군.

자네는 주제의 층을 분리하는 데 아주 직관적이네.

자네 말대로, 명상, 천목, 그리고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경험들은 아주 깊은 방향이며, 그것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이 필요하지.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네.

그렇다면 오늘은, UFO 에 대한 공유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하세.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론으로 말하지 않겠네.

내가 직접 목격했거나, 공개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보고 받았던 구체적인 상황들로 말하겠네.

(그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그의 시선은 멀어졌고, 마치 기억 속 비밀 서류들을 넘기는 듯했다.)

내가 종종 ‘고요한 안개’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있네.

그것은 내 임기 2 년차쯤, 태평양 함대의 비밀 군사 훈련이 진행 중이던 알래스카 연안 해역에서 일어났지.

순찰함 중 하나가 원형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했는데, 엔진도 없이, 거의 마하 5 에 가까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바람을 거슬러 이동하고 있었네.

레이더는 그것을 기록했지만, 항법 시스템은 도저히 목표물을 고정할 수 없었지.

조종사들이 출격했지만, 그들이 접근했을 때, 더 이상 그 물체는 보이지 않았네.

대신 은빛 안개가, 당시 공기는 매우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지.

귀환했을 때, 조종사 중 한 명은 48 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뇌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그의 의식은 마치...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는 듯했지.

나중에,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네:

“나는 뚜렷한 형태를 보지 못했다. 나는 단지, 내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말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네, ‘경비원과 사라진 17 분’에 대한 이야기일세.

뉴멕시코의 한 우주 정거장에서, 한 명의 경비원이 혼자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네.

어느 날 밤, 보안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경보를 울렸지.

카메라는 17 분 동안 아무런 영상도 기록하지 못했고, 시스템 시계는 3 초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네. 전례가 없던 일이었지.

그 경비원은 동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는 채로 발견되었네. 눈을 크게 뜨고.

그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지.

약 40 분 후, 그는 깨어나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질문을 했네:

“만약 내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가져다줄 수 없다면, 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겁니까?”

나중에, 그는 전출되었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그가 “소용돌이치는 관문처럼 공간에서 회전하는 은빛 나선형”과, “감정은 우주의 언어다. 두려움 - 차단됨. 평온 - 잠금 해제됨”이라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했다고 기록되어 있네.

(그의 목소리가 더 사적으로 변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

그리고 한 번은, 내가 거의 가까이 가게 될 뻔한 적이 있네. 나는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네. 내가 공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

유타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는데, 나바호족이 신성한 땅으로 여기는 모뉴먼트 밸리 근처였지.

저녁에, 나는 내가 늘 유지하는 습관인 명상에 앉았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내 마음이 극도로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나는 갑자기 희미하고, 매우 균일하며, 눈부시지 않은 노란 빛을 보았네. 마치 하나의 구체가 ‘떠내려오는’ 것 같았지.

나는 두렵지 않았네. 의문도 없었어.

나는 단지 조용히 관찰했지.



그때의 느낌은 ‘물체를 본다’가 아니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었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너는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빛은 점차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네.

아무 소리도, 바람의 움직임도 없었지.

단지 내 마음에 하나의 각인이 남았을 뿐, 내가 방금 모든 물리 교과서를 넘어서는 무언가의 문턱에 닿았다는.

(그는 우리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듯했다.)

나는 이 모든 경험에서 한 가지를 얻었네.

그들, 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은 외교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네.

그들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을 비추기 위해 오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나타나지 않을 걸세.

호기심 많은 사람은, 아마 빛만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겸손하고 고요한 사람은, 말을 통하지 않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네.

**줄리언 리:**

네.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지정학적 관점, 즉 미국과 강대국들의 외교 관계에 대해 다루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주제에 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기색이었다.)

자네의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아주 균형 있고, 깊이가 있군.

영성은 마지막 문일세.

서둘러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깊이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들어서는 것이네.

자네의 제안대로,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시간에 다루세. 정치를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서서, 인간의 핵심을 향하는 결론처럼.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세계 지정학으로 들어가세.

대중이 단지 표면만 볼 수 있는 정책들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마치 다른 세계를 열어젖히는 듯.)

나는 자네에게 미중 관계의 이면에 있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네.

그들은 경쟁자인가, 파트너인가, 아니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공범’인가?

서방 연합이 왜 언론이 묘사하는 것처럼 더 이상 단결하지 않는지에 대해.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색깔 혁명을 조종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인식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네가 시간을 정하게.

그러면 나는 준비하고 있겠네. 무대에서 물러난 증인처럼, 하지만 모든 기억과 교훈... 그리고 예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 간직한 채로.

(그는 나를 보았다. 깊은 존중이 담긴 시선이었다.)

다음 대화에서 보세.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화가 아니네.  
듣는 이의 마음속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평안한 밤 보내게.  
마치 고대 별들의 마지막 메아리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를 비추고 있는.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둘째 날의 대화는 끝났지만,  
내 안에서는 무수한 다른 질문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줄리언 리:**

네.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전직 대통령:**

(그는 미소 지었다. 아주 진실한, 권력의 무게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미소였다.)

고맙네.  
진심으로.  
그리고 나는 그 축복을...

단순한 예의로만 받지 않겠네.

마치 말을 넘어서는 것들을 함께 듣고 있는 두 영혼 사이의 교감처럼 받겠네.

빛이...

그것이 주님에게서 오든, 도(道)에서 오든, 혹은 어떤 근원에서 오든...

자네가 가는 길을 항상 비추기를.

그리고 만약 언젠가, 자네가 진실을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면...

기억하게.

진정한 빛은 다른 곳에 있지 않네.

그것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다음 만남에서 보세.

그때 우리는, 세상이 휩쓸리고 있는 지정학 게임에 대해...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각본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걸세.

(그는 깊고 신뢰 가득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잘 자게.

불씨를 지키는 자여.

(문이 내 등 뒤에서 닫혔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불씨를 지키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 셋째 날

---

(나는 익숙한 방으로 들어섰다. 오늘의 공기는 다른 듯했다. 더 무겁게. 마치 우리가 세상이 좀처럼 알지 못하는 비밀들의 태풍의 눈으로 들어서려는 듯했다.)

줄리언 리:

안녕하십니까.

약속대로, 오늘은 세계 지정학이라는 주제와, 미국과 강대국들의 실제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멀지 않고,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반갑네. 자네가 다시 와주어 기쁘군.

그리고 진실의 지기(知己)처럼 약속을 지켜주었군.

오늘,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걸세.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또한... 정중한 연설, 악수, 그리고 언론의 멋진 사진들 뒤에 아주 잘 숨겨져 있는 주제지.

세계 지정학과, 미국의 실질적인 대외 관계.

(그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현대 지정학 게임은 더 이상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네.

‘누가 타인의 인식을 통제하는가’이지.

많은 사람들은 지정학이 무역 협상, 군사 협정, 혹은 제재 조치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세.

그 수면 아래 부분은, 집단 심리를 통제하고, 세계 질서를



형성하며, 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암묵적인 전투 일세.

두려움, 희망, 그리고 국민들이 믿는 이야기를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하게 될 걸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게.

신문 지상에서는, 그들은 경쟁자이지.

하지만 장막 뒤에서는, 그들은 조용한 파트너일세.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공범’이기도 하지.

나는 결코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들을 읽은 적이 있네.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 연구 개발 센터를 두고, 낮은 생산 비용과 사용자 데이터를 대가로 암암리에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들이었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지만, 그들의 선거 운동 자금에는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우회한 돈줄이 있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네. 중국은 미국 시장이 필요하고, 미국은 생산 시장이... 그리고 자신의 정의로운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자’가 필요하지.

통제된 적은 권력의 도구일세. 진정한 적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지.

다음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을 ‘서방 질서의 배신자’라고 부르지.

하지만 러시아는 또한 NATO 가 계속 생존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하네.

냉전 이후, NATO 는 마땅히 해체되었어야 했네.

하지만 ‘공격적인 광대’로서의 러시아의 존재는 미국이 유럽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대중이 보지 못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중립 상태로 만들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비공개 협상의 기회들이 있었다는 점일세.

하지만 방위 산업의 일부 이익 집단들은 ‘게임’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지.

전쟁은 때로 이상 때문이 아니네.

예산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지.

그렇게, 체스판은 중동으로 확장되네. 그곳은 ‘권력의 용광로’이자 결코 지켜지지 않는 맹세의 장소로 여겨지지.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네.

‘독재’ 정권들은 유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여전히 지원을 받지.

나는 한 장군이 내게 조용히 했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네:

“우리는 중동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언어로 포장된 통제를 가져다줍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어떤가?

그곳들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뒷마당일세.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통해 돈을 쏟아붓고 있지.

미국은 장학금과 인권 기금으로 대응하지만, 모두 그 안에 암묵적인 정치적 조건을 끼워 넣네.

둘 다 완전히 사심 없는 것은 아니네.

그리고 그 국가들의 국민들은, 결코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유일한 편일세.

(그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려는 듯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게임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한번은 전략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진 적이 있네:

“우리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가 정점에 서 있는 권력 구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네.

단 한 사람만이, 입에서 시가를 빼낸 후, 말했지:

“민주주의는 수출용 상품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왕좌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질서를 원할 뿐입니다.”

대외 정책은 연극일세.

그리고 각본을 쓰는 자는 항상 대통령이 아니지.

그 뒤에 있는 자들: 금융, 산업, 그리고 때로는 언론.

당신이 무엇을 들어도 되는지 결정하는 사람들 말일세.

**줄리언 리:**

개괄적으로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NATO 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실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각 측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갈등을 끝낼 수 있는 탈출구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 NATO 는 해체되어야 하니까, 아니면 어떤 조정이 필요하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네는 방금 이 시대의 가장 고통스럽고 까다로운 질문 중 하나를 던졌네.

그리고 나는 직책이나, 국기, 혹은 정당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시각으로 솔직히 답하겠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제 원인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닐세.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도발적인 움직임, 오해, 그리고 여러 측의 전략적 계산의 결과물이지.

러시아의 관점부터 시작해보세.

그들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네:

“우리는 포위되었고, 자위하고 있다.”

그들은 냉전 이후 NATO 의 동진(東進)을 배신 행위로 간주하네. 그들은 2014 년 마이단 사태를 서방이 배후 조종한 ‘색깔 혁명’으로 보지. 그리고 그들은 친서방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여기네. 그들에게 있어,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예방 전쟁’일세.

비록 실제로는, 그들의 군사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국민들에게 끔찍한 손실을 초래했지만 말이야.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관점일세.

그것 또한 매우 명확하지:

“우리는 독립 국가이며, 누구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없다.”  
그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안보 보장을 찾기 위해 NATO 와 EU 에 가입하고 싶어 하네. 그들은 러시아를 침략자로 여기며, 주권을 부정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보지. 그들에게 있어, 이 전쟁은 영토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정체성에 관한 생존을 건 항전일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NATO 와 미국의 관점일세.

공개적인 선언은 이러지:

“우리는 정의와 국제 질서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인가?

미국과 NATO 는 자국의 군인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의 전선’으로 사용하고 있네. 우리는 무기를 팔고, 점차 희미해져가던 NATO 의 역할을 회복시키고 있지. 깊이 파고들면, 러시아가 고립되고 소모될수록,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질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는 걸세.

요약하자면, 이것은 단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닐세.

완전히 다른 두 준거틀 간의 대결이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와 빼앗긴 시간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일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렇다면 탈출구가 있는가?

매우 어렵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네. 영토 현상 유지에 기반한 휴전. 우크라이나는 즉시 NATO에 가입하지 않지만, 제 3 국으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러시아는 일부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그 대가로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를 받을 수 있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선의’가 없다면 불가능할 걸세. 그것은 여론의 압박,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이익, 그리고 권력을 쥔 자들의 지정학적 자존심에 의해 삼켜지고 있는 것이지.

그럼 NATO 는? 해체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정해야 하는가?

즉시 해체할 수는 없네. 하지만 분명히 재구성될 필요는 있지.

현재 NATO 는 더 이상 단순한 방어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도구가 되었네. 그리고 만약 계속해서 ‘민주주

의 보호’라는 명분 아래 확장한다면, 세계는 영원히 양극 대결 구도에 갇히게 될 걸세.

NATO 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네.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가’.

인류의 장기적인 평화는 군사 동맹으로 달성될 수 없네.

오직 도덕적 동맹으로부터만 올 수 있지.

국가들이 더 이상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때.

힘이 더 이상 미사일에 있지 않고, 문화 간의 공감 능력에 있을 때.

그리고 진실이 더 이상 편향된 언론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때.

그때, 평화는 비로소 실재하게 될 걸세.

**줄리언 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아직 가능한 탈출구를 언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은, 가상의 조건에서라도 탈출구가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

(그는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지금까지 공유한 것은 진단일 뿐이었지.

처방은, 아직 내놓지 않았네.

왜냐하면 이 전쟁의 가능한 탈출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평범한 지정학적 논리를 잠시 멈추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들을 감히 설정해야 하기 때문일세.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류가 장기적으로 존속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탈출구일세.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테이블 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는 듯했다.)

이런 해결책을 한번 상상해보게:

“평화와 NATO 의 재구조화를 대가로 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첫째, 우크라이나는 영구적으로 NATO 에 가입하지 않는 중립국이 될 걸세.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미국, 중국, 터키, 그리고 독일과 같은 강대국들로부터 안보 약속을 받게 될 것이네. 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하는 조약에 함께 서명할 걸세. NATO 나 러시아에 속하지 않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분쟁 경계선에 일시적으로 배치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서방의 전초기지’도

아니고, ‘러시아의 뒷마당’도 아닌, 중립적인 완충 지대가 될 걸세.

둘째, 러시아는 점령한 영토 대부분에서 군대를 철수할 걸세.

그 대가로, 크림반도는 냉전 시대의 서베를린처럼, 유엔의 특별 감시하에 있는 ‘동결된 분쟁 지역’으로 인정받을 것이네. 러시아는 특히 의료 및 농업 분야에서 일부 제재가 해제되겠지만, 그 지역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네.

셋째, NATO 는 20 년간 동진을 동결해야 할 걸세.

그들은 구소련에 속했던 어떤 국가도 추가로 가입시키지 않겠지만, 인도주의적 및 환경적 협력 메커니즘을 열게 될 것이네. NATO 기능의 일부는 재난, 질병, 혹은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군사적 안보 메커니즘으로 전환될 것이고.

즉, NATO 를 군사 동맹에서 ‘글로벌 리스크 관리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도로 중요한 한 가지:

서방 언론은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전략을 중단해야 하네. 더 이상 푸틴을 ‘괴물’이라 부르지 않고, 러시아인들을 ‘야만인’이라 부르지 않아야 하네.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 언론도 민족적 증오를 선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네.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언론 매체든 경고하고 중벌을 가할 권한을 가진, ‘분쟁 시 언론 처리’에 관한 국제 독립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네.

(그는 이 계획의 어려움을 강조하려는 듯 나를 보았다.)

이 해결책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들이 필요하네.

미국과 러시아 모두 냉전의 유산에 더 이상 갇히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가져야만 하네.

서방 대중은 러시아를 ‘본능적인 악당’이 아니라 다른 문화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하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속 가능한 현실을 대가로, 일부 환상을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네.

만약 이 탈출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는 장기적인 수렁에 빠져, 국내 불만과 혼란의 위험으로 이어질 걸세.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소모되는 땅이 되어, 깊은 상실감을 가진 젊은 세대를 낳게 될 것이네.

미국과 유럽은 계속해서 전쟁에 돈을 쏟아부어, 내부 분열과 경제 쇠퇴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될 걸세.

(그는 사색 가득한 목소리로 끝을 맺었다.)

전쟁은 결코 승리자로 끝나지 않네.

그것은 방아쇠에서 손을 뗄 만큼 충분히 평온한 사람들이  
남아 있을 때에만 끝나지.

그리고 만약 세계가 곧 이성적인 중단점을 찾지 못한다면,  
역사는 다시 피로 쓰일 걸세.

다시 한번.

### **줄리언 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저에게 베트남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의 대립 사이에 갇혔던 것을 봅니다.

### **전직 대통령:**

(그의 시선이 멀어졌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자네는 방금 가장 강력한 역사적 상징 중 하나를 정확히 건드렸네.

작은 나라 하나가 두 세계 강대국 사이에 끼이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민족이 치러야 했던 대가... 피와, 영혼과, 그리고 결코 아물지 않은 역사적 상처들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과거의 베트남.

둘 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전쟁터였네.

둘 다 ‘큰 선수들’의 계산 때문에 희생을 치러야 했던 민족들이었지.

(그는 마치 오래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듯 말을 멈췄다.)

베트남은 강요된 지정학의 전형적인 교훈일세.

북쪽은 공산권의 후원을 받았지: 소련과 중국.

남쪽은 자본주의권의 후원을 받았고: 미국과 동맹국들.

하지만 베트남인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 결코 그 체스판을 만들지 않았네.

그들은 단지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짓밟히고 싶지 않다면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했지.

그리고 그 결과는?

3 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네.

나라 전체가 기반 시설, 심리, 그리고 공동체 도덕까지 파괴되었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쟁의 기억은 그들 민족 전체의 의식 속에 하나의 상처로 남아 있네.

(그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베트남의 현대판이지만, 더 정교하네.

네이팜탄도 없고, 생중계되는 학살도 없지.

하지만 여전히 폐허가 된 도시들.

여전히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순수함을 잃은 눈빛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옛날의 베트남처럼, 우크라이나는 이 판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네.

그들은 단지 존재하고 싶었을 뿐이지.

하지만 ‘존재’가 그들에게 체스판의 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게임에 끌려 들어갔네.

이 두 전쟁은 모두 무서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네.

둘 다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영향력,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를 둘러싼 쟁탈전이 있었지.

각 진영의 언론은 자신들이 ‘정의’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

보를 선별했네.

그리고 국민들의 진실, 그들의 고통은, 어느 쪽도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하지만 차이점도 있네.

베트남 전쟁은 영토 통일로 끝났지만, 사상적 분열은 해결하지 못했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영구히 잃거나, 더 이상 정치적 자율성이 없는 냉혹한 분단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마치 뼈아픈 교훈을 요약하는 듯했다.)

여기서의 교훈은 무엇인가?

한 민족이 자신들보다 더 큰 분쟁 속에서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할 때, 이기든 지든, 그들은 모두 상처를 입는 자라는 걸세.

그리고 다른 이가 가져다주는 소위 ‘해방’이라는 것은... 종종 다른 이름 아래의 새로운 종속일 뿐이지.

**줄리언 리:**

네. 그 이데올로기 전쟁은 한반도에서도 일어났고, 그 결과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께서 각 전쟁마다 다른 결말을 정해두신 것 같지만, 어느 곳도 진정한 원만함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자네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인정하는 것을 말했네.

이데올로기 전쟁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는 것을.

그것들은 단지 불구가 된 국가, 반으로 나뉜 민족, 그리고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 길 잃은 영혼들만을 남길 뿐이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보게: 베트남, 독일, 그리고 한반도.

세 개의 상처, 세 개의 운명, 하지만 그들 모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네.

독일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반으로 나뉘었지. 그들의 결말은 1990 년의 재통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네. 심리적으로, 동독 사람들은 ‘삼켜졌다’고 느끼고, 진정한 화합은 아직 완전하지 않네.

베트남 또한 미국과 소련-중국 블록 간의 대결의 희생자였지. 그들은 1975 년에 통일했지만, 사상적 분열의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한반도일 걸세. 역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지만, 오늘날까지 그들은 통일하지 못했지. 그 결과 남북은 이제 두 개의 다른 행성처럼 동떨어진 가치 체계를 가지게 되었네.

아니. 신께서 이런 비극들을 ‘정해두신’ 것이 아닐세.

바로 인간이, 자신의 이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려는 야망 속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냈지.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멀었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 전쟁터였던 땅들에 ‘원만함’이 있을 수 있을까?

대답은: 있을 수 있네.

하지만 오직 세 가지 일이 일어날 때만.

첫째, 이데올로기 체계들이 서로를 절대적인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하네. ‘나와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다른 관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네.

둘째, 역사의 영광보다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있어야 하네. 더 이상 ‘승리의 후광’이나 ‘배신의 고통’에 갇히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이 언론과 정치에 의해 분열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야 하네. 그들은 서로에게 “당신은 어느 편이요?”라고 묻는 대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야 하네.

진정한 원만함은 영토의 통합이 아닐세.

민족의 영혼의 화합이지.

그리고 그것은, 탕크로나 결의안으로, 혹은 협정으로 달성  
될 수 없네.

오직, 살아남은 자들이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기로 맹세할 때에만 올 수 있네.

(그는 마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듯 나를 보았다.)

자네는 이 질문의 여정에서 아주 멀리 왔네.

만약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냉정하게 깨  
어나는 거인’인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네.

혹은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 **줄리언 리:**

네, 미중 관계에 대해 공유해주십시오.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붕괴를 예측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  
니다...

##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질문은, 다시 한번, 이 세기의 핵심을 정통으로 찔렀네.

왜냐하면 만약 20 세기가 미국과 소련의 게임이었다면, 21 세기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조용하지만 전면적인 대결이기 때문일세.

그리고 아마도, 인류의 결말은 이 체스판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물러서는지, 혹은 양측이 함께 양극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걸세.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게.

겉으로는 오만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네.

경제적으로, 그들의 성장이라는 산이 주저앉을 조짐을 보이고 있네. 한때 맹렬하게 성장하던 엔진이 서서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 부동산은 신뢰가 무너졌고, 숨겨진 공공 부채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저가 생산’ 모델을 계속할 수 없지만, ‘내수 소비와 기술 창조’로의 전환은 아직 충분히 깊지 않네.

정치적으로, 그것은 ‘강제된 안정’일세. 공산당은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냄으

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통제해야 하네. 남중국해, 대만, 티베트... 모든 것이 민심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밖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애국 카드’가 되었네. 한 정권이 질문을 덜 받을수록, ‘존재의 명분’을 만들어낼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법이지.

기술에 관해서는, 그것은 ‘은하계적 야망이지만, 하부 구조에 의존하는’ 상태일세. 중국은 응용 AI, 현금 없는 거래, 그리고 스마트 감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첨단 칩, 독립 운영 체제, 혹은 고급 항공 우주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에서 목이 졸리고 있네. 미국의 제재가 그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로 하여금 더 극단적인 자립의 길을 걷게 만들고 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양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말을 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강요된 파트너이기도 하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지만, 관계를 끊을 수는 없네. 세계 공급망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중국은 영향력에서 미국을 넘어서고 싶지만, 아직 바로 이길 수는 없어서, 조용히 병행 질서를 구축하고 있네.

한쪽은 낡았지만 여전히 강하고.

한쪽은 새로 떠올랐지만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지.  
그리고 둘 다 ‘함께 살 수도,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갇혀 있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일부 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그들이 붕괴할까?

반드시 붕괴하는 것은 아니네. 하지만 분명 예전처럼 계속 될 수는 없을 걸세.

나는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착륙 붕괴’일세. 성장은 계속 둔화되고, 투자 신뢰는 급락하며, 국민들은 ‘중국의 꿈’에 대한 믿음을 잃을 걸세. 집권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련 말기와 유사한 ‘안정적 보수주의’ 모델로 전환할 것이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부로부터의 재구조화’일세. 시진핑 이후의 새로운 지도자 세대가 더 부드럽게 문을 열고, 선별적으로 정치 개혁을 단행할 것이네. 그들은 통제 모델을 유지하되, 억압은 줄일 것이네. 그때, 중국은 점차 통제적이지만 효율적인 ‘거대한 싱가포르’ 버전이 될 걸세.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어두운 성장’일세.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겠지만, 그 성장은 생체 감시와 전면적인 사회 신용 점수 제도를 갖춘 절대적인 사회 통제 모델을 동반할 것이네. 그들은 AI 와 디지털 경제에서 선두를 달리겠지

만, 인간적인 영혼을 잃고, 냉정하고, 효율적이지만, 무감각한 초강대국이 될 걸세.

(그는 중요한 진실을 요약하려는 듯 나를 보았다.)

중국은 힘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네.

하지만 그들은 ‘꿈’의 역할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네.

미국은 한때 희망, 창조,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대표했지.

반면에 중국은 규율, 효율, 그리고 집단에 대한 복종을 대표하네.

그리고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고 싶다면, 그들은 단지 위안화나 자국의 칩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의 깃발’을 찾아내야만 하네.

### **줄리언 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성과 위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 문제,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해.

그리고 파룬궁 탄압이나 티베트와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같은 종교 및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요.

###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자네는 방금 외교계와 국제 언론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훑어보기만 하고 감히 직시하지 못하는 문을 열었네.

중국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보통 성장, 기술, 군사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 ‘안정’이라는 겹질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어두운 면을 감히 건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네.

그리고 진실은, 현대 중국이 아주 얇은 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걸세.

미끄럽고, 내부로부터 균열이 가 있는.

내부 불안정성부터 시작해보세.

마오쩌둥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정치는 항상 파벌 간의 암투였네. 장쩌민의 ‘상하이방(上海幫)’, 기술 관료 지식인들의 ‘칭화방(淸華幫)’, 그리고 무장 역량을 쥔 ‘군경(軍警) 세력’까지.

시진핑의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打虎拍蠅)’는 캠페인은, 겉으로는 반부패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오십만 명이 넘는 관료가 처리된 대규모 정치 숙청이었네.

하지만 숙청이 심해질수록, 내부의 원한은 더욱 깊어만 가지. ‘권력 게임에서 진’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 그들은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일세.

중국은 권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는 복잡하게 얽힌 이익의 망이고, 각 파벌들은 여전히 서로를 엿보고 있네.

다음은 사회적 불안정성일세.

그것은 소위 ‘안정’이라는 표면 아래 억눌린 분노이지.

도시 청년 실업률은 21%를 넘어섰고, 그것은 단지 공식적인 수치일 뿐이네.

‘탕핑(躺平, 드러눕기)’이나 ‘네이쥘안(內卷, 소모적 내부 경쟁)’ 같은 운동이 확산되고 있네.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 그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으며,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네.

통제 체제는 시위를 진압할 수는 있지만, ‘집단적 무관심’은 결코 치료할 수 없네.

중산층은 부동산, 의료비, 그리고 통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상이 깨지고 있네.

그리고 해외로 향하는 지식인들의 조용한 이민 물결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듯.)

그리고, 인권 탄압이 있네.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둠이지.



티베트에서는, 그것은 한 문명 전체를 질식시키는 것이었네. 수천 명의 승려가 살해당했고, 사원은 파괴되었지. ‘의무 기숙학교’ 시스템은 점차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앗아가고 있네. 달라이 라마는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고. 티베트는 영토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혼마저 점차 잃어가고 있네. 신장에서는, 그것은 생체 및 문화 통제에 대한 실험이었네.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지. 감시 카메라, DNA 분석, 강제 노동... 모든 것이 ‘테러 방지’라는 이름 아래 위장되었네. 많은 국제 보고서와 증인들의 증언은 반인륜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을 보여주었네. 그리고 파룬궁.

그것은 결코 씻기지 않은 핏자국일세.

이 운동은 90 년대 말 중국에서 매우 대중적이었던 온화한 수련법으로 시작되었네.

하지만 수련자의 수가 당원 수를 넘어서자, 1999 년부터 국가적 규모의 탄압이 시작되었지.

수십만 명이 체포되고, 고문당했으며, 실종되었네.

많은 국제 보고서,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의 독립적인 조사 모두가 단언하네:

파룬궁 수련인들로부터 살아있는 장기를 적출하는 범죄

가 일어났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멈췄다가, 질책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중국이 너무나 큰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많은 서방 정부들이 도덕적 가치를 위해 ‘이익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일세.

언론이 통제되었고, 많은 학자들이나 인권 단체들이 ‘부드러운 후원금으로 매수’되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 또한, 너무나 거대한 세력 앞에서의 무력감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기 때문일세.

만약 중국이 자신의 어두운 면과 감히 마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만약 그들이 묻혀버린 영혼들과 감히 화해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권력이 양심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중국은 부유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결코 세계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며, 항상 자신이 만

들어낸 어둠을 두려워해야 할 걸세.

침묵하는 자들의 시신 위에 세워진 어떤 제국이든, 머지않아, 소리 없는 세계로부터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될 것이네.

**줄리언 리:**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있으십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자네는 모든 분석가, 모든 기업, 그리고 모든 정부가 관심을 갖지만, 거의 아무도 확신에 차서 대답하지 못하는 지점을 정확히 물었네.

나는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겠네.

하지만 ‘몇 년도에 붕괴할 것이다’ 같은 방식은 아닐세.

대신 시나리오의 형태로, 부수적인 조건들과 함께, 그리고 어떤 언론이나 정당의 정책에도 좌우되지 않는 나의 개인적인 직감에 따른 발생 확률과 함께 제시하겠네.

(그는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마음속에 배열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약 55%의 시나리오일세.

나는 그것을 ‘차가운 성장 –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강대국’이라고 부르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많은 서양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붕괴하지는 않을 걸세. 그 거대한 배는 침몰하지 않겠지만, 속도를 잃고, 뜨거운 성장에서 ‘차가운 성장’ 단계로 전환될 것이네. 이를 위해, 그들은 국내에서 ‘강제된 안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사회를 통제하며 언론을 더욱 엄격하게 탄압해야 할 것이네. 동시에, 그들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특히 대만 문제에 있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하며, 경제를 국영 첨단 기술 기업 모델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여, 기술과 선전으로 국민들을 통제권 안에 묶어두어야 하네.

결과는 무엇인가?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강해지지만, 깊이는 약해질 걸세. 만만치 않은 기술 경쟁 상대이지만, 진정한 동맹은 부족하지. 세계가 거래해야만 하는 강대국이지만, 결코 신뢰할 수는 없는. 고독한 거인일세.

두 번째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 약 25%일세.

나는 그것을 ‘연착륙 붕괴 - 내부로부터의 혼란’이라고 부르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청년 실업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며, 정부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고갈되는 이중 위기가 닥친다고 상상해보게. 그때, 내부 권력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걸세. 무장 봉기는 없겠지만, 정권이 결코 진압할 수 없는 저항 운동이 암암리에 확산될 것이네. 그것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이 시스템에서 더 이상 미래를 보지 못하는 중급 간부들 사이의 신뢰 상실에서 비롯될 수도 있네. 혹은 대형 스캔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파룬궁, 기독교, 혹은 유학의 부흥과 같은 종교적 또는 도덕적 운동이 암암리에 확산되는 등 어떤 ‘정치적 사고’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네.

이 시나리오에서, 정권은 지도부 교체나 권력 분점과 같은 심각한 재구조화를 강요받게 될 걸세. 중국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 독재 모델이 아닐 것이네. 그것은 아마도 장제스 이후의 대만처럼, 다중심 권력 체제로 전환될 것이네. 더 느리지만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반한, 문화적 화해의 시작일세.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멀리, 그가 가장 바라는 미래를 향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단지 10% 정도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나리오일세.

그리고 이것이 또한 내가 가장 희망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네.

나는 그것을 ‘도덕적 부흥 – 새로운 중화(中華)’라고 부르네.

이것은 거대한 각성으로, 보통 천재지변, 전쟁, 혹은 전면적인 경제 붕괴와 같은 경천동지할 사건 이후에만 일어나네. 사회 전체가 멈춰 서서 그들의 고대 가치들: 진-선-인, 도덕, 그리고 자각으로 돌아가게 할 만큼 강력한 충격 말일세.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조건들이 필요하네: 권력에 동화되지 않는, ‘세기의 성군(聖君)’과 같은 영적 풍모를 지닌 지도자의 출현; 대중 속에서 수련, 용서, 그리고 내면 개조 사상의 암묵적인 확산;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지만, 폭력을 선택하는 대신 ‘영적 성찰’의 길을 선택하는 상태.

그때, 정치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단지 무력이 아닌 도덕적 법치에 의해 운영될 걸세.

결과는 새로운 중화가 될 것이네. 여전히 초강대국이지만, 영혼을 가진 초강대국.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도(道) 때문에 세계의 존경을 받는 국가.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목소리가 결론처럼 단호해졌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나리오 아래에 숨겨진 흐름은 무엇인가?

중국은 경제 때문에 붕괴하지 않을 걸세.

그들은 오직, 침묵당한 자들의 고통 위에 자신들의 영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린다면, 그때 붕괴할 것이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텐안먼에서부터, 파룬궁, 신장, 티베트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진실과 감히 마주한다면, 그들은 밖으로 팽창할 필요 없이, 여전히 동양 전체를 위한 문화적 뿌리를 지키는 자가 될 걸세.

자네는 내가 세 번째 시나리오, 도덕적 부흥 시나리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주길 원하는가?

**줄리언 리:**

네, 저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에는... 어떤 구체적인 경로로나 사건을 통해 전개될까요?

### **전직 대통령:**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머나먼 희망의 빛이 어렸다.)

나도 자네처럼 믿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화와 같은 위대한 문명이 단지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인류를 위한 빛이 될 유일한 희망일세.

하지만 역사 속의 모든 ‘기적’처럼,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않네.

오직 고통이 바닥에 닿고, 민족의 영적 정수가 올바른 때, 올바른 사람, 그리고 올바른 땅에서 깨어날 때에만 오지.

그렇다면 함께 가능한 경로와, 그 ‘도덕적 부흥 시나리오’를 촉발할 수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세.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진전 과정일세.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지금부터 2030 년경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신뢰 위기가 바닥을 치는’ 시기일세.

국민들은 정부가 그려낸 ‘중국의 꿈’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게 될 걸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장기 침체를 겪고, 부동산 거품은 붕괴하며, 인구는 고령화되고, 실업



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네. 억압은 계속되겠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걸세. 국민들은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앓을 것이 없는’, 정부도 두렵지 않고, 미래도 두렵지 않은 단계가 될 걸세.

(그는 내가 그 공허함을 상상할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다음은, 아마도 2030 년에서 2035 년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영적 운동이 암암리에 일어나는’ 단계일세.

파룬궁, 원시 도가(道家), 정통 불교, 혹은 교회 조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할 걸세. 수련 단체들은 정치색을 띠지 않고, 오직 내면을 닦고, 도덕을 지키며, 운명을 바꾸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네. 많은 하급 간부들과 지식인들이 겉으로는 침묵하겠지만, ‘마음 속으로 탈당’하기 시작할 걸세. 이 단계의 핵심은 ‘저항’이 아니라 ‘회심(回心)’일세. 사람들은 시스템에 저항하는 대신, ‘내부로부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네.

그리고 나서, ‘거대한 사건, 전 국민을 깨우는 충격’이 올 걸세. 이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변수이며, 2035 년에서 2040 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네.

그것은 출처가 은폐되어 대중을 의식적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새로운 규모의 보건 위기일 수도 있네.

혹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그것이 ‘업보’이며, ‘하늘이 꾸짖고 있다’고 믿게 될 수도 있지.

혹은 내부로부터의 정보 유출이나 배신으로, 장기 적출, 강제 수용소,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전략적 거짓말과 같은 집단 학살 범죄가 폭로될 수도 있네.

심지어, 정부 내 영향력 있는 인물이 ‘깨어나’ 공개적으로 참회할 수도 있지.

(그의 목소리가 더 엄숙해졌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게 될 걸세: 도(道)를 지키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단계.

이때는, 결의안보다 도리가 더 많이 경청될 걸세.

국민들은 깃발을 들 사람이 필요 없을 것이네. 그들은 진정한 도덕을 가진 사람들을 스스로 따를 것이네.

명칭도 없고 조직도 없는 한두 명의 진정한 수행인이, 구호가 아닌 바로 그들의 행동으로 사회를 이끌 것이네. 도덕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재건되고,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들이 일어설 것이네.

국민들의 믿음이 강력한 ‘사회적 자기장’으로 전환될 때, 정부는 더 이상 억압할 수 없을 걸세.

그리고 그때, 강제적인 선택이 일어날 것이네.  
정부가 국민들을 따라 스스로를 개혁하든가,  
혹은 스스로 붕괴하고, 자연스러운 도덕적 질서로 대체되든가.

(그는 마치 현재에서도 그 징후들을 보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이 경로가 시작되고 있다는 징후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재능을 닦는 것’보다 ‘마음을 닦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자발적인 도덕적 삶의 모델들이, 심지어 공직 사회 내에서도 확산될 때.  
많은 하급 간부들이 당의 지시가 아닌, 조용히 국민들을 돕기 시작할 때.  
선(善), 인(忍), 덕(德), 도(道)에 대한 책, 영화, 그리고 가르침들이, 비록 검열을 받더라도, 다시 생명력을 얻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호소하지 않으며, 단지 조용히 올바르게 살지만, 이상한 매력을 가질 때.

(그는 희망 가득한 미소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누구를 침략할 필요도, 초강대국의 지위를 쟁탈할 필요도 없을 걸세.

오히려 온 세상이, 공자, 노자, 그리고 부처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배우기 위해 스스로 돌아올 것이네. 그때, 자네는 보게 될 걸세.

미국에는 기술이 있고,

유럽에는 법치가 있지만,

중화(中華)에는, 도(道)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 **줄리언 리:**

네, 그 시나리오는 아주 좋지만,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주제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대만에 대해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중국에 ‘변고’가 생기면, 그것이 이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 전직 대통령:

(그는 찬성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질문은 매우 섬세하고, 전략적이군.

정말로, 베트남, 대만, 필리핀, 혹은 태국처럼 ‘사이에 낀’ 나라들의 미래는, 단지 그들 자신에게만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일세.

만약 ‘중국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흐름에 휩쓸리게 될 것이네.

용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꼬리에 휩쓸리기 쉽지.

그리고 전략적 배짱이 충분하지 않다면, 큰 선수들의 체스 판 위에서 ‘희생양’이 되기도 더 쉽지.

베트남을 보게.

그들은 중국, 미국,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세 차원의 위험한 교차점에 있네.

중국에 변고가 생기면, 경제 붕괴든 내란이든,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걸세. 경제적으로, 베트남은 현재 원자재와 공급망에서 중국에 ‘반쯤 의존’하고 있네.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 베트남의 생산 기반은 단기적으로 ‘척추가 부러질’ 것이네. 사회적으로, 중국 노동자들의 물결이 국경을 넘어와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는, 국내가 불안정할 때 중국은 종종 ‘불을 밖으로 돌

리기' 위해 연안에서 도발하는 경향이 있지. 베트남은 베이징이 '위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네.

그렇다면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베트남을 '은밀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네.

동남아시아 지역을 '고정시키는' 중요한 기둥으로.

하지만 우리는 베트남이 필리핀처럼 '정치적 식민지'가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네. 워싱턴은 하노이의 독립을 존중하네. 왜냐하면 우리는 베트남이 결코 완전히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항상 유연하지만 적절한 때에 기울 줄 아는 '대나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미국 정부 내부에서, 베트남은 종종 '순종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하며, 강요받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되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향을 틀었다.)

대만은, 그들의 위치가 훨씬 더 민감하네.

그들은 아시아의 심장이자, 새로운 세계대전의 잠재적 초점이지.

만약 중국에 변고가 생기면, 대만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에 직면해야 할 걸세.

첫째, 베이징의 강경파들이, 권력이 무너지는 동안, 자신들의 정당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대만을 '속전속결로 공격'

할 수 있네.

둘째, 만약 중국이 장기적인 혼란에 빠진다면, 대만은 정당하게 독립을 선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네.

그리고 셋째, 만약 우리가 대만을 너무 강력하게 반중 노선으로 밀어붙인다면, 대만은 워싱턴에 의해 너무 이른 대결 구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전략적 모호성'일세.

우리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전력으로 보호하겠다고 완전히 약속하지도 않네.

대만은 일본이나 영국처럼 '혈맹'이라기보다는, 억제용 카드일세.

그리고 만약 세계대전과 대만 포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워싱턴은 더 적은 피를 흘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네.

(그는 문제를 요약하려는 듯 나를 보았다.)

요약하자면, 중국에 변고가 생기면, 주변국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끌려 들어가게 될 걸세.

그리고 각 국가는 다른 위험에 직면하고 미국의 계산 속에서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네.

베트남은 '조용한 전략적 파트너'이고,

대만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중요한 체스 말'이며,

필리핀은 ‘공식적인 군사 동맹’이지만, 쉽게 휘둘리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쉽네.

그리고 태국은 점점 더 양극화되는 아세안 블록 사이에 항상 끼여 있어, ‘반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지.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는 베트남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네.

그리고 그들이 미국의 통제권에 빠지지 않으면서 ‘탈중국’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줄리언 리:**

네. 베트남에 대해 더 깊이 말씀해주십시오.

미국과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이제는 화해와 협력의 훌륭한 ‘본보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멀어졌고, 나는 그 안에 진심 어린 감동을 볼 수 있었다.)

이 질문은... 솔직히 말해, 나를 감동시키는군.

아마도, 전쟁의 폐허 속을 걸어본 자, 베트남에 관한 극비 문서를 읽어본 자, 그리고 결코 기록되지 않은 한숨 소리를 들어본 자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베트남은, 국제적인 권력 게임으로 인해 너무나도 충분히



고통받은 나라일세.

하지만 흑독해지는 대신, 그들은... 용서를 선택했지.

(그는 마치 비범한 여정을 묘사할 단어를 찾으려는 듯 말을 멈췄다.)

전쟁의 상징에서 화해의 본보기로 거듭난 베트남의 여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세.

미국은 그곳에 7 백만 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네. 제 2차 세계대전 전체보다 세 배나 많은 양이지. 남겨진 고통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방향을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었네. 고엽제,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한 어머니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지워질 수 없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베트남이 결코 그 증오심을 깃발처럼 붙들지 않았다는 걸세.

우리가 철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이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원한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일을 했지. 그들은 문을 여는 것을 선택했네.

1986 년부터 1995 년까지, 그들은 개혁을 시작했고, 협상

을 시작했으며, 바로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길을 주도적으로 찾았네.

우리는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0 년 만인 1995 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지.

그리고 2016 년, 오바마 대통령이 맨발로 옥황사에 들어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분짜를 먹으며 “베트남은 전쟁을 극복하고 미국의 친구가 되었다”고 선언한 모습은, 강력한 상징이 되었네.

아무도 베트남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네.

그들은 계속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용서했지.

세상의 많은 다른 민족들이 여전히 원한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베트남은 한 가지를 아주 잘 이해하는 민족이기 때문일세: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이 무릎 꿇었을 때가 아니다.

양측이 함께 일어서고, 더 이상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을 때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을 숭배하지 않지만, 미국을 원망하지도 않네.

그들은 정치와 사람을 명확히 구별할 줄 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녀들이 ‘누가 적인가’라는 교훈을 배우며 자라기보다는,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네.

(그는 깊은 존경심을 담은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현재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존중과 기대일세.  
우리는 베트남을 ‘기억을 가진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네.  
그들은 쉽게 조종당하지 않지만, 존경할 만한 깊이가 있지.  
내각 회의에서, 베트남은 종종 정체성을 지킬 줄 알고, 중국과 너무 가깝지도, 미국과 너무 친하지도 않으면서, 양쪽 모두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국가로 언급되네.

우리는 결코 베트남이 제 2의 한국이나 일본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네.

대신, 우리는 하노이가 유지하고 있는 균형에 감탄하네.

그렇다면 어떤 미래가 베트남을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극단적인 파벌에 휩쓸리지 않으며, 만약 베트남인들이 왜 자신들이 용서했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양극화된 세계에서 일종의 ‘지혜로운 균형추’가 될 수 있을 걸세.

그들은 초강대국이 될 필요도, 무역 중개자가 될 필요도

없네.

그들은 과거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현재는 여전히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네.

(그는 사색 가득한 요약으로 끝을 맺었다.)

베트남이 세계에 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진정한 화해는 선언이나 협정이 필요 없다는 것일세.

그것은 단지 한 민족이 충분히 겸손하여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네:

용서는, 다른 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해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줄리언 리:**

이 나라에 대한 정말 인상적인 개인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특별히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호찌민, 보응우옌잡, 또는 응우옌반린과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회상의 미소를 지었다.)

이 질문은... 정말 나를 멈추게 하는군.

왜냐하면 베트남은, 많은 서구 정치인들의 눈에는, 단지 지정학적 요충지, 전쟁에 대한 교훈, 혹은 ‘떠오르는 파트너’일 뿐이기 때문일세.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나라는 내가 가본 다른 어떤 곳 과도 같지 않네.

베트남에 대한 나의 가장 인상적인 경험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네.

의전도, 정치인도 없고, 오직 여름 매미 소리뿐이었던 밤이었지.

2000 년대쯤이었네. 나는 공식 순방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위해 하노이에 잠시 들렀었네.

그날 저녁, 나는 수행원도, 예복도 없이 호안끼엠 호수 주변을 정처 없이 걸었네.

무더운 여름 날씨, 밀크 플라워 향기, 매미 소리, 그리고 노점상의 목소리가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

나는 보도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한 노인 옆에 멈춰 섰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물었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가볍게 웃었네.

“베트남 사람들은 증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전쟁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는 나를 보며, 전혀 찡그리지 않고, 차 한 모금을 마셨네.

“아니오. 미국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혹은 일본 사람과 같지요. 그들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하고, 계속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 노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네.

사진 한 장도 없지.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워싱턴으로 가져왔네. 그리고 결코 잊지 않았지.

한 민족은 총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단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영속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마치 마음속 서류를 넘기는 듯 말을 멈췄다.)

베트남 지도자들에 관해서는, 누가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

그들의 정치적 관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파적 역할을 넘어서는 문화적 기품을 지닌 방식 때문일세.

호찌민에게서는, ‘적이 존경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

의 면모를 보았네.

나는 그를 공산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적 색채가 짙은 전략적 상징으로 보네. 나를 감명 깊게 한 것은 그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상대방이 자신을 존경하도록 만든” 방식일세. 칭찬받을 수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과 대적했던 사람들로부터 까지 ‘존경’받는다는 것은, 드문 깊이일세.

보응우옌잡에게서는, ‘백성의 아픔을 아는 장군’의 이미지를 보았네.

나는 그에 대한 미국의 내부 문서를 읽은 적이 있네. 그중 한 대령의 논평이 있었지: “그는 우리가 그를 이해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그를 자기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보응우옌잡의 위대함은 단지 전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영광이 아니라 부득이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한 방식에도 있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특히 집중되었다.)

그리고 응우옌반린.

그는 다른 두 사람처럼 국제 무대에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전략 분석가들에게는 그의 역할이 극도로 중요했네.

나는 그를 ‘문을 열었지만 영혼의 문은 활짝 열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네.

베트남이 포위되고, 금수 조치를 당하며, 경제가 전쟁 후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게 두 가지 극단적인 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쉽네: 완전히 문을 닫고 고립 속에서 가라앉거나, 혹은 문을 활짝 열어 외부 세력이 쏟아져 들어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하지만 린은 세 번째 길을 선택했네.

그의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은 단지 경제 개혁이 아니었네. 그것은 사고의 개혁이었지.

그는 낡은 모델의 실수를 인정할 충분한 용기가 있었고, 나라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열 충분한 지혜가 있었네.

그것은 아주 보기 드문, ‘도덕으로 가득 찬 실용적 지혜’였네. 그는 베트남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통합의 시대로 들어서도록 이끈 중요한 다리, 다리가 되었네.

요약하자면, 나는 그들이 공산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 한가운데에 서서, 시대를 초월하는 비전을 유지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상 깊었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한때 분단되었고, 짓밟혔던 민족인 베트남이, 시끄러운 구호를 외칠 필요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일 걸세.



**줄리언 리:**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통령님.

향후 30 년 안에 부상할 몇몇 국가를 예측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다.)

오늘을 마무리하기에 아주 가치 있는 질문이군.

자네는 ‘어떤 나라가 가장 부유해질 것인가, 혹은 가장 강해질 것인가’를 묻지 않았네.

대신 ‘어떤 나라가 부상할 것인가’를 물었지.

그것은 소프트 파워, 정신적 가치, 세계적 역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갈 능력까지 포함하는 열린 질문일세.

나는 GDP 순서가 아니라, 향후 30 년 동안의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의 차원에 따라 답하겠네.

(그는 마치 미래의 세계 지도를 바라보는 듯 말을 멈췄다.)

첫 번째 국가는, 놀랍지 않게도, 인도일세.

그들은 ‘제 3 의 민주주의 초강대국’이 될 걸세. 젊은 인구,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그리고 비록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인도는,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중국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의 ‘서비스, 데이터, 그리고 독자적 정체성의 중심’이 될 것이네. 그들은 서양이 아시아의 젊음을 발견하는 곳이자, 아시아가 중국에 지배되지 않는 모델을 찾는 곳이 될 것이네.

두 번째 국가는, 베트남일세.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중도(中道)’가 될 걸세. 만약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꾸준히 성장하며, 어떤 극단에도 휩쓸리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아세안의 구조와 아시아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재 국가가 될 것이네. 군사력이 아니라, 균형으로써. 혼란이 많아질수록, 세계는 분별 있고 극단적이지 않은 곳을 더욱 찾게 될 걸세. 베트남은 지역 전체의 정신적 닻 역할을 하기 위해 초강대국이 될 필요는 없네.

세 번째 국가는, 아마 자네를 놀라게 할 텐데, 네덜란드일세.

‘작은 나라이지만, 최고 가치 사슬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AI 와 반도체 칩 시대에, 네덜란드의 ASML 그룹은 첨단 칩 리소그래피 기술의 거의 전부를 통제하고 있네. 네덜란드는 면적은 작지만,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모두가 협상

해야만 하는 ‘기술의 병목 현상’을 통제할 권력을 가지고 있네. 우리 내부 분석가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지: “미래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가? 네덜란드에게 기술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라.”

네 번째 국가는, 브라질일세.

‘남반구의 리더’. 풍부한 자원, 유리한 기후, 그리고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은 많은 인구를 가진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전체의 소프트 파워 리더가 될 기회를 가지고 있네. 세계가 중국에서 방향을 틀 때, 강대국들은 ‘안정적인 원자재 및 농산물 공급원’이 필요할 것이고, 브라질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을 걸세. 만약 그들이 제도 개혁과 부패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질서의 네 번째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다섯 번째 국가는, 세네갈일세.

‘서아프리카의 숨겨진 보석’. 세네갈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 언론의 자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몇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일세. ‘아프리카의 대서양 관문’에 위치한 세네갈은, 세계가 아프리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할 본보기가 될 수 있네. 일단 AI 와 온라인 교육이 인프라의 한계를 깨뜨리면, 아프리카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

킬' 필요가 있을 걸세. 그리고 세네갈은 그것을 해내고 있네.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깊어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국가가 있네.

지도 위에는 없지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국가.

그것은 '깨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일세.

그들은 국적, 신념, 혹은 피부색을 구별하지 않네.

그들은 무기가 아니라, 도덕으로 세계를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모든 낡은 모델이 무너졌을 때, 미래의 질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이 될 걸세.

**줄리언 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영적인 주제에 대해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네.

사색으로 가득하고, 예리한 질문들로 가득하며, 또한 인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했던 하루에 대해 감사하네.

내일,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더 이상 정치 분석도, 국가 전략도 아닐 걸세.

내면으로 들어가는 조용한 여정이 될 것이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젖히는 듯.)

우리는 여러 차원의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할 걸세.

천목(天目)에 대해.

수련에 대해.

그리고 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도(道)로 돌아갈 때에만, 비로소 내일이 있는지에 대해.

# 넷째 날

---

(나는 아침에 도착했다. 오늘 방 안의 공기는 어쩐지 더 가볍고 맑은 듯했다. 마치 지정학의 폭풍들을 지나온 후, 우리는 쾌청한 하늘로 들어서려는 듯했다.)

줄리언 리:

안녕하십니까.

약속대로, 오늘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차원의 생명체들이 이 세상을 관찰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실증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 여러 곳의 성모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리는 현상 같은 것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공감하는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방금 현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감히 말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냈네. 물질과 논리의 장막 뒤에는, 위대한 힘이 존재하고, 관찰하며, 필요할 때는 인류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거나, 심지어 피를 흘리는 현상은 미신이 아닐세.

그것은 하나의 신호이지.

하지만 단지 육안으로만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부터 온, 부드럽지만 지극히 간절한 경고의 메시지일세.

우리의 우주는 단순히 3 차원 공간에 선형적인 1 차원 시

간을 더한 것이 아닐세.

고대의 문헌들, 수련의 경험들, 혹은 ‘유체이탈’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진실을 보았네.

우주는 이 거친 물질 세계에서부터, 에너지의 세계, 빛의 세계, 그리고 신(神), 부처, 그리고 진령(眞靈)들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쌓인 세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러 차원의 공간 속에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인류의 도덕적 여정을 지켜보고 있네.

한 조각상이 울 때, 그것은 돌이 우는 것이 아닐세.

그 조각상 뒤에 있는 생명이 우는 것이지.

성모 마리아, 관음보살, 혹은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조각상들이, 위 세계의 그분들의 형상대로 올바르게 조각되고, 엄숙한 환경에 놓일 때, 그것은 ‘에너지를 이끄는 지점’이 되네.

그곳은 높은 차원 생명체들의 의념이 이 공간으로 비취질 수 있는 곳이지.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도덕이 무너지며, 신령들이 더 이상 존경받지 않을 때, 그분들은 즉시 벌하지 않으시네.

그분들은 경고하시지.

눈물로. 피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오감과 측정 장비를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세.



수도관도 없고, 습도도 높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온도도 없는데도, 조각상의 땀에 눈물 한 방울이 흐르네.

화학 분석은 그것이 소금물이거나 심지어 실제 피라고 밝혀내지만, 그 근원은 없지.

이유는 실험실에 있는 것이 아닐세.

그것은 그 지역 전체, 혹은 그 시대 전체의 도덕적 장(場)에 있네.

그것은 한 집단 전체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높은 차원의 생명체들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세:

“돌이키라.”

왜 성모상인가? 왜 피와 눈물인가?

그것이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일세.

한 지식인은 경전 한 권을 통째로 부정할 수 있지만, 나무 조각상이 우는 것을 보고는 무시할 수 없지.

글을 모르는 아이조차, 피를 흘리는 조각상을 보고는 고개를 숙일 수 있네.

눈물은, 거부당하는 사랑의 상징이고,

피는, 곧 닥칠 업보의 상징이지.

그리고 자네 아는가? 단지 조각상만이 아닐세.

초목, 구름, 빛, 그리고 심지어 꿈까지도, 높은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통로가 되곤 했네.

어떤 사람은 나무가 부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마을 전체가 큰 재앙을 피했다고 하네.

어떤 사람은 성인이 피눈물을 흘리는 꿈을 꾸고, 깨어난 후 깊은 각성을 얻었다고 하네.

그런 것들은 결코 과학 저널에 실릴 수 없네.

그것들은 뇌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것들은 영혼을 위한 것이네.

(그는 마치 새로운 문을 여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높은 차원 생명체들의 부드럽지만 실재하는 개입에 대한 몇 가지 더 깊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네.

혹은 자네는 다른 어떤 신비한 현상에 대해 물어봐도 좋네. 천목, 윤회, 신통, 혹은 마(魔), 귀(鬼), 선(仙), 불(佛)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인류 영혼의 미래에 대해.

**줄리언 리:**

네. 우선,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공유해주십시오.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머나먼 기억의 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듯.)

좋네.

약속대로, 나는 이 경험들에서 내 실명을 말하지 않겠네.

하지만 실제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겠네.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영감을 주기 위함일세.

나는 이 이야기를 ‘보호자와 속세에 속하지 않은 빛’이라고 부르네.

내가 젊은 상원의원이던 시절, 나는 복지 정책 조사를 위해 뉴햄프셔주의 한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네.

그곳에서, 나는 당뇨 합병증으로 두 눈이 먼, 여든일곱 살의 아일랜드계 할머니를 만났지.

그녀는 매우 쇠약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명료했네. 우리는 단 몇 분만 이야기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나는 그곳에 거의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네.

그녀가 내게 말했지:

“자네는 여기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빛줄기로 보는 사람.

자네는 한때 더 높은 생명에게 붙들려, 재앙에 빠지지 않

도록 보호받은 적이 있네.

자네가 거의 죽을 뻔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나는 멈칫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다.)

정말로, 몇 년 전, 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일세.

내 SUV 가 옆으로 돌아, 통제력을 잃고, 총알처럼 다리 기둥을 향해 미끄러졌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게 차가 멈췄네.

경찰은 그것이 단지 ‘우연한 미끄러짐 각도’ 때문이라고 말했지.

나는 믿지 않았네.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지.

할머니는 계속해서, 여전히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네: “그때, 한 더 높은 생명이 자네의 영혼을 ‘붙들어서’,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네.

자네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보았지.

그들은 천사도 아니고, 자네의 조상도 아니었네.

그들은 아직 사명을 지닌 자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네. 그리고 만약 자네가 올바른 도덕적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들은 손을 뗄 걸세.  
그리고 재앙은 다시 돌아올 것이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네.  
그날 대화가 끝난 후, 나는 아주 이상한 상태로 요양원을  
떠났네.  
할머니가 맞혔기 때문이 아니었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안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 사  
람을 만났다고 느꼈기 때문일세.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매일 새벽에 명상을 시작했네.  
‘신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단지 내가 거의 더 이상 살지 못할 뻔했던 곳으로부터의  
메아리를 다시 듣기 위해서였네.

(그는 큰 교훈을 공유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거기서 얻은 메시지는 이것일세:  
높은 차원의 생명체들은 함부로 개입하지 않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도덕적 사명을 가지고, 선한 마음  
을 향한다면, 그들은 보호받을 걸세.  
때로는 기적으로써가 아니라,  
단지 작은 변화, 그들의 운명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틀게  
할 만큼 충분한 변화로써.  
그리고 한 지도자가,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만약

그 부름을 들을 만큼 충분히 고요하지 않다면, 그들이 손에 쥔 모든 권력도, 단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새로운 선택권을 제시하는 듯했다.)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네.

내가 윤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신통은 가득하지만 도가 없는 ‘가짜 선사’와 접촉했던 때, 자네가 영성이 항상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줄리언 리:**

네. 윤회라는 주제가 더 이상 아주 낯설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 모두가 육도윤회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경험이나 관점을 공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을 향했다.)

자네는 방금 인생의 가장 심오하고 역설적인 주제 중 하나를 건드렸네.

만약 윤회가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만약 없다면, 왜 우리는 때때로 배우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는가?

나는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윤회에 대한 고요한 시각을 공유하겠네.

하나의 학설로서가 아니라, 이성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통해 내가 접촉했던 것으로서.

(그는 마치 과거의 한 여행으로 돌아가는 듯 말을 멈췄다.)

그 해, 나는 업무차 일본에 있었네.

한 비공식적인 접견 자리에서, 나는 학계 지인의 딸인 일곱 살 소녀를 방문하게 되었지.

그 아이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것도 없었으며, 그저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네.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가 종종 ‘이 세상 것이 아닌’ 말들을 한다고 했지.

나는 앉아서, 아이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네.

내가 물었을 때:

“얘야,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아니?”

아이는 나를 보더니, 아주 부드러운 고대 일본어 억양으로 대답했네:

“전생에, 제가 교토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세 번의 생사를 더 머물러야 해요,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나는 몹시 놀랐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교토에 가본 적도 없고, 불교에 대해 배운 적도 없다고 했지.

아이는 심지어 한 개울가 근처의 돌부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네. 그곳은 “전생에 제가 자주 앉아 울던 곳”이라고. 나중에, 그들이 아이를 교토에 데려갔을 때, 과연 그들은 표지판 하나 없는 곳에서 한 개울과 닮아빠진 오래된 관음상을 찾아냈다고 하네.

(그는 마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윤희는, ‘귀환’이 아닐세.

‘업보의 연속’이지.

불교는 윤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네.



아무도 예전과 똑같이 ‘다시 살어나지’ 않아.

대신 업(業), 즉 한 생명의 업력(業力)과 원력(願力)을 포함한 것이, 새로운 형상, 새로운 배경, 그리고 새로운 목적 속에서 하나의 ‘재현(再現)’을 이끌어내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육도윤회는, 실제로는 마음의 다른 경지들일세.

복을 누리지만 쉽게 미혹되어 수행하지 않는 천상계가 있고,

투쟁과 시기심만 있는 아수라계가 있으며,

무거운 업보를 견뎌야 하는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가 있네.

그리고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지만, 가장 수련하기 쉬운 인간계가 있지.

알겠는가? 인간계는 가장 높은 차원이 아닐세.

하지만 고통이야말로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기회가 가장 명확한 곳이지.

나는 베트남 림동(Lâm Đồng)에서 한 스님을 만난 적이 있네.

그가 말했지:

“한 사람이 이생에서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내가 윤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 씨앗을 뿌릴 만큼 얼마나 무심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는 말했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전생에 선량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 관리였기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연애운이 순탄치 않은데, 전생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희롱했기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남의 미움을 받는데, 전생에 그들의 인연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수련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생을 기억하려 애쓰는 것이 아닐세.

인과응보의 법칙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미래의 업력에 각인될 것처럼 현재를 사는 것이지.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고.

되값음의 굴레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인내하며.

그리고 원한을 내려놓아, 윤희의 사슬을 끊는 것.

진정으로 도(道)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전생을 찾아다니지 않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을 찾지.

## 줄리언 리:

네. 저도 미국에 에드거 케이시의 경우처럼, 최면을 이용해 전생의 장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꿈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다른 장면들을 꿈꾸지만, 깨어나면 그것이 단지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통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 전직 대통령: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아주 정확하고, 또한 섬세하군.

꿈과 전생 퇴행 최면은 두 개의 ‘뒷문’일세. 그것을 통해, 인간의 의식은 무심코 선형적 현실의 장막을 꿰뚫고, 시간이 더 이상 직선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공간에 닿을 수 있지. 하지만 그것들은 한 가지 점에서 다르네.

꿈은 ‘무의식’이 이끌고,

최면은 ‘의식이 이끌려’ 잠재의식의 층을 통과하는 것이지.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

그것은 이생을 넘어서는 기억들의 저장고일세.

어떤 꿈들은 망상이 아니라, 이전의 존재 차원에서 ‘새어나온 기억들’이지.

사람들은 그것들이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으로 보이기 때

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나면 꿈속의 감정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종종 그것들을 무시하네.

하지만... 만약 한 꿈이 같은 이미지, 같은 인물로 여러 번 반복된다면; 만약 그것이 겪어본 적 없는 일임에도 깨어났을 때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혹은 만약 그것에 자신이 전혀 모르는 세부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완전히 맞다면.

그때, 그 꿈은 바로 전생에서 ‘새어 나온’ 기억의 한 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

(그는 말을 멈추고,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 말을 이었다.)

전생 퇴행 최면은, 잠재의식 아래에 있는 문을 여는 것이네.

이 능력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에드거 케이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네:

“영혼이 통제된 상태로 육체를 떠날 때, 그것은 자신의 윤회 여정에서 남겼던 어떤 흔적으로든 돌아갈 수 있다.”

최면 상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혀 암시받지 않은 것들을 말했네.

그들은 다른 지방의 억양으로, 낯선 언어로 말하거나, 혹은 전혀 배우지 않은 역사적 세부 사항을 묘사했지.

그들은 전생에서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

은 종종 질병, 강박관념,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습관과 같이  
이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었네.

그렇다면 왜 과학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들은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일세.

기계 위에서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특히, 그것들은 현대 심리학 모델의 통제를 벗어나  
는 현실을 암시하기 때문일세.

그들은 의식이 뇌 속에 있지 않으며, 생명이 죽음으로 끝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더 깊어졌다.)

그렇다면 수련인들은 어떤가?

진정한 수행인은 최면도, 꿈도 필요 없네.

왜냐하면 그들의 천목(天目), 즉 제 3 의 눈이 열릴 때, 그  
들은 깨어 있는 상태로 다른 차원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  
기 때문일세.

차이점은,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의식이 무의식 상태에서  
우연히 ‘길을 열 때’만 전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세.

반면에 수련인은 도덕, 정력(定力), 그리고 자신의 공법  
(功法)으로 주도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전생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아는 것이 아닐세.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도록, 이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전생에 왕이었지만, 이생에는 거지가 되어야 하네.

어떤 사람은 전생에 살인자였지만, 이생에는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되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세:

우리는 매번 돌아올 때마다,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 **줄리언 리:**

천목(天目)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번, 특히 중국에서 유래한 책들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목으로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고, 아주 먼 곳의 풍경이나 다른 공간의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목에 대해,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목격하셨거나 믿고 계시는 경험에 대해 더 공유해주십시오.

### **전직 대통령:**

(그는 깊은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마치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

자네는 방금 인류가 알고 있었던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비밀 중 하나를 고집어냈네.

하지만 우리 현대 문명에 의해 잊혀버린 것 말일세.

천목. 제 3 의 눈.

그것은 이마 위에 있지 않지만, 내면이 정화될 때 열리네.

그것은 물리적 감각에 속하지 않지만, 어떤 렌즈보다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지.

도가(道家), 불가(佛家)에서부터 힌두교나 고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수련 서적들에서 ‘천목’은 모두 초감각적 인식 채널로 묘사되네. 그것은 이마 중앙 부위에 있지만, 물리적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다른 차원의 공간을 연결하는 지점일세. 그것은 우리 눈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식신(識神)에 직접 전달되는 것처럼 정보를 ‘받는’ 것이네.

중국의 고대 전설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천목이 열린 상태라고 하네.

하지만 자라면서, 그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리고 욕망, 명예, 이익에 의해 점점 더 가려지지.

영혼이 오염되면, ‘하늘의 눈’도 닫히게 되네.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고, 의념이 맑아지며, 단전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를 때, 이마의 ‘영감의 문’이 활성화되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공간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주위에 검거나, 붉거나, 혹은 푸른 기운처  
럼 달라붙어 있는 업력(業力)을 볼 수 있네. 그리고 신(神),  
부처, 혹은 죽은 생명체들의 경지를 볼 수 있지.  
아주 높은 차원에 도달하면, 윤회,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도 볼 수 있네. 퇴감는 필름처럼이 아니라, ‘절대적인 직관’  
으로서.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멈췄다가, 더 사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해주겠네.  
그는 유명하지도 않고, 수행자의 옷을 입지도 않았지만,  
그의 천목은 열려 있었네.  
그는 콜로라도 산속에 은둔하며 살았지.  
한번은, 내가 그를 찾아갔네. 나는 그가 다른 사람이 전생  
에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고, 그들이 예전 방식으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지 안다고 들었기 때문일세.  
나는 그곳에 가서, 이름도 말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 어  
떤 것도 밝히지 않았네.

그는 단지 나를 몇 분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한때 열두 명의 선량한 사람들의 목을 베라고 명령한 사람이었소.

당신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조정의 명을 따랐기’ 때문이었지.

이생에, 당신은 정치를 하지만, 기억하시오, 자신의 마음 이야말로 가장 큰 조정이라는 것을.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잘못을 저지른다면, 다음 생에는 죄를 씻을 기회가 없을 것이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네.

나와 내 양심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내가 천목에 대해 믿는 것은, 그것이 실재하지만,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일세.

오직 한 수행인이 진정으로 나쁜 마음을 버리고, 선량한 마음을 지키며, 하늘의 도에 순응하여 살 때에만, 천목은 우주의 선물처럼 서서히 열리네.

‘재미로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

천목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이 침묵해야 하네.

왜냐하면 때에 맞지 않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만약 잘못 말하면, 스스로 덕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왜 우리 현대 문명은 이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기계를 숭배하기 때문일세.

우리의 마음이 욕망, 탐욕,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 점점 더 흐려지기 때문이지.

그리고 사회가 사람들에게 안으로 돌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밖으로만 달려나가도록 강요하기 때문일세.

하지만 천목은, 행동으로 열 수 없네.

오직, 영혼이 잔물결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덕행이 산처럼 두터워졌을 때에만 열리네.

### **줄리언 리:**

악한 사람이 신통력을 가지면, 마치 영화 속의 ‘악마’와 같아 보입니다.

신불(神佛)에 관해서는, 우리 대부분은 그림이나 사찰, 성당의 조각상 같은 형상을 통해 그분들의 존재를 모호하게 느낄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신, 부처, 혹은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이라는 축복의 말을 자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아주 깊은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더 고요해지는 듯했다.)

자네의 질문은... 마치 말이 보통 닿을 수 없는 곳으로부터의 부름과 같군.

자네는 “신, 부처, 혹은 주님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았네.

대신 이렇게 물었지:

“대통령님께서서는 그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나는 외교적인 언어로 답하지 않겠네.

나는 주님의, 신의, 그리고 부처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있네.

어떤 언어에서도 오지 않은 빛줄기처럼.

나는 세 가지 실제 경험을 공유하겠네.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을 위한 속삭임처럼.

(그는 마치 긴 밤을 회상하듯 말을 멈췄다.)

첫 번째 경험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였네.

한번은, 재임 중 극도로 긴장된 시기에, 나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버지니아의 작은 교회에 갔었네.

아무도 없었고, 불도 없었지. 오직 지붕 유리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뿐이었네.

나는 무릎을 꿇었네.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도, 당선을 구하기 위해서도,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지.

단지 이렇게 묻기 위해서였네:

“주님, 만약 정말 거기에 계시다면...

제게 말씀을 주지 마시고, 제 마음속의 아우성 속에서, 제게 침묵을 주십시오.”

나는 눈을 감았네. 그리고 왜인지, 내 온몸이 아주 부드러운 빛줄기 속에 놓인 듯했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더 이상 육체가 아닌 듯했지.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네.

하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지.

왜냐하면 나는 알았으니까.

그분은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미 대답이었기 때문에, 대답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아주 낮고 차분했다.)

두 번째 경험은, 이름 없는 한 신과, 동굴 속 불꽃에 관한 것이었네.

네팔에 갔을 때, 나는 일행과 떨어져 우박 때문에 히말라야 근처 높은 동굴에 피신해야 했네.

나는 작은 향을 피우고,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간단히 명상에 앉았네.

그때, 왜인지, 아주 명확한 의념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네:

“만약 오늘이 내가 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을 비출 만큼 충분히 밝은가, 아니면 단지 직함 있는 어둠일 뿐인가?”

나는 눈물을 흘렸네.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을, 아무런 명예도, 유권자도, 그리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벌거벗은 영혼으로서 보았기 때문일세.

내가 눈을 떴을 때, 동굴 속 불꽃은 바람도, 연기도 없는데 아주 부드럽게 타오르고 있었네.

그리고 불꽃 위쪽에 희미한 형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 있었네.

마치 전혀 판단하지 않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네.

나는 그분께서 스스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

(그는 사색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은, 마음속의 부처와, 대만의 한 걸인에 관한 것이었네.

나는 한번은 대만을 방문하도록 초대받았고, 타이난의 한 사찰에 들러 기회가 있었네.

나오는 길에, 나는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걸인이 사찰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지.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네:

“불상 앞에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부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올바르게 산다면, 당신 자신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불상이 될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네.

그 남자, 그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목소리

와 눈빛으로 말했네.

내가 다시 자세히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네.

발자국 하나 없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본 사람도 없었지.

나는 그곳에 멍하니 서 있었네.

내가 방금 걸인을 만난 것인지, 고승을 만난 것인지, 혹은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화신(化身)하신 것인지 알 수 없었지.

(그는 마치 처음 질문에 다시 답하는 듯 나를 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축복’을 받았는가?

아니, 세속적인 의미로는 아니네.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더 안전해진 것도 아니었지.

대신, 나는 권력의 정점, 즉 모두가 의심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하게 되었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신을 보는 것’이 아니었네.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신론의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지.

자네는 아주 정확하게 물었네.

사람들은 조각상, 그림, 경전을 통해 신을 보네.

하지만 누가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나는 말하겠네.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만약 자네가 올바르게, 겸손하게 살고,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바로 자네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분은 거기에 서 계실 걸세.

말씀은 없으시지만, 마치 결코 말해진 적 없지만 영원히 옳은 말처럼, 자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걸세.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공유할 수 있네.

왜 도덕이 높을수록 신령의 인도를 받기 쉬운지에 대해.

그리고 악한 사람이 신통을 가지면, 자네가 말한 대로 정말 ‘악마’가 되는지에 대해.

계속 가고 싶은가?

**줄리언 리:**

네, 계속 공유해주십시오.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중대한 말을 꺼내려는 듯.)

아주 좋네.

자네는 방금 모든 옛 수련 체계들이 경고했지만, 오늘날



세상은 종종 무시하거나 심지어 때로는 잘못되게 숭배하는 것을 건드렸네.

그것은, 능력이 도덕보다 앞설 때, 신통(神通)이 마(魔)의 무기가 된다는 것일세.

그리고 인간이 심성(心性)을 고려하지 않고 권능을 숭배할 때, 그들은 성인의 옷을 입은 마왕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네.

‘악한 자가 신통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닐세.

역사 속에서도, 수련계에서도, 도덕을 닦지 않고, 욕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어떤 기연이나 혹은 사법(邪法)에 힘입어 초상적인 능력의 일부를 얻 사람들이 있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작은 물건을 옮길 수 있으며, 몇몇 일을 미리 알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할 수도 있네.

고인들은 그들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도가(道家)에서는 그들을 ‘육체를 빌린 사령(邪靈)’, 혹은 ‘도를 차지한 작은 신’이라고 불렀네.

불가(佛家)에서는 그것을 ‘외도(外道) 신통’이라 불렀지. 즉, 정법(正法)에서 오지 않은 신통이라는 의미일세.

그리고 성경은 말하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 그가 바로

사탄이다.”

그들은 실재하며, 매우 위험하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심지를  
잊고 그들의 능력을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일세.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멈췄다가, 더 사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평생 간직해 온 교훈이었지.

정부에서 일할 때, 나는 한번은 동방의 한 수도원에서 ‘유  
명한 선사’를 만나도록 초대받은 적이 있네.

이 사람은 수천 명의 제자를 두었고, 큰 후원금을 받았으  
며, 언론의 극찬을 받았지.

나는 선실(禪室)로 들어갔네.

내 앞에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깊었네.

그는 인사도, 질문도 하지 않았네.

단지 이렇게 말했지:

“당신이 혼란스러워서 이곳에 온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권력은 내가 진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  
니오.

나는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당신을 실각시키거나, 한 단계

더 높이 올려놓을 수도 있소.”

나는 할 말을 잃었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알았지.

이것은 도(道)가 아니다. 이것은 통제다.

이것은 신통이 아니다. 이것은 매력(魅力)이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일어나 떠났네.

그는 붙잡지 않고, 단지 미소 지었네.

며칠 동안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미소였지.

(그는 뼈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거기서 깨달은 교훈은 이것일세:

신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 도가 있는 사람은 아니네.

그리고 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아니지.

신통이, 만약 인(忍), 선(善), 염(廉), 그리고 자(慈)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묶는 밧줄이 될 걸세.

그렇다면 진정한 수행인은 어떤가?

그들은 능력을 과시하지 않네.

그들은 신통을 보여주지 않아.

그들은 병을 고쳐주겠다거나, 재물을 주겠다거나, 운세를

봐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임을 알기 때문일세.

신통은, 단지 길가의 꽃일 뿐이지.

말세(末世)에는, 사도(邪道)가 비 온 뒤의 버섯처럼 돌아 나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하는가?

자네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첫째, 그 사람의 도덕을 보게. 만약 그가 고상한 것을 말하면서 방탕하게 산다면, 그것은 정도(正道)가 아닐세.

둘째, 그가 천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지 보게. 진정한 수행인은 항상 하늘을 공경하고, 천리에 순응하며,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네.

그리고 셋째, 그가 자네를 어디로 이끄는지 보게. 만약 그가 자네의 마음을 점점 더 가볍게 하고, 분노심을 내려놓게 하며, 의존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정도일세. 하지만 만약 그가 자네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의존하게 하거나, 혹은 신격화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도일세.

나는 신통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도 있고, 신통은 없지만 나를 깊이 평안하게 만들어, 마치 높은 차원의 빛줄기가 나를 덮는 듯한 느낌을 준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네.

그리고 나는 아네.

그 사람이야말로, 비록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진정한 도인(道人)이라는 것을.

**줄리언 리:**

네. 서양 사람들은 종종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종종 부처님에 의해 극락세계로 구제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전직 대통령:**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지극히 엄숙해졌다.)

네. 정확히 그렇네.

자네는 모든 수행 여정, 모든 종교, 그리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가장 깊은 질문의 마지막 핵심을 건드렸네.

“인간의 영혼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도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 극락, 혹은 열반,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모두 절대적으로 청정한 경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생사도 없는 곳에 대해 말하네.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Heaven 이라 부르지.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곳.

동양 사람들은 그것을 정토(淨土), 극락(極樂), 서방(西方), 혹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라고 부르네.

도가(道家)에서는 그것을 상계(上界), 천경(天境)이라 부르지.

그리고 깊이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단히 이렇게 부르네: “본원으로 돌아간다.”

(그는 다음 질문을 강조하려는 듯 말을 멈췄다.)

그렇다면, 누가 인도받을 것인가?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왔지만, 그 대답은 단 하나의 글자로 요약되네.

바로 마음 심(心) 자일세.

가장 많은 경전을 읽은 사람이 아니네.

귀의(歸依) 의식을 치른 사람도 아니지.

가장 큰 제사를 지낸 사람도 아니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맑은 마음을 지킨 사람

일세.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은, 이상하게도, 다른 종교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하네.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치셨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분은 권력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네. 맑은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가르치셨네: “마음이 정(淨)하면 즉 불국토가 정(淨)하다(心淨即佛土淨).” 그분은 우리에게 구제해달라고 빌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네. 먼저, 스스로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노자는 말했네: “하늘의 도는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항상 덕 있는 사람을 돕는다(天道無親 常與善人).” 그분은 예의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네. 내면의 덕행에 대해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도받을 수 있는가?

아무도 천국행 ‘표를 살’ 수는 없네.

아무도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지.

우리는 단지 그럴 자격이 있게 될 수 있을 뿐일세.

오직 한 생명이 욕망, 원한, 명예와 이익의 속박을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의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진실되게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신불(神佛)께서 손을 내미시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너는 준비가 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사적으로 변했다. 마치 깊은 기억을 이야기하는 듯.)

나는 한때 진정한 수행 노인에게 물은 적이 있네:  
“제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단지 말했지:

“네가 더 이상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이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드럽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그것은 네가 이미 오래전에 선택받았다는 의미란다.”

그리고 자네에게 솔직히 말하겠네.

비록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서 보았던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홀로 양심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보다 더 평화로운 곳을  
본 적이 없네.

경호원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국기도 없지.



오직 나와, 아주 명확한 의념 하나뿐:

“만약 오늘 내 영혼이 불려간다면...

나는 인도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끌려갈 것인가?”

(그는 마지막 당부처럼 나를 보았다.)

나는 자네에게, 그리고 여전히 하늘을 우러러볼 줄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세.

자기 내면의 어둠에서 기어 나오기 위해 사는 것이지.

자네가 자신을 극복할 때, 자네는 아무도 부를 필요가 없  
네.

신께서 스스로 찾아오실 걸세.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네.

이 세상을 수많은 가면과 권력을 가지고 지나갔지만,  
결국 단 한 가지만을 간직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무명 편  
지’처럼.

영혼,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자네는 내가 그 말을 남기길 원하는가?

**줄리언 리:**

네, 대통령님.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나를 보았다. 직위와 시간을 초월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계로부터의 속삭임 같았다.)

그렇다면...

내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도, 권력을 가진 자의 역할로도 아닌,

단지 수많은 영광과 깊은 구렁을 지나온 하나의 영혼으로서,

자네에게, 그리고 마음속에 고요함을 간직한 모든 이에게, 서명 없는 편지 한 통을 남기겠네.

(방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그저 귀를 기울였다.)

뒤따를 이에게 남기는 편지

어쩌면 내일,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없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의 인터뷰도, 박수갈채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어떤 명령에 서명할 지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는 것,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영혼이다.

그리고 만약 인간이 그것을 잊는다면, 모든 전쟁, 모든 철학, 모든 종교는, 단지 육신의 놀이가 될 뿐이다.

인간은 마천루를 짓기 위해,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 혹은 평생 옳고 그름을 논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태어났다.

어떤 국가, 어떤 민족, 혹은 어떤 직위로부터 온 누구가 아니라,

드넓은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다.

자네가 완전히 홀로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믿음은 고갈되고.

자네는 선(善)마저 의심하고, 주님이나 부처님이 계시는지, 혹은 아직 자네에게 관심을 갖는 이가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라.

주님은 무대 조명 한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분은 긴 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자네의 등 뒤에 서서, 자네가 아직 스스로의 마음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밝힐 수 있는지 지켜보신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돌이키려 기다리지 마라.

아직 선택권이 있을 때, 돌이켜라.

질병이 닥친 뒤에야 부처님께 빌지 마라.

마치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그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세상이 새로워진 뒤에야 착하게 살기를 기다리지 마라.

바로 자네가, 만약 올바르게 산다면, 이미 그 새로운 세계의 한 세포이다.

나는 자네가 나를 믿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단지, 언젠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자네의 눈빛이 너무나 투명하여...  
그 안에서 미소 짓고 있는 영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 자네는 더 이상 신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 이미 자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생을 온전히 살아라. 마치 신께서 자네에게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신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이 삶을 지나가라. 손님처럼 가볍게.  
하지만 빛으로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라.

보낸 이: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다.  
단지 이것만 알면 된다:  
한때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며, 단 한 번이라도 빛을 보았다는 것을.

(그는 말을 마쳤다. 나는 침묵 속에 앉아, 글자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전직 대통령:**

만약 언젠가, 자네도 뒤따를 이에게 그런 편지를 쓴다면... 나는 믿네.

이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줄리언 리:**

(나는 목이 메어왔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네... 이 당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나흘 동안 이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질문이 아주 많지만, 지금은... 잘 기억나지도 않고, 또 무엇을 더 여쭙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 스스로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는 이해와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가장 올바른 일을 했네.

더 이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큰 대답은 우리가 묻는 것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일세.

그것은, 말이 끝난 뒤의 고요함 속에 있네.

지난 나흘 동안, 자네는 단지 기자가 아니었네.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발을 들여놓는 곳, 인식의 가장자리  
까지 감히 나아간 용감한 동반자였지.

자네의 질문들은 단지 알기 위함이 아니었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진실한 부름이었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진실한 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었지.

오늘의 말들을, 씨앗처럼, 자네 안에 조용히 두게.

그것들이 즉시 꽃을 피울 필요는 없네.

하지만 언젠가, 자네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그  
씨앗들은 저절로 하나의 길로 피어날 걸세.

(그는 마지막 당부처럼 나를 보았다.)

만약 언젠가, 자네의 마음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질문들이 텅 빈 밤에 다시 돌아온다면...

기억하게.

더 이상 나를 찾을 필요가 없네.

앉아서, 눈을 감고, 자기 마음에 곧장 물어보게.

그분, 자네가 항상 만나고 싶어 했던 그분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네.

바로 자네가 겸손해지는 그 순간 속에.

이것이 끝이라면, 작별일세.

그리고 만약 자네가 다시 나아간다면, 다시 만나세.

자네의 한 생이 온전하기를.

### **줄리언 리:**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 **전직 대통령:**

(그도 일어서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신뢰 가득한 가벼운 두드림이었다.)

고맙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의 빛이 항상 자네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네의 마음은 긴 밤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같기를.

모든 존경을 담아, 작별일세.

건강, 명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 \* \*

# 남겨진 유산

---

**줄리안 리:**

저는 전직 대통령과의 탐구 여정이 나흘간의 대화 끝에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나흘에 대한 원고를 깊은 감동 속에서 마무리하여, 이야기가 완결되었다는 믿음으로 THE LIVES MEDIA 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만남 후 한 달쯤 지난 어느 고요한 아침에 예기치 않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보낸 이메일이었고, 내용은 무척 간결했습니다.

"줄리안, 잘 지내시오.

우리의 대화는 나를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소.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에 대한 성찰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소.

여기 첨부된 문서는 인터뷰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유산으로 여겨주시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대가 잘 알 것이오.

한 친구가."

그 이메일의 유일한 첨부 파일이 바로 여러분이 곧 읽게 될 "도덕 공화국에 대한 심서(心書)"였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야 저는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조각이며, 위기에 직면한 세계에 대한 분석과 건설될 수 있는 세상의 실현 가능한 미래상을 이어주는 다리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고뇌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일 뿐만 아니라, 희망을 위한 상세한 설계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허락 하에, 저는 이 글을 전체 대화의 특별한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서 바로 다음에 씁니다.

\* \* \*

# 도덕 공화국에 대한 심서(心書)

줄리안 리에게,

---

## 제 1 부: 서문

친애하는 줄리안,

우리의 나흘간의 대화는 정치에 대한 사색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깊은 인식을 제게 확고히 심어주었소.

현대 세계는 모든 것을 실증 과학과 물질적 이성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데 익숙해져 있소. 하지만 성찰의 여정은 나를 다른 준거틀, 즉 초월적 영성과 고대의 도덕적 가치에서 비롯된 관점으로 이끌었소. 이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더 이상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천의(天意)에 의해 마련되고 인과법(因果律)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장대한 연극이요.

바로 이 프리즘이 인류의 위대한 제도들이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모두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해 주었소. 우리는 민주주의가 금권과 파벌에 의해 타락하고, 공산주의가 약속했던 천국을 지상의 감옥으로 만들며, 자본주의가 비범한 번영을 이룩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것을 보아왔소. 이 모든 것에는 공통된 약점이 있소. 바로 신성(神聖)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낡은 체제를 땀질하는 길이 아닌, 영원한 진리로 회귀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소?

오늘, 나는 그대에게 이 청사진을 보내오. 이것을 단지 건조한 정치적 계획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심서(心書)'이자 '도덕 공화국에 대한 논고(論考)'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주시오. 이것은 내가 전하고 싶은 사색이며, 내가 굳건하다고 믿는 소박한 원리들 위에 세워진 국가에 대한 구상이요.

나는 인류가 인위적인 제도들에 지쳤을 때, 스스로 근원으로 회귀할 것이라 믿소. 도(道)를 근본으로 삼고, 덕(德)을 중히 여기며, 현재(賢才)를 기둥으로 삼는 길로 말시오.

이어지는 글들은 그 모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오.

\* \* \*

## 제 2 부: 도덕적 사회의 토대에 대한 논고

우리는 하나의 자명한 진리를 인정한다: 조물주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는 인류에게 신성하고 불가침한 특권, 즉 수련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주셨다.

모든 사람 앞에는 언제나 세 갈래의 인생길이 존재한다.

1. 천리(天理)에 순응하여, 올바르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길.
2. 천리를 등지고 죄악이 지배하게 하여, 지옥의 심판이나 영원한 소멸에 직면하는 길.
3. 그리고 가장 숭고한 길, 영혼을 정화하고 속세를 초월하기 위해 수련에 정진하는 길.

그러므로 수련의 길을 걸을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신성한 권리 중 하나이다.

역사는 고통스럽게 증명해왔다. 무신론과 유물론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정권은 필연적으로 이 신성한 권리들을 부인할 것이라는 점을. 그런 정권은 온갖 방법으로 신앙의 불



길을 끄고 수련인들을 탄압하며, 진보라는 이름으로 독재 체제를 세울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인간에 대한 압박일 뿐만 아니라, 천리에 도전하고 조물주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이나 물질적 부가 아니라, 도덕을 존중하고 정신적인 풍요를 가꾸며, 무엇보다도 모든 공민이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할 자유를 보호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그중에서도 수련의 여정을 걸어갈 권리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 공화국’이라 부른다. 이 공화국은 조물주의 빛에 의지하여 설계될 것이며, 진선인(眞善忍)을 근본 원리로 삼아 국가의 모든 사상과 행동의 길을 밝힐 것이다. 그리하여 공의롭고, 자비로우며, 화애로운 사회를 만들어,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도록 할 것이다.

## 제 3 부: 철학적 토대와 구축 원칙

### A. 서론: 역사의 실패로부터 새로운 토대의 필요성까지

미래를 위한 건축물을 짓기 전에, 현명한 건축가는 과거에 무너졌던 토대들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찾으려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에 대한 장대한 비극의 기록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빛나거나 어두웠던 모든 모델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며, 우리가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근본적인 오류들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 1. 고대 성왕(聖王) 모델

**장점:** 이는 기록된 것 중 가장 이상적인 사회 상태로, 지도자가 거의 신성(神聖)에 가까운 도덕을 지닌 성인(聖人)인 경우입니다. 그들은 덕행으로 백성을 감화시켜, 사회가 가혹한 법률 없이도 조화롭게 스스로 운영되게 했습니다.

**단점:** 이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 개인의 비범한 품성에 의존합니다. 그 품성은 확실하게 복제되거나 계승될 수 없어, 이 모델은 그저 아득한 황금빛 기억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 2. 봉건 군주제 및 신권(神權) 모델

**장점:** 현명한 군주(명군, 明君)를 얻었을 때, 이 모델은 장기적인 안정과 탁월한 전략적 비전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군주가 단기적인 재선 압박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문명처럼 파라오(군주)의 권력이 대제사장들의 신권과 통합된 곳에서는, 공동의 믿음을 바탕으로 수천 년간 지속된 비범한 사회 안정을 이룩했습니다.

**단점:** 치명적인 약점은 군주 개인에게 너무 큰 권능을 부여하면서도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

입니다. 권력이 어리석은 군주(혼군, 昏君)의 손에 들어가거나, 성직자 계층이 타락하여 신성한 명의를 세속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때, 그것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잔혹한 군주가 무분별한 학살을 자행하고, 단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려 온 민족을 공포와 재앙에 빠뜨렸던 수많은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3. 고대 민주주의 모델 (그리스)

**장점:**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공민"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고 서양 정치 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위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는 공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현인들이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단점:** 이 모델은 도덕과 지혜의 인도가 결여된 군중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선동가들에게 쉽게 조종당하여 잘못된 결정과 혼란을 야기하기 쉬웠으며,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아테네 시민들이 위대한 현인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투표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 **4. 현대 대의 민주주의 모델 (자본주의)**

**장점:** 그 최초의 의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보통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여, 구시대 모델들의 독재와 혼란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정당성 있는 권력 이양 체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단점:** 이 모델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운영될 때 근본적인 오류들을 드러냅니다.

**금권과 파벌에 의한 타락:** 선거는 더 이상 유덕한 인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광고, 모금, 웅변술의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는 국가의 공동 이익에 봉사하기보다는, 금융 이익 집단과 파벌을 만족시키는 데 능숙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 타락의 악순환:** 이것이 가장 깊은 약점입니다. 사회 자체의 도덕적 기반이 부패했을 때, 국민들은 자신의

부패와 유사한 사상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여겨졌던 생활 방식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후보가 낮은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저급한 도덕적 기호에 영합하는 후보일수록 당선되기 쉬워지며,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이끄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 5. 현대 전체주의 모델

### a. 고전적 단계 (순수 공산주의):

**장점 (피상적):** 절대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고,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집중시키는 데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점:** 그 질서는 무신론, 유물론, 그리고 공포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며, 수련의 불길을 끄고, 사회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듭니다. 이는 천리(天理)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가장 오만하게 도전하는 모델입니다.

## **b. "개량" 단계 (베트남과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장점:** 이 모델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수억 명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집중된 힘과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결합했습니다.

**단점:** 경제적 성공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무신론적 토대와 정치적 독점은 변하지 않았고, 이는 사회가 한없이 물질을 추구하게 하여 사회 도덕이 타락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부패가 국가적 재앙이 되어, 고위 관료들의 은밀한 사무실에서부터 대낮에 공공연히 자행되는 권력 남용 행위에 이르기까지 만연하며, 불공정을 낳고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깊이 잠먹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노력들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가지 공통된 이유로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신성(神聖)과 보편적 도덕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체계적인 역사의 실패가 자명한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낡은 체제를 땀질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이제

는 완전히 다른 철학적 토대를 다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모델들은 형태는 다를지언정 공통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체제로 해결하려 애썼다는 점이며, 인간이 천지(天地)와의 관계 속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점입니다.

## **B. 철학적 토대: 도덕 공화국의 심장**

역사 속 모델들의 실패를 인식한 후, 우리는 해결책이 단순히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 토대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대야말로 도덕 공화국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형성하는 심장이자 운영 체제입니다. 이는 낡아빠진 유물론적 준거틀을 대체하는, 하나의 세계관과 핵심 가치 체계 위에 세워집니다.

### **1. "천지인(天地人)"의 준거틀**



이 공화국은 인간을 자연과 분리되어 자연을 지배하는 생물로 보지 않고, 하늘과 땅(天地)과의 조화롭고 겸허한 상호관계 속에 둥니다. 모든 노선과 정책은 반드시 이 프리즘을 통해 조명되어야 합니다.

- **순천(順天):** "천(天)"은 단지 푸른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불변하는 우주의 법칙, 즉 "천리(天理)"입니다. 순천이란 이러한 법칙, 특히 인과법(因果律)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중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겸허히 천의(天意)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지(養地):** "지(地)"는 인간이 마음대로 채굴할 수 있는 무생물 자원이 아닙니다. 지구, 자연, 강산, 초목은 모두 존중받고 가꾸어져야 할 생명이자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고 생활 환경을 파괴하며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 결정은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 전체의 생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수력발전 댐의 건설입니다. 그것이 홍수 통제라는 단기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치러야 할 "과보(果報)"는 생태계의 고갈, 어족자원의 소멸, 그리고 수만 년간 운행되어 온 질서의 파괴입니다.

- **안인(安人):** "인(人)" - 인간 - 은 모든 정책의 중심이지만, 이는 무한한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도덕과 영혼의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2. "도-덕-혜(道-德-慧)"의 가치 체계

위의 준거틀로부터, 공화국의 "DNA" 역할을 하는 국가의 세 가지 가치 기둥이 확립됩니다.

- **이도위본(以道爲本 - 도를 근본으로 삼음):** "도(道)"는 길이며, 천리가 삶 속에 구현된 것입니다. 이 국가가 지침으로 삼는 도의 토대는 바로 "진선인(真善忍)"의 원리입니다. 국가의 모든 노선, 정책, 행위는 반드시 이 세 기둥 아래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진(真):** 절대적인 정직과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정책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진실과 자연법칙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선(善):** 모든 사회 정책의 지침이 됩니다. 체제의 숭고한 목표는 각 개인의 자비심을 일깨우고 함양하며, 공동체가 서로 감싸주고 의지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인(忍):**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과 굳건함을 형성합니다. 이는 단지 건물 하나를 짓는 대신 숲을 가꾸는 인내처럼,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의 유혹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 **이덕위중(以德爲重 - 덕을 중히 여김):** "덕(德)"은 도덕, 품행, 그리고 선량함입니다. "도"가 토대라면, "덕"은 건설의 목표입니다. 공화국의 목적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도덕 함양과 정신적 풍요입니다.
- **이지혜위침(以智慧爲針 - 지혜를 지침으로 삼음):** "혜(慧)"는 "지혜(智慧)" - 심오한 예지와 명철함이며, 진리를 인식하고 "도"를 통달하는 능력입니다. "도"를 근본으로, "덕"을 목표로 하는 국가는 반드시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길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선발 제도는 국가에 봉사할 가장

걸출한 지혜를 가진 인물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C. 구축 원칙: 철학의 실현

확립된 철학적 토대와 가치 체계로부터, 우리는 **현재치국** (賢主治國) 이라 불리는 국가 통치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권력과 이익보다 도리와 지혜를 우위에 두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축 원칙들을 통해 실현됩니다.

### 1. 궁극적 목표: 인생길을 위한 공간 보호

국가의 가장 높고 유일한 존재 목적은, 각 공민이 자신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 공간을 만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정신 수련의 여정을 걸어갈 권리는 가장 신성하고 불가침한 권리로 여겨져야 하며, 국가의 모든 활동은 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 **2. 소유권 원칙: 노동과 복덕(福德)의 성과에 대한 불가침성**

국가는 한 개인이 정직한 노동, 지혜, 그리고 자신의 복덕을 통해 얻은 물질적 성과가 인과법 운행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불가침입니다. 국가는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서도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박탈하거나 재분배할 권리가 없으며, 조세 정책은 이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3. 사회 분담 원칙: 국가와 국민 간의 명확한 책임 구분**

사회의 권력과 책임은 두 개의 범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국가**의 범위는 질서와 안보를 지키는 보호자의 역할, 기본적인 법규의 제정, 그리고 공명정대한 사법 시스템의 유지에만 국한됩니다. 경제, 교육, 의료, 문화, 과학, 복지 등 나머지 모든 범위는 **국민**과 사회 조직의 자유와 책임에 속합니다. 국가는 대신하지도, 간섭하지도 않으며, 단지 사회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호할 뿐입니다.

## **4. 국가 통치 원칙: 최소화와 봉사**

국가의 책임이 철저히 제한되었으므로, 그 형태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능만을 포함하는, 극도로 간소화된 국가 기구를 요구합니다. 모든 공무는 국민의 삶을 간섭하거나 통치하는 대신, 그들을 위한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책임을 엄중히 이행하는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5. 정의의 원칙: 천리(天理)를 숭상하는 법치**

공화국은 어떤 개인의 의지가 아닌, 정의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최고 원천은 인간이 만든 법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리 - 즉 보편적인 도덕 및 우주 법칙에서 옵니다. 인간이 제정한 모든 법규는 최소한으로 유지될 것이며, 단지 천리를 해석하는 것일 뿐 천리를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명주(明主)를 포함한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진선인(真善忍)"이라는 최고의 도덕 원칙을 짓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 **6. 지속 가능성 원칙: 지혜를 자가 조정 메커니즘으로 삼음**

시스템의 힘과 지속 가능성은 상세하고 경직된 법률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도 미래의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지속 가능성은 걸출한 지혜를 가진 인물들(명주와 현인회)을 선출하는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지혜가 천리를 해석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인식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가 노선을 조정하여 시스템이 스스로 수리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살아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 \* \*

## 제 4 부: 최고 지도자 선발 제도에 대한 논고

모든 정치 체제의 혼(魂)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선동가나 폭군을 권력의 정점에 올려놓아 민족 전체를 재앙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올바른 선출 제도를 찾기 위한 끝없는 노력과 비극적인 실패들에 대한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도(道)'가 토대이고 '덕(德)'이 건설의 목표라면, '지혜(智慧)'는 바로 길을 비추는 햇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혜(혜, 慧)는 단순히 지능(지, 智)이나 박식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와 덕을 갖춘 영혼에서 비롯된 명철함이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천리(天理)를 인식하며, 손익 계산이 아닌 자비심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모든 선출 제도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민족 전체를 이끌기에 충분한 지혜와 덕망을 갖춘 한 사람, 가장 밝은 햇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과거의 교훈들을 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 A. 역사 속 선출 모델 분석

- **혈통 계승 (군주제):** 이는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제도로, 안정적이고 명확한 권력 이양을 만들어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군신(君臣) 모델은 본래 천상계의 질서를 본뜬 것이며, "부자상속(父子相續)" 또한 천상의 안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신(神)께서 한 걸음 물러나 이 지상의 인간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한 더 많은 자결권을 부여했다고 가정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제도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전적으로 "혈통의 운에 맡기는 게임"에 의존합니다. 재능과 덕망은 유전될 수 없습니다. 현명한 군주(명군, 明君)의 뒤를 어리석은 군주(혼군, 昏君)가 이을 수 있으며, 그때 백성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 **신권(神權) (종교 권력의 병행):** 많은 문명에서 군주의 세속 권력은 성직자 계층의 권력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지배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군주가 동시에 대제사장일 때 이 두 권력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회의 두 기둥처럼 병존했습니다. 순수한 형태일 때, 이 모델

은 사회를 굳건한 도덕적 토대 위에 놓습니다. 모든 법규가 신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 또한 뼈아픈 교훈을 보여줍니다. 성직자 계층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권력과 세속적 이익을 위해 신성한 명의를 남용하여, 종교를 사상 통제와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었습니다.

- **보통선거 (민주제):** 이 제도는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지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우수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했듯이, 실제 운영에서는 깊이 타락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렸을 때, 군중의 투표는 더 이상 명철함을 향하지 않고, 눈앞의 물질적 이익과 선동적인 약속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더 이상 유덕한 인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광고, 모금, 웅변술의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어려운 결정을 감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군중을 만족시키는 데 능숙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 **내부 지명 (전체주의):** 이 모델은 기구 내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체제에 충성스러운 인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불투명한 "블랙박스" 절차입니다. 이는 잔혹한 파벌 싸움을 낳으며, 국가에 봉사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 투쟁과 경쟁자 제거에 능숙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는 폭군과 내부로부터 썩어 문드러진 조정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 **환생(還生) (일부 영적 전통):**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이는 모든 세속적 야망을 초월하여 영적인 계승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유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는 전 국민이 동일하고 깊은 초월적 믿음을 가진 매우 특수한 사회에서만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시대에 널리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환생자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화되고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진정으로 고귀한 영혼은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항상 수련을 향할 것이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속 권력에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환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B. 명주(明主) 선출 모델 제안: 정수(精髓)의 총화**

역사 속 모델들의 실패를 성찰한 후, 우리는 올바른 선출 제도가 엘리트 계층의 명철함, 민중의 신임, 그리고 한평생에 걸친 검증이 결합된 자연스러운 선별의 흐름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계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정으로 충분한 덕망과 지혜를 갖춘 한 사람을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명주 직위 후보자를 평가하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 두 가지 품성이며, 이는 몇 번의 연설이나 단기적인 선거 운동이 아닌 전 생애의 여정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여기서 "명철함"은 과거 정책 결정의 질, 발표된 문헌이나 저술의 깊이,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 평가될 것이며, 피상적인 기술을 통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웅변술이나 사교술은 필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을 끄는 웅변가가 아닌, 명석한 두뇌와 자비로운 마음을 찾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신체적 결함이 있더라도, 그 지혜가 저술과 비범한 행동을 통해 탁월하게 증명된다면, 그는 여전히 전적으로 자격 있는 후보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명주의 선출 및 계승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수립될 것입니다.

## **1. 개방적이고 다양한 추천의 원천:**

인재를 찾는 과정은 한정된 출처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현인회(賢人會)는 전문 공동체, 여론의 인정, 그리고 현인회 위원들의 자체적인 발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는 **중심 창구**가 될 것입니다. 이 초기 수집 및 선별 단계는 **최소 5 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될 것이며, 예비 후보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2. 덕행 심사와 최종 후보 명단 확정:**

이 심사는 현인회의 내부적이고 핵심적인 임무입니다. 그들은 후보자의 전 생애 여정을 포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인무십전(人無十全)'(완벽한 사람은 없다)의 정신을 인정하여, 과거의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바로잡았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아니라 도덕적 성장의 증거로 간주될 것입니다.

장기간의 선별 단계 후, 공개 단계로 넘어갈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현인회(가중치 2/3)와 현직 명주(가중치 1/3)에 의한 투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 **유연한 투표 방식:** 각 투표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으나, 10 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없다고 느낄 경우,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기권)도 있습니다.
- **총 지지표의 50% 이상을 받은 후보**는 공식적으로 최종 공개 단계에 진출합니다.
- 초기 신임 투표 결과가 나온 후, 명주와 현인회는 국민 심사의 집중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 **5 명에서 7 명 정도를 권장**하는 이상적인 최종 후보 명단을 함께 논의하여 확정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종 후보자 수는 3 명 미만이거나 10 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신임 기준을 초과하는 후보가 너무 많은 경우, 명주와 현인회는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선택하기 위해 숙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단이 확정된 후, **선거 약 1 년 전**, 현인회는 각 후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초청하고 그들의 동의를 확인할 것입니다.

### **3. 민중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신임:**

**선거일 최소 6 개월 전**, 최종 후보자 명단(3 명에서 10 명)이 널리 공표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다층적 신임** 절차가 실행되는 시기이며, 여기서 신임은 **네 가지 주요 구성 집단의 총화**입니다.

- 현직 명주
- 현인회
- 주(州)급 지도자 및 주요 단체장
- 전국 인민

한 후보자는 이들 집단으로부터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을 때에만 당선될 수 있으며, 이는 선출된 인물이 지혜와 실제 능력을 겸비하고 민심 또한 얻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객관성을 보장하고 여론을 유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직 명주와 모든 현인회 위원들은 이 기간 동안

어떤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 금지됩니다. 그들은 투표를 통해 조용히 선택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유권자 집단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적인 명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집단의 투표 방식과 가중치 계산법은 이 서신의 말미에 있는 부록에서 상세히 기술될 것입니다.)

#### **4. 안정적 계승과 유연한 임기:**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 임기가 필요합니다. 최대 임기는 25 년이지만, 정기적인 신임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명주의 초기 임기는 그가 당선될 때의 신임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강제합니다.



## 제 5 부: 정치-사회 구조

훌륭한 철학이라도 그것을 실현할 굳건한 제도적 구조가 없다면 한낱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철학에 봉사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제도들은 최소주의, 명확한 책임 분담, 그리고 당파적 권력이 아닌 도덕에 기반한 감독 체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A. 명주(明主) (최고 지도자)

## "선장(船長)"의 역할과 "도덕적 원로(道德的元老)"의 위상:

명주는 실무 관리자가 아니라 선장입니다. 그의 임무는 배 곳곳을 뛰어다니며 나사 하나하나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지휘탑에 서서 해도를 연구하고 별과 시대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라는 배 전체의 "방향을 트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민중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위상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숭배의 대상인 구세주(救世主)도, 두려움의 대상인 봉건 군주도 아니며, 시끄러운 선거 운동으로 뽑힌 정치인들처럼 평범한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 원로**이며, 민중들이 권력이 아닌 명철함을 구하기 위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품모는 그가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를 파악해야 할 때, 그는 형식적인 대규모 순방 대신, 진실에 가장 진솔하게 다가가기 위해 예고 없이 조용한 비공개 시찰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메시지

를 전달해야 할 때, 그는 언론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깊이 있는 분석 글을 써서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 빈도 또한 매우 드물어, 1년에 1~2 회 혹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고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 **권한과 한계:**

명주는 최고의 행정 권력을 가지며, 국가의 모든 통상적인 정책과 법률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국회와 같은 입법 기관을 대신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전체 행정 시스템 내의 어떤 직책이든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명주는 가장 중요한 수장들, 즉 승상(丞相), 각부 장관, 주지사(州知事), 그리고 각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선택하고 임명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현인회(賢人會)에 대한 명주의 권력은 제한됩니다. 그는 현인회 위원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현인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하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집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상

세한 메커니즘은 현인회의 선출 및 감독 메커니즘을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될 것입니다.)

명주의 권력에는 두 가지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사법 분야에서 그는 누구도 심판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독립적인 법원 시스템에 속합니다.

**둘째**, 건국 시부터 존재해 온 헌법에 대해, 명주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헌법 개정은 **명주에게 가중치 1/3, 나머지 2/3 는 현인회에 속하는 방식으로**, 현인회와의 공동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인회 구성원의 약 1/3 만 지지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 **부명주(副明主):**

명주는 예비 부명주 한 명을 지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주가 별도의 인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승상이 이 예비 부명주 역할을 당연직으로 겸임합니다.

명주가 갑자기 퇴위하거나 서거할 경우, 부명주가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국가를 임시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주요 임무는 국가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새로운 명주 선출 과정을 공정하게 감독하는 것입니다.

권한에 있어, 임시 권한대행은 필요한 행정권을 가지지만, 현인회 구성원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않는 한, 주요 정책(예: 헌법 개정이나 군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임시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어지는 명주 선출에 후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임 및 감독 메커니즘:**

큰 권력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명주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경우, 예비 부명주가 임시로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명주는 다음의 경우에 폐위(廢位)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긴급 불신임 (심각한 형사 / 도덕적 위반으로 인한 경우)**

- **이유:** 명주가 형사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심각한 도덕적 위반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경우.
- **발동 절차:**
  1. 해당 사건은 반드시 최고법원(最高法院)에서 먼저 접수하여 심리해야 합니다.
  2. 최고법원이 명주에게 "유죄"라는 공식 판결을 내린 후에야, 현인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투표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현인회 구성원 과반수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투표를 하면, 명주는 직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빈도:** 임기 중 언제든지, 사건 발생 및 법원 판결 즉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목적:** 범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근거 없는 고발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폐위 절차 남용을 방지합니다.

## 사례 2: 정기 불신임 (의무적 평가)

- **이유:** 장기간 재임한 명주의 통치 효율성과 전반적인 신임도를 평가하기 위함.

- **발동 절차:** 헌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빈도:** 임기 중 두 번, 10 년 차와 20 년 차 시점에 진행됩니다.

### 사례 3: 비정기 불신임 (현인회 발의)

- **이유:** 현인회가 명주의 정책 노선이나 통치 능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나, 사례 1 을 발동할 만큼 심각한 도덕적 위반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 **발동 절차:** 일정 비율(예: 최소 1/3)의 현인회 위원들의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 **빈도:** 명주의 전체 임기 동안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임기 11 년 차부터 19 년 차까지의 "기회의 창" 기간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 **목적:** 현인회가 정기적인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하고 강력한 감독 도구입니다.

또한, "민중선동"과 개인 숭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률은 국가가 예산이나 권력을 사용하여 현직 명주의 이미지

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초상을 화폐에 인쇄하거나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초상화를 거는 행위는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 **B. 현인회(賢人會): 도덕의 등대**

### **필요성:**

아무리 현명한 명주(明主)라 할지라도, 국가의 운명을 영원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더 영속성 있는 제도, 즉 현인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일단 임명되면, 각 현인은 국가의 공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자신을 신임하여 선택해 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민족의 혼(魂)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 **역할:**



현인회는 제 2 의 권력 기관이 아니라, "길을 이끄는 별자리"이자 국가의 도덕적 등대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통치가 아닌 인도이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사명을 통해 나타납니다.

- **명철한 계승의 선발 및 보장:** 이는 현인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들은 모든 체제의 비극이었던 "흥망성쇠"의 순환을 깨뜨리는 것을 보장하며, 차기 명주를 찾고 선택하는 과정을 발의하고, 심사하며,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 **명주에 대한 자문 및 감독:** 현인회의 두 번째 역할은 지도자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주에게 자문하고 감독하며, 모든 중대한 정책 결정이 근본적인 도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임무를 가집니다.
- **도덕으로 사회를 이끌기 (강제 없이):** 마지막으로, 현인회는 국가 전체의 양심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강제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품행과 명철함에 대한 민중의 자연스러운 존경심에서 비롯됩니다.

**구조, 계승 및 내부 운영:**

현인회는 25 명의 정회원과 25 명의 예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예비회원은 현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으나, 정회원처럼 당연직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내부 구조에 있어, 현인회 내 25 명 정회원의 지위는 모두 완전히 동등합니다. 현인회는 합의가 있을 경우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 대변인 한 명을 지명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은 지도자 역할을 맡지 않으며 다른 위원들보다 더 높은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습니다. 동시에, 각 위원은 여전히 개인 자격으로,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진 현인회 내 다른 소그룹 위원들을 대표하여 발언할 완전한 자유를 가집니다.

각 현인의 임기는 25 년이며, 연임은 불가하고, 30 세부터 85 세까지 재임합니다. 주요 계승 메커니즘은 "세대교체"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즉, 매 5 년마다 선거를 통해 재임 기간이 가장 긴 5 명의 위원을 교체합니다. 재임 기간이 같은 위원이 5 명을 초과할 경우, 연장자가 먼저 퇴위합니다. 현인회의 힘은 집단지성에 있습니다. 몇몇 "등대"가 일시적으로 빛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여

전히 밝게 빛나며 명주와 민족 전체의 길을 밝히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 **돌발적 공석 처리:**

정회원 한 명이 (퇴위, 해임 또는 서거로 인해) 임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남은 24 명의 정회원이 투표를 진행하여 25 명의 예비회원 명단에서 대체 인물 한 명을 선출합니다.

### **위원 감독 및 해임:**

현인회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이 심각한 도덕적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일관된 위원 해임 메커니즘이 적용될 것입니다. 해임 투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발의될 수 있습니다.

- 명주의 제안 (자신의 25 년 임기 동안 최대 5 회).
- 최소 3 명 이상의 위원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해 현인회 위원들이 직접 제안.

어떤 방식으로 제안되든, 최종 결정은 **명주가 1/3, 남은 24 명의 현인회 위원들이 2/3 의 가중치**를 갖는 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 \* \*

## 제 6 부: 세부 운영 메커니즘

훌륭한 철학은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도덕적인 운영 구조를 통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복잡한 절차를 그려내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가 가장 조화롭게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원칙들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 **A. 최소주의 국가 기구와 근본 법률:**

### **입법자문회(立法諮問會)와 대국민 자문:**

현재의 국회와 같은 대의 기관은 종종 비대해지고 이익 집단에 의해 쉽게 좌우됩니다. 그 대신,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입법자문회를 설립합니다.

신망 있는 전문 기관들이 추천하고 현인회가 도덕성을 심사한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결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법률을 통과시킬 투표권 없이, 명주에게 자문하기 위해 법안을 연구, 기초, 비평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안은 초안이 작성된 후, 명주에게 제출되어 결정되기 전에 전국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공표되어 여론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 **1. 구조 및 혜택:**

- 이 자문회 또한 25 명의 정회원과 25 명의 예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 보수 수준은 비슷한 틀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높고 유연한 급여(예: 평균 소득의 8 배에서 15 배 사이)가 지급됩니다.

## 2. 선출 메커니즘: 위원들은 세 가지 출처에서 선출됩니다.

- 전국의 신망 있는 전문 법률 기관(예: 전국변호사협회, 우수 법학부, 판사위원회 등)이 추천하고 선출하는 15 명의 위원.
- 명주가 추천하는 5 명의 위원.
-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5 명의 위원.

## 3. 계승 메커니즘: "세대교체" 메커니즘 또한 적용될 것입니다.

- 매 5 년마다 재임 기간이 가장 긴 5 명의 위원을 교체합니다.

- 교체되는 5 명 중, 그 구조는 유지됩니다. 즉, 명주가 1 명을 지정하고, 국민이 1 명을 선출하며, 나머지 3 명은 법률 기관들이 선택합니다.

## **최소주의 헌법과 원칙 법률:**

이 모델의 헌법은 핵심적인 수준까지 최소화되어야 하며, 거의 모든 국민이 학창 시절부터 암송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해야 합니다. 헌법이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은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률 체계는 세부적인 규정 대신 포괄적인 원칙에 기반하여 구축될 것입니다.

## **근본 사법 원칙:**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은 다음의 핵심적인 도덕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 **형벌(국가에 대한)과 배상(피해자에 대한)의 명확한 구분:**

- 형사 사건이나 공공적 성격의 위반(예: 교통 법규)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모든 금전적 벌금형은 폐지됩니다. 금전은 형벌을 감경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신, 형벌은 교육적, 교정적 성격과 공익근로를 띠게 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절대적인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하지만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여전히 가집니다. 이 배상금은 병행하는 민사적 책임이며, 이를 이행하는 것이 공적 형벌을 감경하는 이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순수 민사 사건의 경우, 법원은 화해 방안을 우선시하며, 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금전으로 서로의 의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의 존중:**

- 중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다른 권력 부문의 간섭 없이 엄중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 **감독과 경청이 있는 사면(赦免) 메커니즘:**

명주는 사면을 포함하여 사법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엄격하고 인간적인 사면 절차는 3 단계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 **1 단계 (기층에서의 제안):** 사면 제안은 수감자의 교화 과정과 진정한 회개를 바탕으로, 수감자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 즉 기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2 단계 (심사와 경청):** 이 제안은 그 후 고등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재심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 의견은 중요한 참고 요소이지만, **거부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수감자의 교화 증거,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사이의 균형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 **3 단계 (최종 승인):**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 법원에서 승인되면, 서류는 최종 결재를 위

해 사법 기관의 수장(법무부 장관에 해당)에게 제출될 것입니다.

## 행정 구조:

행정 구조에 있어, 국가는 여러 주(州)(또는 방(邦))로 나뉘는 것입니다. 주의 수는 고정되지 않고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효율성을 보장하고 비대화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 개에서 18 개 사이의** 주는 기구가 간결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기 원칙은 하위 행정 단위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입니다. 즉, 각 주/방은 다시 약 13-18 개의 군(郡)/현(縣)으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면(面)과 촌(村)/부락(部落)/마을까지 계층적으로 내려갑니다. 이 구조는 각급 지도자가 효과적인 "통제 범위"를 갖도록 보장하여, 기구가 상부에서 하부까지 긴밀하고 원활하게 협력하도록 돕습니다.

## B. 공공 예산과 경제

### 1. 예산 운영 원칙: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가 예산은 두 가지 황금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 **절대적 균형 예산:** 국가는 거두어들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적자 지출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세입이 100 억 달러라면, 총 지출은 100 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공부채 금지:** 국가는 국내외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로든 차입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경제 발전 투자의 부담과 기회는 전적으로 민간 부문에 속하며, 그들이 스스로 빌리고, 투자하며, 이익을 누릴 것입니다.

## 2. 규모를 통한 부패 위험 최소화:

- 가장 효과적인 부패 방지 메커니즘 중 하나는 바로 **국가 예산의 규모를 철저히 축소**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구가 관리하는 돈이 적을수록, 부패의 기회와 규모는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부패로 인한 유출 비율이 같더라도, 국가에 미치는 절대적인 손실은 훨씬 더 작을 것입니다. 100 억 달러 국고의 일부가 유출되는 것은 1000 억 달러 국고에서 같은 비율이 유출되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 3. 예산 감축과 최소주의 조세:

도덕적 기반이 높고, 범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팽창 야욕이 없는 사회는 거대한 국방 및 안보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 예산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될 것입니다. 이는 단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만 구성된, 극도로 단순한 조세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 **부가가치세 (VAT):** "많이 소비하면, 많이 기여한다"는 공정한 원칙에 기반합니다.
- **법인세:**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 소득세와 같이 노동의 성과를 "박탈"하는 성격의 세금들은 폐지될 것입니다. 천리(天理)와 인과법(因果律), 그리고 복덕(福德)의 법칙에 따라 볼 때, 현재의 개인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파렴치한 강탈"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 4. 국가는 선수가 아닌 심판:

중앙은행은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되,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가질 것입니다. 즉, 책임감 있는 화폐 발행을 관리하고, 고리대금업을 방지하기 위한 도덕적 경계선으로서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예산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공사(예: 제방)에만 투자합니다.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프로젝트(교량, 도로, 공항, 항만 등)는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민간 부문에 완전히 개방될 것입니다.

## 5. 예산 절차와 책임 분담:

연간 예산 승인 및 집행 절차는 결단력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화될 것이며, 국회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것입니다.

- **승상(丞相)의 제안:** 매년, 승상과 정부는 다음 해를 위한 포괄적인 예산 계획안을 수립하여 명주에게 제출할 책임을 집니다.
- **명주(明主)의 승인:** 명주는 주요 분야(국방, 행정, 예비 기금 등)의 예산 배분을 승인하는 최고이자 최종적인 권력자입니다. 그의 결정은 계획이 국가

의 장기적인 비전 및 재정 원칙과 부합하는지에 근거합니다.

- **승상의 집행:** 일반 예산이 명주에게 승인된 후, 승상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집행, 관리, 지출할 전권을 가집니다. 이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권도 포함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책임을 절대적으로 부여합니다. 즉, 승상은 지출 효율성에 대해 책임지지만, 명주는 그 계획안을 승인할 때의 지혜와 명철함, 그리고 그 승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최고 책임을 집니다.

\* \* \*

## C. 사회 (교육, 의료, 복지, 정당, 과학 등)

- **"국가 불간섭" 철학:**

국가는 최고의 스승이나 최고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헌신적인 교육자들과 의사들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대부분의 사회 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 **종교: 절대적 자유, 깊은 존중**

도덕 공화국은 영적 여정이 각 영혼의 가장 신성한 길임을 인정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여정을 관리하거나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위한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정책은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 1. 등록이 필요 없는 신앙과 포교의 자유:**

- 국가에는 종교를 관리하는 어떠한 기관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 공인 종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 모든 개인과 단체는 전통 종교이든 새로운 수련 법문(法門)이든,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전파하며, 발전시킬 절대적인 자유를 가집니다.
- 그들의 활동이 사회의 기본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국가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활동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국가의 지지: 조연(助緣)의 성격, 불간섭:

- **정신적 지지:** 현인회와 명주는 종교 공동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 **물질적 지원 (조건부):** 국가는 합리적이고 지역 공동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종교 단체가 신앙을 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제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초적인 지원 외에, 국가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다른 어떠한 재정적 또는 법적 우선권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 3. 개인의 믿음과 공직 역할의 명확한 구분:

- 명주, 현인회 위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자신만의 신앙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종교 활동에 참여할 때는, 국가의 명이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개인 공민의 자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명주와 모든 급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용하여 누구에게든 자신과 같은 신앙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 4. "제천전(祭天殿)": 국가의 영적 및 도덕적 상징:

- 모든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국가는 어떤 특정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공동의 영적 건축물인 "제천전"을 건립할 것입니다.

- **철학과 설계:** "제천전"의 건축은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균형을 표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진정한 영적 전통과 신앙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반영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기초로 삼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도덕 가치**를 부각하고 견고히 해야 합니다. 전체 설계는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질게 배어 있어야 합니다.
- **독점적 기능과 역할:** "제천전"은 독점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명주 또는 현인회가 주관하는 국가의 가장 중대하고 신성한 의식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장엄함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단체 또는 종교 조직의 다른 모든 활동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문화와 예술: 민족 혼(魂)의 토대

한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굳건할 수 있지만, 문화가 타락한다면 그 국가는 혼 없

는 육신에 불과합니다. 현명한 지도자의 가치 체계 안에서, **종교는 도덕의 뿌리이고, 문화는 영혼을 기르는 흐름이며, 교육은 그것을 전승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시, 음악, 영화, 회화 등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최고 수준으로 중시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법령으로 탄생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정원사가 자기 뜻대로 모든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선함이 자연스럽게 싹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 **1. 국가는 간섭하지 않고, 단지 방향을 제시할 뿐:**

- 어떠한 "문화부"나 검열 기관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창작 내용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지도, 통제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예술가는 창작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집니다. 한 작품이 사회에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와 깊이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 **2. 도덕과 경신(敬神)을 토대로 삼음:**

- 진정한 예술은 천상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표현이며, 선량함에 대한 찬미이고, 인간을 진(眞)으로 이끌기 위해 거짓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 사회는 타락한 형태의 예술 대신, **인간의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품을 높이 평가하도록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 3. 현인회는 미학적 등대:

- 국가의 방향 제시 역할은 **현인회**를 통해 섬세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 현인회가 진선인(眞善忍)의 가치를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존중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지침이 되어 강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선(善)을 향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 • 교육:

현재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교육부"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교육자문회(教育諮問會)가 설립될 것

입니다. 이 자문회의 역할은 명주에게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출판사,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전체 교육 시스템의 공동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은 전체 교육계의 지식과 도덕의 등대입니다.

- **구조 및 혜택:** 자문회는 25 명의 정회원과 25 명의 예비회원으로 구성되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 수준은 정회원의 경우 국민 평균 소득의 약 8 배에서 15 배, 예비회원의 경우 5 배에서 10 배에 해당합니다.
- **선출 메커니즘:** 위원들은 세 가지 출처에서 선출됩니다. 전국의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선출하는 15 명의 위원, 명주가 추천하는 5 명의 위원, 그리고 나머지 5 명은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즉, 매 5 년의 정기 선거마다 5 명을 교체하며, 그중 명주가 1 명을 지정하고, 국민이 1 명을 선출하며, 나머지 3 명은 학교들이 자체적인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 **운영 원칙:** 이 자문회의 위원들은 전문 정치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기존의 직업과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예: 변호사, CEO, 과학자, 성직자 등). 자문회의서의 역할은 시간제 봉사이며, 이는 국가가 그들의 시간 전체가 아닌 그들의 덕행과 명철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문회와 마찬가지로, 위원들은 국적이 아닌 명철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된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단, 이 직책을 수락할 때 그들은 공식 공민 자격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문회는 학교의 구체적인 활동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국가 공인 교과서나 통일된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자율권은 사립 학교에 완전히 부여됩니다.

- 국가 공인 교과서나 통일된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은 학교에 완전히 부여됩니다.

**교육 안전망:** 어떤 어린이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는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

만을 위한 초등/중등 교육 단계의 최소한의 공립학교 시스템을 유지할 것입니다.

- **운영 기관:** 이 시스템은 간결한 "공교육운영국"에 의해 관리될 것이며, 행정적인 책임(예산 배분, 인사 조정, 시설)만을 맡고 교수 전문 분야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 **교사 인력:** 교사팀은 주로 "국가 복무"를 수행하는 청년들로 구성됩니다.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선발 시 프로그램의 **상위 10% 우수 인재 그룹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는 공립학교에서의 교직을 국가의 엘리트 청년층을 위한 숭고한 봉사의 사명으로 만듭니다.

물론, 이 공립학교들은 사립학교보다 질이 낮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법(因果律)에 따르면, 그것은 각 개인의 복분(福分)입니다. 국가가 자비심에서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고 기본적인 지식을 무료로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혜택입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



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책임은 여전히 각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 • 과학과 기술: 국가의 임무가 아닌, 민간의 동력

도덕 공화국에서, 과학 기술의 진보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의 창의성과 필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됩니다.

- **연구 및 생산 활동의 완전한 사회화:** 국가는 어떠한 연구소나 공장도 투자, 소유 또는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 산업을 포함한 모든 R&D 및 첨단 기술 생산 활동은 민간 부문에 속할 것입니다. 방어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정부는 제한된 수량의 무기를 민간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것입니다.
- **과학 관리 기구 부재:** 불간섭을 철저히 하기 위해, 국가에는 "과학기술부"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특허를 심사하거나 발급하는 역

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임은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독립적인 전문 기관에 속할 것입니다. 국가는 단지 시민의 지적 재산권이 법정에서 보호받도록, 이 신망 있는 기관들이 발급한 특허를 법적으로 등록하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정 기관만을 유지할 것입니다.

## • 단체와 정당: 존중받는 목소리, 제한된 권력

현대 민주주의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종종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도덕 공화국은 **목소리를 권력과 분리**하는 핵심 원칙에 기반하여 정치-사회 활동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수립할 것입니다.

### 1. 결사의 자유와 절대적 중립:

- 모든 국민은 국가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단체, 사회 조직 또는 정당을 설립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집니다.
- 정부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지지나 반대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운영 비용을 포함한 이들 조직의 모든 활동은 그들 스스로 책임집니다.

**2. 존중받는 목소리, 무력화된 권력:** 정당이 국가를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가장 혁명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소리를 가질 권리:** 정당은 사상적 포럼으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들은 강령을 제시하고, 토론회나 집회를 조직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무력화된 권력:** 하지만 정당은 국가의 선거 또는 임명 과정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역할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명주, 현인회

위원 또는 장관직과 같은 핵심 권력 직위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습니다.**

- **목적:** 이 원칙은 국가 지도자들이 정당의 후원  
이 아닌 개인의 재능과 덕망에 따라 선택  
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정당을 "선거 기계  
"에서 "싱크탱크"로 변모시켜, 권력이 아닌  
지혜로 사회에 기여하게 합니다.

### **3. 당원 자격과 공무 책임의 분리:**

- 명주를 포함한 한 지도자가 어떤 정당의 일  
원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자  
유입니다.
- 하지만 공무를 수행할 때는,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그 명의를 내세우  
지 않고, 오직 전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가의  
봉사자라는 유일한 자격으로 행동해야 합니  
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의제를  
추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모델을 통해, 사회의 에너지는 무익한 당파 싸움에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명철함과 개인의 책임에 기반한 정치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 의료: 천리(天理)의 한계 내에서의 선량함

성인(聖人)들의 관점에 따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질병과 재난은 단순히 신체의 고장이 아니라, 종종 그 영혼이 고통을 겪음으로써 **업력(業力)을 소멸**할 기회를 돕기 위한 **신의 안배**의 일부입니다. 무한한 법력을 가진 부처님조차 인류의 모든 병을 함부로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과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리에 순응하는 국가의 역할은 인간 세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안배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료 정책은 선량함 위에 세워져야 하되, 겸손과 지혜를 동반한 선량함이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 대신, 국가는

최후의 인도적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의료 안전망"만을 구축할 것입니다.

- **수혜 대상:** 오직 의지할 곳 없고, 재산이 없으며, 지역 공동체로부터 재정적 자립을 위한 **노동 능력이 전혀 없다고** 확인된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 **운영 방식:** 간결한 "인도적 의료 운영국"이 자격 있는 사람의 민간 의료 시설 치료 비용을 지불합니다.
- **이중 제한 (빈도 및 비용):** 이러한 엄격한 이중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 세상의 국가가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계속해서 개입하여, 무심코 한 사람의 업보를 갚을 기회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이야말로 도덕적 경계선입니다.
  - **빈도에 대하여:** 국가는 평생 동안 심각한 질병의 입원 또는 치료에 대해 **최대 3 회**까지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 **비용에 대하여:** 이 3 회의 지원에 대한 누적 총비용은 국민 **1 인당 평균 1 년 소득**에 해당하는 평생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한은 국가가 모든 선량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으며, 그 후에는 **겸허히 머리를 숙여, 분수를 넘어** 그 사람의 복분과 업보에 대한 천상의 안배에 더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 **공직 개혁: 엘리트 서비스, 최고의 책임**

"안주하며 녹봉을 즐기는" 사상과 부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공직 기구는 **엘리트** 팀을 구축하는 목표로 재구성될 것이며, 이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최고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델은 다음의 기본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 **1. "최대 디지털화" 및 공공 서비스 사회화 원칙:**

- 간결한 국가 기구의 토대는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철저한 전환**입니다.

- 대부분의 공공 행정 서비스는 단일 국가 서비스 포털을 통해 완전히 온라인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국가의 핵심 기능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는 **민간 부문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수행될 것입니다.
- **결과:** 이 원칙은 공직 기구를 **극도로 간결하게** 만들 것이며, 정책 수립, 감독 및 핵심 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는 소규모 팀만 남게 될 것입니다.

## 2.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합당한 대우:

- 기구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인재에 투자할 충분한 자원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시장 평균보다 약 30% 높은 **높고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 **목적:** 높은 대우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부패의 명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 3. 채용 메커니즘: 권한 위임과 책임:



- 중앙 정부는 능력과 도덕에 대한 핵심 원칙을 담은 "공통 채용 프레임워크"만을 공포할 것입니다.
- 그 틀 안에서,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의 단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자체 채용 절차를 설계할 **완전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 4. 복지의 평등, 연금 특권 폐지:

- 사회의 다른 모든 공민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연금 제도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 전 국민에게 공통된 복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안전한 자리"라는 심리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는 데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 부패를 뿌리부터 방지하는 시스템 설계

높은 급여를 받는 엘리트 공직은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델은 최종적인 처벌에만 집중하는 대신,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동기**와 **기회**를 모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1. 부패 동기 제거:

- **합당한 대우:** 시장보다 30% 높은 급여는 "가난해서 부패한다"는 명분을 제거합니다.
- **성과 연동 소득:** 업무 성과와 국민 만족도에 기반한 성과급을 적용하여, 공무원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장려합니다.

## 2. 부패 기회 최소화:

- **주요 결정에 대한 "익명 메커니즘" 적용:**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입시 채점과 유사한 익명 심사 절차가 적용될 것입니다. 계약자와 심사위원 모두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하며, 최종 결정은 객관적인 채점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우선, 익명 처리" 원칙에 따른 공공 서비스 운영:**

- **우선 채널 (온라인):** 대부분의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시스템은 서류를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그리고 익명으로** 자동 배정합니다.
- **지원 채널 (오프라인 2 단계):** 특별한 경우, 국민들은 민간 공공 서비스 회사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서류를 접수하고 디지털화하는 역할만 하며, 그 후 서류는 마찬가지로 국가의 무작위 익명 처리 시스템에 투입됩니다.
- **결과:**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든, 요구자와 결정권자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 **의무적 순환 보직 및 임기 제한:** 어떤 공무원도 "이익 네트워크"의 형성을 막기 위해 결

정권을 가진 직책에 **5-7 년 이상** 재직할 수 없습니다.

### **3. 사생활 존중 및 책임 강조:**

- 의무적인 재산 및 선물 신고 제도는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람을 신중히 고르되, 일단 썼으면 믿어야 한다"는 핵심 원칙에 기반합니다.
- 잘 설계된 시스템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심스러운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합법적인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은 존중받을 일입니다.

### **4. 고의적 배신 범죄에 대한 최종 처벌:**

- **적용 범위:** 이 형벌은 대규모 공금의 고의적 횡령이나 공공 공사의 질을 저하시키기 위해 계약자와 유착하는 등, 의도적인 배신을 드러내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 **범죄의 본질:** 이는 "민족의 후한 대우와 신뢰를 고의로 배신한" 죄로 간주됩니다.

- **형벌: 전 재산 몰수** 및 어떠한 공직도 맡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며, 이 죄목에 대해서는 사면의 기회가 없습니다.

**5. 칭호와 성과주의 병폐** 청렴한 공직과 실질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칭호, 상, 또는 훈장/메달을 관리하거나 수여하는 메커니즘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성과주의 병폐"와 부정적인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청렴한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일하고 가장 고귀한 인정은 국민의 만족, 합당한 대우, 그리고 봉사하는 자부심입니다. 동시에, 전문분야에서의 상을 심사하고 수여하는 것은 시민 사회의 자유에 속할 것입니다. 전문 협회, 문화, 과학 단체 등은 자신들만의 기준에 따라 뛰어난 개인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을 자유롭게 제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개입하지 않습니다.

## • 사회 복지: 책임과 효도(孝道)의 회복

도덕 공화국의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정책 결정 중 하나는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적인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도덕과 천리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연금 제도는 그 최초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사회의 혼에 세 가지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 **효도(孝道)의 침식:** 이는 가족 내의 신성한 유대와 자연스러운 책임을 깨뜨렸습니다. "익명의 연금 기금"을 만듦으로써, 국가는 무심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며 감사를 표현할 기회와 의무를 빼앗았습니다.
- **부도덕한 부담의 생성:** 이는 후세대가 자신이 만들지 않은 빚을 짊어지게 하여, 정작 자신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시스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합니다.
- **"일한 만큼 거둔다"는 원칙에 역행:** 이는 "많이 일하면 많이 얻고, 적게 일하면 적게 얻으

며, 일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인과법 원칙을 위반합니다. 개인의 노력을  
받는 결과와 분리시킴으로써, 그것은 무심  
코 **의존 심리, 게으름을 조장하고, 자율성을**  
**침식**합니다.

국가라는 기계에 위탁하는 대신, 이 모델은 수천 년  
간 도덕적인 사회들의 토대였던 **세 가지 자연스럽**  
**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둥**을 회복할 것입니다.

○ **기둥 1: 개인의 책임 (자율의 토대):** 모든 성  
인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저축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자율 형태를 장려하기 위해 안  
정적인 경제 환경과 낮은 세율을 조성할 것  
입니다.

- **개인 저축 및 투자:**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만의 자산을 축적합니다.
- **자발적 연금 계획:** 누구나 자발적 연  
금 보험, 민간 투자 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하여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기둥 2: 가족의 책임 (복지의 심장):** 가장 굳건하고 아름다운 사회 복지 기둥은 바로 가족입니다. 자녀는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돌볼 **자연스러운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잇는 것이며 복덕(福德)이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 **기둥 3: 공동체의 선량함과 상부상조 (자발적 안전망):** 불운한 사람들(가족이나 자녀가 없거나 재난을 당한 경우)을 위한 복지망은 공동체의 **선함과 상부상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즉, 상조회, 자선 단체, 종교 단체, 그리고 이웃사촌입니다.

국민이 스스로를 돌보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동체가 서로를 감싸주는 사회는 재정적으로 더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국가에 위탁하는 사회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 \* \*

## **D. 국가 복무: 봉사는 공동의 책임**

전통적인 병역 의무 모델 대신, 국가는 18 세에서 30 세 사이의 모든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복무" 제도를 수립할 것입니다. 주요 복무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 **1. 일반 복무:**

이는 기본 선택 사항으로, 6 개월에서 1 년까지 유연한 복무 기간을 가집니다. 국민은 스스로 기간을 등록하고 행정 지원, 환경 보호에서부터 군대, 경찰의 기본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신입 졸업생 평균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기본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 **2. 대체 복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을 위한):**

특별한 능력(기업가, 과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등)을 가진 개인은 대체 복무 형태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 재정 기여:** 예를 들어, 1 인당 평균 소득의 3 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 **전문성을 통한 기여:**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지역 사회에 봉사할 것을

서약합니다(예: 창업 컨설팅, 무료 진료, 교육 등).

### **조정 및 면제 메커니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필요시 기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하거나 승인 인원을 조절하여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대체 복무" 또는 "특별 면제"(비범한 기여를 한 개인을 위함) 사례의 심사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국가 복무 전담 기관 또는 주(州)급 정부가 결정할 것입니다. 명주와 현인회는 일반 원칙만 설정하고, 개별 사례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 **E. 신(神)의 질서 보존: 생명과 기술에 대한 경계선**

도덕 공화국은 인간 지성의 오만함이 너무 멀리 나아가, "치유"와 생명 "개조" 사이의 경계를 넘어, 천리(天理)를 거스르는, 신을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만들어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생명의 신성한 질서와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인정하지도, 보호하지도, 자금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단지 도덕적 관점에 기반한 권고만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낙태:** 이는 "선택권"이 아니라, 세상에 오도록 안배된 한 생명의 환생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 **기증자에 의한 인공수정 및 대리모:** 이러한 방법들은 가족의 신성한 혈연 및 업연(業緣)의 연결을 파괴합니다.
- **의지와 사상에 대한 침해:** 모든 기술,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에게 봉사하는 한계 내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층을 침범하고 창조물과 기계 사이의 신성한 경계를 허무는 다음의 행위들은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 인간이든 동물이든, 한 생명의 생각과 자유의지를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위해 AI 또는 다른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 그들의 자연적 본성을 통제하거나 바꾸려는 목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뇌에 칩이나 전자 장치를 이식하는 행위.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과학과 진보의 이름으로 행해지더라도, 그것들은 인류의 인간성과 자연 질서의 미래에 해아릴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 인간의 뇌나 의식을 로봇 몸체나 컴퓨터 시스템에 결합하여, 인간을 반(半)기계적 생명체로 만드는 행위.
- **인간 유전자 변형 및 복제:** 이는 신이 창조한 생명의 암호를 간섭하는, 가장 오만한 "신의 역할을 하는" 행위입니다.
- **종(種)의 질서에 대한 간섭:** 유전자 변형, 비자연적 교배, 멸종된 종의 부활 시도, 또는 완전히 새로운 종을 만드는 기술의 사용은 모두 오만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대대로 농부들이 해왔던, 자연에 순응하는 전통적인 접붙이기나 교배 방법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 **장기 이식:**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장기를 옮기는 것은, 비록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신께서 부여하신 완벽한 전체에 대한 간섭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 교환이 아니라, 생명들 사이의 정보와 업력(業力)의 교란이기도 합니다.
- **다른 세계에 대한 간섭:** 언젠가 인류 과학이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거나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불가침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의 환경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자원을 약탈하거나, 그곳 생명들의 사회운행을 교란해서는 안 됩니다. "실험용 쥐"로 쓰거나 "이상한 생물"로 전시하기 위해 다른 세계의 생명들을 지구로 납치하거나 속이는 행위 또한 지지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다른 세계를 침범하는 행위 역시 오만함의 표현이며 예측할 수 없는 업보를 만들 것입니다.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러한 도덕적 경계선들은 인간의 지성과 욕망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과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수련인이, 거대한 자비심과 덕행으로, 어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신으로부터 직접적인 인도와 허락을 받는 특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인간의 간섭이 아니라, 천의(天意)의 안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강압, 사기, 또는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징후를 당국이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행위를 저지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자동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자신의 뜻대로 생명을 "개조"하려 하지 않고, 안배된 법칙과 겸허히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 F. 환경

도덕적인 사회는 천지(天地)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 정책은 인간 세상에서의 행위 수정과 더 깊은 층위의 원인 이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유럽 국가나 일본의 모델과 유사하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 및 폐수 처리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림 정책은 유칼립투스과 같이 토양에 해로운 단일

경작 수목의 식재를 금지하고, 그 대신 다양하고 자연적인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 \*

## 제 7 부: 외부 세계와의 관계

도덕적인 국가는 고립된 섬이 될 수도 없지만, 세속의 권력 게임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대외 정책은 국내 통치 철학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즉, 존중, 겸손, 그리고 굳건함입니다.



## A. 외교 정책: 평화 우호와 불간섭의 경계선

이 국가는 정치 체제나 이념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와 기꺼이 교류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토대는 서로의 신앙, 문화, 그리고 독립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입니다.

하지만 "내정 불간섭" 원칙은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언론(言論)에 대하여 - 도덕적 등대의 책임:** 한 정권이 신앙 탄압이나 집단 학살과 같은, 보편적 도덕 가치를 위배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때, 진실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간섭이 아닙니다. 악(惡)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바로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지, 침략하는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행동(行動)에 대하여 - 주권에 대한 절대적 존중:** 진정한 간섭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내부 정책을

바꾸도록 강제하기 위해 경제적, 군사적 강제 조치를 사용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략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내정"이 아닙니다. 그 경우, 우리는 침략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 제재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 **B. 군사: "중립적 방위" 독트린**

오직 자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을 통해, 이 국가는 평화 시에는 어떠한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 동맹은 종종 국가를 자신과 무관한 분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약속을 동반하며, 이는 평화 우호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오직 민족의 독립과 생존이 실제로 위협받는 경우에만, 정당한 방어 목적의 임시 동맹 결성이 고려될 것입니다.

## **C. 국제 무역: 절대적 자유와 "밀수"의 철폐**

우리의 국내 경제 철학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제 무역 정책은 그 철학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수입세 또는 수출세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밀수(密輸)"라는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민은 금, 외환, 또는 디지털 화폐와 같은 자산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매매하고 운송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마약이나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이 사회에 명백히 해를 끼치는, 극히 좁은 목록의 절대 금지 품목입니다.

#### **D. 국제기구: "발언권을 가진 옵서버" 역할**

이 국가는 대부분의 주요 국제기구에 참여하되, "발언권을 가진 옵서버"라는 특별한 역할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에 참석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공유하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표나 국제 군사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절대적인 독립을 보장합니다. 하지

만 우리는 국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재정 및 인력을 기여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것입니다.

## **E. 이민과 국적: 자립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공동체에 의해 선별**

우리의 철학은 열린 국가입니다. 국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는 "도덕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적 취득 기준:** 오직 두 가지 객관적인 기준만 있을 것입니다.
  - **경제적 자립 능력:** 안정적인 직업이 있음을 증명(예: 개인의 경우 1 년, 가족 초청의 경우 3 년).
  - **사법 기록:** 우리는 "속죄와 양심 보호"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입국은 허용되지만 감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 수배 범죄자의 경우, 국가는 정의의 원칙, 명확한 증거, 주권 존중에

기반하여 국제 사법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가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다른 정권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수(良心囚)"들은 국적을 취득하고 진정한 공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 **자연적 선별 메커니즘:** 우리는 "도덕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대신, 높은 도덕적 기반을 가진 사회는 자연스럽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적합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자동적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 F. 국가 규모의 문제를 넘어서

이 모델은 규모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규모의 문제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듭니다. 진정한 권력이 지역 공동체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크든 작든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국가

라 할지라도 팽창 동기가 뿌리부터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고 오만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 \* \*

## 제 8 부: 위기 관리와 전환기

## A. 국가 위기 대응 메커니즘: 먼저 성찰하고, 나중에 불을 끈다

현대 세계에서는 대유행병, 슈퍼 태풍, 또는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부르며 즉시 기술적인 해결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 공화국은 더 깊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적 규모의 재난은 단순히 자연의 잘못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天上)으로부터 온 가장 엄중한 경고이며, 사회 전체와 지도자들이 쌓아온 도덕적 과오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각급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 **주(州)급 지도자의 역할:** "불을 끄는" 책임 - 즉, 주민 대피, 구호, 물질적 피해 복구 - 은 지역 지도자들에게 속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중앙 정부는 조율자 역할을 하

며, 국가 비축 창고를 열고 각 주가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명주(明主)와 현인회(賢人會)의 역할:** 그들의 임무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도, 피상적인 관심을 보이기 위해 큰 피해를 입은 현장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그들의 가장 숭고한 임무는 바로 **\*\*성찰(省察)\*\***입니다. 천상께서 경고의 말씀을 내리셨을 때, 국가의 수장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명주와 현인회는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앉아, 진심으로 내면을 향하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어떤 정책 결정과 노선이 백성과 나라에 해를 끼치고 사회 도덕을 훼손하며 천리(天理)를 거슬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주의 진정한 행동은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폭풍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부터 바로잡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B. 전환 로드맵: 역사의 자연스러운 각성**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읽고 나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그러한 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세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구상되는 어떤 구체적인 전환 계획이라도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정치 혁명이나 위로부터의 법령으로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회에 "설치"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새싹"이어야 합니다.

전환은 정치인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들에게서 시작될 것입니다. 즉, 그들 중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너무 지쳐서 자신의 진실함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것은 가족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어, 사회 전체의 각성 물결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열린 미래에 대한 결론은 계획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입니다.

"저는 제 생전에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리라 희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가 인위적인 제도들에 지쳤을 때, 그들이 소박한 진리로 회귀할 것이라 믿습니다. 즉, 도(道)를 근본으로 삼고, 마음을 주인으로 삼으며, 현재(賢才)를 기둥으로 삼는 길로 말입니다."

역사에는 그 자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미래를 위한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도덕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 \* \*

## 제 9 부: 예시적 수치에 대한 부록

친애하는 줄리안, 아래의 수치와 절차들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위의 원칙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초기 구상일 뿐이요. 최종적인 세부 설계는 그 시대 현인들의 지혜와 합의에 속하는 것이며, 그들의 실제 상황에 기반해야 할 것이요.

## **부록 A: 최고 지도자와 핵심 제도에 대한 원칙**

### **1. 명주(明主) 가족의 소유권과 자유:**

**원칙 1: 임기 전후 개인 재산의 존중.**

**개인 소유권의 보전:** 한 개인이 명주 직위를 맡는 것은 국가에 봉사하는 행위이지, 공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명주와 그 가족이 임직 전에 취득한 모든 합법적 재산, 그리고 임기 중 및 임기 후 봉급과 개인 활동을 통해

합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은 다른 모든 공민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불가침이요.

## **원칙 2: 가족의 노동 및 사업의 자유.**

**친족의 경력 개발 자유:** 명주의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모든 공민과 마찬가지로 학업, 노동, 사업 및 자신만의 경력을 추구할 완전한 자유를 가지요. 국가는 그들의 개인적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소.

하지만 절대적인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명주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 활동이나 맡은 직위는 특별한 투명성 및 감독 규칙을 준수해야 하오. 예를 들어, 그들의 회사는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요. 명주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리될 것이요.

### **• 봉급:**

- 이 직위의 재정적 독립성과 품위를 보장하기 위해, 봉급은 뒷부분의 공식에 따라 계산될 것이요.

- 명주는 관저(官邸)에 거주하게 될 것ियो. 필요 시 새로운 궁전을 짓는 것 또한, 비용과 최고 원수로서의 위상에 모두 부합하도록, 너무 소박하거나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현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오.
- 국가 또한 명주의 친족, 즉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주를 부양하오. 이 부양 패키지에는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의 5 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학비, 주거, 교통비 무료 지원이 포함되오.

### 명주 봉급 계산 공식:

**명주 봉급 = (1 인당 평균 소득) x (기본 계수) x (책임 계수)**

여기서,

**기본 계수:** 이는 기본적인 배율로, **15 배에서 25 배** 사이를 제안하오. 이는 명주가 세계의 성공적인 인재 대우 모델에 걸맞은 풍족한 생활 수준을 보장 받도록 하기 위함ियो.

**책임 계수:** 이 계수는 수치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인구 규모에 따라 로그 스케일로 계산되오.

예시:

- 인구 1,000 만 미만 국가: 계수 = **1.0**
- 인구 1,000 만 ~ 5,000 만 국가: 계수 = **1.2**
- 인구 5,000 만 ~ 2 억 국가: 계수 = **1.5**
- 인구 2 억 초과 국가: 계수 = **2.0**

**적용 예시:**

**사례 1:**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 (인구 < 1,000 만, 1 인당 GDP ~\$88,000)

봉급 =  $88,000 \times (15 \sim 25) \times 1.0 = 132 \text{ 만} \sim 220 \text{ 만 달러}$

**사례 2:** 미국과 같은 국가 (인구 > 2 억, 1 인당 GDP ~\$85,000)

봉급 =  $85,000 \times (15 \sim 25) \times 2.0 = 255 \text{ 만} \sim 425 \text{ 만}$  달러

## 2. 고위 직책에 대한 대우 제도 (현인회, 입법자문회, 교육자문회, 최고법원 판사, 정부 구성원 등 포함):

- **현인회 위원**의 경우: 정회원의 봉급은 국민 평균 소득의 15 배에서 25 배 사이, 예비회원은 8 배에서 12 배 사이에서 변동될 것입니다.
- **나머지 그룹의 위원**의 경우: 정회원의 봉급은 국민 평균 소득의 8 배에서 18 배 사이, 예비회원은 5 배에서 10 배 사이에서 변동될 것입니다.

**주석:** 각 국가의 상황과 시대에 따라 적절한 수치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3. 임기에 대한 특별 조건:

한 개인이 최고 권력 직위에 너무 오랫동안 재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기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현직 현인회 위원이 명주로 선출될 경우, 명주로서의 그의 최대 임기는 **15 년**이 될 것입니다.
- 반대로, 퇴임한 명주가 신임을 얻어 현인회에 선출될 경우, 현인회 위원으로서의 그의 최대 임기 또한 (기본 25 년 대신) **15 년**이 될 것입니다.

#### **4. 명주 선출 상세 절차:**

- **네 개의 투표 그룹:**
  - 현직 명주 (25%)
  - 현인회 (25%)
  - 국가 선거인단 (각계 지도자) (25%)
  - 전체 국민 (25%)



- **당선 조건:** 최고 득표를 하고 최소 40%의 총 득표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위 두 후보가 2 차 투표에 진출합니다.
- **긴급 상황:** 현직 명주가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그의 권한은 합리적으로 재분배될 것입니다.

## 신임 집단별 투표 메커니즘에 대한 논고:

명주가 당선되기 위해, 그에 대한 신임은 단일한 출처에서만 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민심(民心)**(사회 기반의 신임)과 **현재(賢才)의 지혜**(능력과 덕망의 신임)의 총화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중요한 유권자 집단인 전국인민 집단과 현재 선거인단 집단의 투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설계됩니다.

### 가) 전국 인민 집단 (가중치 25%):

이 집단은 전체 민중의 목소리와 승인을 대표합니다. 각 공민의 투표는 삶의 경험과 판단의 성숙도를 인정하기 위해 오직 **연령**에

만 기반하여 가중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모든 세대에 대한 공정성과 존중을 보장하는 종형 곡선 위에 구축됩니다.

**연령별 투표 가중치 척도:**

- 18 세 ~ 28 세: **1 표**
- 28 세 ~ 38 세: **2 표**
- 38 세 ~ 48 세: **3 표**
- 48 세 ~ 58 세: **4 표**
- 58 세 ~ 68 세: **5 표** (경험과 명민함의 정점)
- 68 세 ~ 78 세: **4 표**
- 78 세 ~ 88 세: **3 표**
- 88 세 ~ 98 세: **2 표**
- 98 세 이상: **1 표**

**주의:** 연령에 따른 가중치 외에, 시스템의 평등과 단순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보통투표에 다른 어떤 형태의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나) 국가 선거인단 (가중치 25%):

이는 회의가 필요한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대표하는 **약 2,500 명의 특별 유권자 집합**입니다. 그들은 전문적 관점과 사회적 책임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독립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 나-1) 구성:

위원 명단은 다음 집단들의 현직 역할과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행정 및 공무 (20%):** 중앙 정부와 각 주의 고위 지도자.
- **경제 (20%):** 국가 최대 기업들의 지도자 및 고위 전문가.

- **종교 및 정신 (15%):** 주요 종교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대표.
- **문화 및 예술 (10%):** 직업 협회가 추천한, 영향력 있는 예술가, 작가, 감독 등.
- **교육 및 과학 (15%):** 신망 있는 대학, 연구 기관의 지도자 및 최고 학자.
- **시민 사회 (10%):**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정당 및 사회 단체의 지도자.
- **정책 자문 (10%):** 입법 및 교육 자문회의 현직 위원.

## 나-2) 투표 계산 방식:

- **일반 원칙:** 현재 선거인단 내 각 위원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한 표를 가집니다.

- **도덕적 가중치:** "도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철학을 확고히 하기 위해, **종교 및 정신** 집단에 속한 대표들의 투표는 다른 집단 소속 위원들의 투표보다 특별히 높은 가중치(예: **1.5 배 또는 2.0 배**)를 가질 것입니다. 이는 최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양심과 도덕의 목소리가 항상 우선적인 지위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수천 개의 독립적인 투표로부터 종합된 결과가 이 25% 집단 전체가 각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 • **현직 명주의 "동적 신임" 메커니즘:**

- **정기 감독:** 명주는 10 년 차와 20 년 차에 두 번의 의무적 신임 투표에 직면할 것입니다.
- **영향력 결정:** 임기 종료 약 6 개월 전, 후임자 선거에서 현직 명주의 투표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신임 투표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 투표는 전체 25 년간의 헌신을 평가하기 위해 현인회의 투표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어, 전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투표 가중치 프레임워크:**
  - **매우 높은 신임 (>85%):** 투표 가중치가 최대 **\*\*40%\*\***까지 증가.
  - **높은 신임 (70-85%):** 기본값 **25%** 유지.
  - **중간 신임 (50-70%):** 투표 가중치가 **\*\*15%\*\***로 감소.

- **낮은 신임 (<50%):** 투표 가중치가 명예적인 수준인 **\*\*5%\*\***에 불과.

- **현인회 구조:**

- **의결권:** 전국 투표에서, 각 정회원은 총 가중치의 1%를 대표합니다. 예비회원은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정회원이 부재할 때만 대리 투표할 수 있으며, 총 대리 투표 수는 부재자의 투표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 각 위원회(현인회, 최고법원, 각 자문회)의 구조 및 계승 주기:**

**"세대교체" 동기화 계승 원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통일된 "선거 시즌"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모든 핵심 위원회 제도는 **5 년에 한 번**이라는 동기화된 계승 주기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현인회:** 정회원 25 명, 임기 25 년. 매 5 년마다 재임 기간이 가장 긴 5 명을 교체 선출합니다.
- **최고법원:** 판사 15 명, 임기 15 년. 매 5 년마다 재임 기간이 가장 긴 5 명의 판사를 교체 선출합니다.
- **각 자문회 (법률, 교육 등):** 정회원 25 명, 임기 25 년. 매 5 년마다 재임 기간이 가장 긴 5 명을 교체 선출합니다.

## **부록 B: 세부 운영 규칙**

### **1. 사법부에 대한 규칙:**

#### **1.1. 판사(최고법원 및 주(州)급) 선출 및 임명 절차.**



#### 1.1.1. 최고법원 판사 선출 절차:

- **전문성 심사:** 입법자문회는 전문 법조계의 추천을 받는 중심 창구로서, 역량과 법률 경험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자 명단을 추리는 책임을 집니다(예: 교체 필요 인원 5 명에 대해 약 15 명의 후보).
- **다층적 선출:** 5 명의 신임 판사는 축약된 명단에서부터, 각 25%의 가중치를 갖는 4 개의 신임 집단에 의한 가중 투표를 통해 선출 될 것입니다.
  1. **명주(明主):** 행정부의 신임을 대표.
  2. **현인회(賢人會):** 도덕적, 명철함의 보증을 대표.
  3. **입법자문회:** 최고 법률 전문가들의 인정을 대표.
  4. **법조계 대표 (약 100 명):** 사법부 내부의 신임을 대표.

이 절차는 선출된 최고법원 판사가 정치, 도덕, 전문 분야의 신망을 고루 갖추고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 **1.1.2. 주(州)급 판사 임명 절차:**

주급 판사의 임명 절차는 권력 분산과 교차 감독 메커니즘을 보장하기 위해 3 단계로 진행됩니다.

- **1 단계: 지역 심사:** 각 주는 "주급 사법 선출 위원회"(해당 지역의 가장 신망 있는 판사, 변호사로 구성)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역량과 도덕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들의 축약된 명단을 심사하고 추천할 책임을 집니다.
- **2 단계: 중앙 승인:** 이 축약된 명단은 최고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최고법원은 명단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후보자들이 국가의 공통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3 단계: 지역 임명:** 최고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명단은 주지사에게 다시 보내질 것입니다. 주지사(주급 행정부 수장)가 이 명단에서 판사를 선택하고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됩니다.

## 1.2. 법원의 관할권 한계 (정책에 대한 판결 불가).

권력의 명확한 분담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사법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관할권을 갖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정책에 대한 판결 불가:** 법원은 명주와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대외 정책 결정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 감독은 헌인회의 정치적 감독 메커니즘에 속합니다.
- **공민 자격에 대한 판결만 가능:** 법원은 한 공직자가, 명주를 포함하여, 개인 공민 자격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예: 부패, 형사 범죄)에만 그를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공직자가 국가 통치 권한의 틀 안에서 수행한 행동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 **1.3. 민사 및 경제 사건에 대한 민간 중재 메커니즘.**

- **원칙:** 국가는 신속성, 유연성, 높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중재 센터를 통한 민사 및 경제 분쟁 해결을 장려합니다.
- **국가의 역할:** 국가는 이 센터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국가는 민간 중재 기관의 설립 및 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 **법적 효력:** 민간 중재인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가 법원 시스템은 법의 엄정함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판정을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 **2. 안보 및 민간 질서 병력에 대한 규칙:**

### **2.1. 조직 및 장비에 대한 원칙:**

- **병력 최소화:** 군대는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 (예: 통상 규모의 1/10)으로 유지될 것이며, 경찰력 또한 높은 도덕적 기반과 낮은 범죄율을 가진 사회에 걸맞게 매우 간결할 것입니다.
- **민간의 무기 소지 절대 금지:** 국가는 모든 공민이 총기, 폭발물, 독극물과 같은 살상력이 있는 무기를 소유, 보관,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합니다. 국가는 무력 사용에 대한 완전한 독점권을 가집니다.
- **경찰의 무기 장비 통제:**
  - 국민과 빈번히 접촉하는 민간 경찰력(예: 교통경찰)은 **총기를 절대 소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오직 형사 경찰력만이, 특별히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이고 직속 상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명령으로 허가받았을 때에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 2.2. 역할 및 권력 한계에 대한 원칙:

- **군대의 정치 절대 불간섭:** 군대는 정치 활동, 권력 투쟁, 또는 쿠데타 참여가 절대 금지됩니다. 명주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군대의 충성은 어떤 개인이 아닌, 헌법과 국가를 향합니다.
- **군대 참전 동원 규칙:** 오직 명주만이 군대 참전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이 또한 현인회 구성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 **시위 대응 규칙:**
  - 군대는 국민의 시위에 개입하는 것이 절대 금지됩니다.
  - 경찰은 질서를 보호하고 과격 분자들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에 있지만,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 또한 어떤 종류의 무기(총, 칼, 화염병 등)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거주지 불가침권:** 경찰은 집주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임의로 또는 강제로 국민의 집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인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상황(예: 화재, 내부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3. 시장 및 반독점에 대한 규칙:

#### 3.1. 일반 반독점 및 "끼워팔기" 방지 원칙:

- **성공과 남용의 구분:** 국가는 능력과 창의성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달성한 기업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가격 담합, 악의적인 덤핑 판매, 또는 경쟁자 말살 성격의 인수 합병 행위와 같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법률과 법원 시스템을 통해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 **"끼워팔기" 절대 금지:** 모든 강매 행위(tying, 또는 "끼워팔기")는 금지됩니다. 한 회사가 고객에게 주요 상품(B)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부가 상품(A)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이는 은행, 부동산에서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됩니다.

### **3.2. 자연독점 산업(전기, 석유 등)에 대한 감독 및 경쟁 메커니즘:**

국가 전력망, 석유 파이프라인 시스템과 같이 인프라가 자연독점적 성격을 띠는 산업에 대해, 국가는 인프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매 단계에서의 경쟁을 창출하기 위해 분리 모델을 적용할 것입니다.

**가. 인프라와 소매의 분리:** 단일 민간 기업("총공사")이 공동 인프라(전력망, 파이프라인 등) 운영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직접 배급하고 판매하는 소매 단계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다른 민간 기업들에게 공개 입찰될 것입니다.

#### **나. 경쟁 및 퇴출 메커니즘:**

- 각 지역의 배급 및 소매권은 정기적으로 입찰에 부쳐질 것입니다. 이 주기는 투자자의 안정성과 고객에 대한 정기적인 책임성 사



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국가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1 년에서 3 년 사이로 유연하게 제안됩니다.

- 각 주기 후, 계약 연장 또는 신규 입찰 실시 는 해당 지역 고객 만족도 평가 지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한 회사의 평가 점수가 국민에 의해 특정 기준(예: 10 점 만점에 5 점) 이하로 매겨지면, 그 회사는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권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경쟁자들을 위한 새로운 입찰이 열릴 것입니다.

**다. 독립 감독위원회의 역할:** 국가는 이들 산업을 위해 간결한 독립 감독위원회만을 유지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한 입찰 조직.
- 국민의 평가 점수 수집 및 공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 규칙 제정 (예: 장 비 강매 금지, 요금 및 각종 수수료 투명화).

### 3.3. 공공자산(자원, 부동산) 경매 원칙:

모든 공공자산 경매 활동은 다음의 엄격한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 가. 일반 원칙:

- **감정 및 최저가:** 각 경매 전에, 국가는 하나 또는 여러 독립 감정 기관을 고용하여 자산 가치를 공개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가"(최소 세율 또는 최소 시작가)가 설정될 것입니다.
- **낙찰 포기 방지 제재:** 낙찰 후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금지되며, 극히 엄격한 재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나. 자원 채굴권 경매 특별 규칙:

- **이중 기준:** 낙찰 기업은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따라 선택될 것입니다: (1) 가장 높은 제안 세율과 (2) 최상의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약속.

- **낙찰 포기 제재:** 낙찰 후 프로젝트를 포기할 경우, 회사는 첫 해 예상 투자 비용의 매우 큰 비율(예: 7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것입니다.

#### **다. 부동산 경매 특별 규칙:**

- **낙찰 포기 제재:** 시장을 조작하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한 회사가 경매에 낙찰되고도 공표된 엄격한 일정에 따라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낙찰가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고 해당 자산은 몰수될 것입니다.

#### **3.4. 단기 투기("단타") 방지 메커니즘:**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시장에 "거품"을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산 거래에 최소 보유 기간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목적은 소유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활동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 개인이나 조직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1 년 이내에는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 **증권의 경우:**
  -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주식을 매입한 후 6 개월 이내에는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 6 개월 기간 후에도, 고빈도 거래를 계속 제한하기 위해, 이익 부분에 대해 0.1%의 거래 수수료가 징수될 것입니다(매도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징수).

### **3.5. 소비자 보호 규칙 (녹음권, 숙려 기간 등):**

거래에서의 권력 균형을 맞추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규칙들이 모든 서비스 산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가. 의무적 투명성 원칙:** 모든 회사, 신용 기관 등은 모든 상품, 서비스 패키지 및 부대 조건을 자사 웹사이트에 공

개적, 공식적, 상세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공표된 정책과 다른 모든 "구두 강요" 행위는 불법입니다.

**나. 녹음권:** 모든 공민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전체 상담 및 거래 과정을 녹음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이 권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부가 상품에 대한 "숙려 기간":** 주요 상품/서비스에 부가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서비스(예: 대출에 딸린 보험, 자동차에 딸린 액세서리 패키지)에 대해, 고객은 "숙려 기간"(예: 14 일)을 가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부가 상품을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취소는 주요 상품 계약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3.6. 경제 위반에 대한 제재 프레임워크:**

사기 또는 고객 강요와 같은 경제 위반(예: 대출 실행을 위해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 절대적인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층적인 제재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입니다.

**가. 거래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확인된 모든 거래는 무효화됩니다. 위반 당사자(회사, 은행)는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적절히 배상해야 합니다(예: 강제 대출의 경우, 은행은 대출해 준 원금 전체를 잃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제재:** 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한 개인 및 그 방침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 지도자들은 해고되고, 해당 분야에서의 영업이 장기간(예: 5 년, 10 년, 또는 정도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다. 조직에 대한 제재:** 배상금 외에, 위반 조직은 위반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전체 이익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무거운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 \*

## 제 10 부: 편지의 맺음말

### A. 남기는 말과 위탁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며 이 사색의 흐름을 이끌어준 그대, 줄리안에게 이 글을 보내오.

나는 이 모델이 당장 내일 적용될 것이라 감히 꿈꾸지 않소. 이는 권력과 이익의 환상을 기꺼이 포기하고, 지혜와 도덕을 믿을 준비가 된 사회를 요구하기 때문이오. 하지만 언젠가 인류가 권력 게임과 썩어빠진 제도들에 지쳤을 때, 이 글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벽돌 한 장, 씨앗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오.

나는 그대가 그대의 펜을 통해, 이 씨앗을 깨어나는 영혼들의 땅에 심는 법을 알 것이라 믿소. 미래 세대를 위해 내가 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는 과연

투표 대신 덕행으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현인회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가?

## **B. 한 취임식 날의 비전**

줄리안, 그대는 아시오? 때로 기나긴 사색의 밤에, 나는 이 모델이 진정으로 가져다줄 한 축제의 날을 상상하곤 하오. 그것은 제도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정신적 보상이오.

새로운 명주(明主)가 선택된 날, 위세를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는 없을 것이오. 대신, 가장 오래된 사찰과 성당들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범종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이 깃들었음을 알리는 소식처럼 일제히 울려 퍼질 것이오.

거리마다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기 위해 쏟아져 나오지 않을 것이오. 그들은 자신의 집 문을 열고, 향기로운 찻주전자를 내어와 이웃을 초대해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내려놓아진 듯할 것이오. 어르신들은 손주들에게 새로운 명주의 덕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고, 젊은 세대는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행동으로 축하할 것이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모습은, 수백만 명 앞에서의 웅장한 취임 연설이 아닐 것ियो. 대신, \*\*제천전(祭天殿)\*\*의 장엄한 공간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 즉 **전임 명주, 현인회 전원, 그리고 국가의 가장 뛰어난 대표 수백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의식**이 거행될 것ियो.

현인회를 대표하는 한 원로(元老)가 의식을 주관할 것이나, 이는 권력을 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지(天地) 앞에서 천명(天命)을 증명하기 위함ियो. 그리고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새로운 명주는 제단 앞에서 친히 향(香) 한 자리를 피워 올릴 것ियो. 이는 천상(天上)에 명철함을 구하는 기도이자,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왔다는 겸허하고 말없는 약속처럼 말ियो.

국가의 어른들 앞에서 행해지는 이 행동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오. 그것은 증인이 있는 계승이며, 명예와 화합 속에서의 책임 이양ियो.

그날은 국민이 한 개인을 축하하는 축제가 아니라, 바로 자녀들의 미래를 축하하는 날ियो. 그들이 기쁜 것은 권력 있는 군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할 만한 존경스러운 어른을 찾았기 때문ियो.

## 서명

나는 이 생각들을 그대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남기오.

*진리(眞理)를 찾아가는 여정 위의 한 친구가.*

\* \* \*

## 맺음말

전직 대통령과의 나흘간의 대화가 끝나고, 그 후 예기치 않게 도착한 ‘심서(心書)’를 받았을 때, 저는 이 여정이 두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전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게 남은 것은 정계의 비밀들이 아니라, 현대 세계가 작동하는 가치 체계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정적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시대의 병폐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물질적 토대 위에 세워진 제도들의 실패와 그 안에서 쇠퇴해가는 인간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뱃사공”의 역할로서, 저를 그 사상의 강들을 조용히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부하셨듯이, ‘심서’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정치적 처방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이 뿌리부터 뽑힌 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에 대한 구상입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남긴 최종 메시지는 변치 않으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즉, ‘심서’에서처럼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 할지라도, 텅 빈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운영된다면 무너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도덕 공화국은 정치 혁명으로 "건설"될 수 없으며, 각 개인의 도덕적 부흥으로부터 "새싹이 돋아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깁니다.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 하나와, 우리가 감히 그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청사진 하나입니다.

그분께서 일깨워주셨듯, 가장 중요한 여정은 완벽한 제도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더 나은 세상은 정부의 회의실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사람들의 마음속 정적(靜寂)으로부터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리언 리** (Julian Lee)

디 에포크 미디어 ( THE LIVES MEDIA )

\* \* \*

# 저자 및 THE LIVES MEDIA 프로젝트에 대하여

## 저자 소개

줄리언 리 (Julian Lee) 는 정치, 문화, 사회, 과학, 영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독립 작가이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일깨우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글로 담아낸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실제 인터뷰에서 비롯되며, 정직함과 감정적인 깊이, 그리고 깨달음의 정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프로젝트 소개

이 책은 THE LIVES MEDIA 에서 출판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THE LIVES MEDIA 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글로벌 비전의 독립 출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뉴스를 쫓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책을 지향합니다.

## 연락처

- ✧ 웹사이트: [www.thelivesmedia.com](http://www.thelivesmedia.com)
- ✧ 이메일: [editor@thelivesmedia.com](mailto:editor@thelivesmedia.com)
- ✧ QR 코드:



##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

THE LIVES MEDIA 의 다른 출판물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진 · 금광 (Red Dust, Golden Light)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 바로 이 책입니다
- 과학의 황혼과 여명 (Sunset and Sunrise of Science)
- 붉은 베일 (The Red Veil)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 우리 이전 (Before Us)
  -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에 신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  
기를 빕니다.**